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에 빠진 인간들이 이제는 더 타락하여 성경의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찾아 가는 무지함을 범하고 있음을 통회하며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전파의 사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니라 요한일서 4장 16절

# 미주크리스천신문

##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www.chpress.net

주후 2018년 5월 5일 (토) 제 1680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 미국인 56% '성경적 하나님' 믿는다!

#### CT, 퓨리서치 설문 보도 "88% 하나님 믿지만, 어떤 하나님인지..."

미국은 청교도들이 이민 와서 세운 나라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최소 화폐 단위인 1센트(cent)짜리 동전에조차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믿는다'(In God We Trust)라고 새겨놓았다. 토 크벨(Alexis de Tocqueville)은 그의 책 "미국의 민주주의(Democracy in America)"에서 "바닷가에 내렸던 최초의 청교도들에서 미국의 모든 운명을 내다볼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가 대다수의 미국인들이 오늘날 일상생활 속에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러한 역사적 전제를 반증하듯이 미국인 10명 중 9명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 퓨리서치는 지난해 12월 4-18일 미국 성인 4,72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교성에 대한 조사 결과를 지난 달 25일 발표했다(When Americans Say They Believe in God, What Do They Mean?: Nine-in-ten Americans believe in a higher

power, but only a slim majority believe in God as described in the B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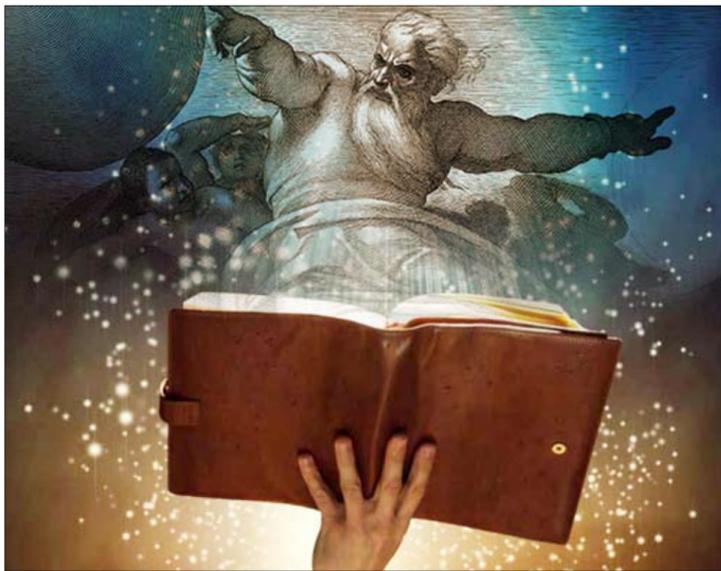
그 결과, '하나님을 믿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성경 속 하나님을 믿는다'고 답한 응답자는 56%였다. '다른 영적 존재나 힘이 있다고 믿는다'는 32%, '신이냐 영적 존재에 대해 믿지 않는다'고 답한 경우는 10%로 나타났다. 세속화 시대 속에서도 10명 중 9명(88%)의 미국인은 여전히 신적인 존재에 대한 믿음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크리스천이티투데이(CT)는 이번 설문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미국인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과연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라는 문제를 지적한다(80% of Americans Believe in God, Pew Found Out What They Mean).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즉 기독교적 전통에서 묘사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미국인은 그나마 과반수를 넘긴 56%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하나님은 성경적 하나님이다. 그러나 다른 상위 영적 존재나 힘으로 묘사되는 신을 믿는 미국인은 23% 그리고 신을 믿지는 않지만 상위 영적 존재나 힘이 있다고 믿는 미국인이 9%로 도합 33%가 성경 속 하나님이 아닌 다른 영적 존재나 힘을 하나님과 동일시하고 있다. 바로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 퓨리서치나 크리스천이티투데이는 지적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과연 하나님이 또는 신적 존재가 어떻게 세상과 관련을 맺고 어떻게 심판하며 그리고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가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미국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구절들("God bless America" and "in God we trust")를 성경대로 받아들이는 미국인은 56%, 다른 영적 존재나 힘으로 믿는 미국인이 33%에 이르게 된다. 하나님을 믿지만, 서로 다른 세계관 속에서 동상이몽하고 있는 것이 바로 현재 미국인들의 종교성이라 할 수 있다.

"성경의 사람들"인 크리스천과 유대인들을 비교해보면,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미국 크리스천 중 80%는 성경 속 하나님을 믿는 반면, 유대인 중 33%만이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다. 다시 말해서,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상위 영적 존재나 힘으로



청교도 신앙으로 출발한 미국의 그리스도인들 중 88%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성경 속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56%에 불과해 놀라움을 나타내고 있다.

로 받아들이고 있다. 따라서 하나님의 속성인 전지전능, 무소부재 그리고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크리스천은 74%에 이르지만, 유대인은 고작 30%에 불과하다.

기독교 안에서 양상은 비슷하다. 거의 모든 복음주의자들과 역사적 혹은 교회들에 다니는 흑인들만이 어떤 다른 그룹들에 비해, 성경 속 하나님을 믿고 있다.

(3면으로 계속)

### 약한 것 나눔으로 영적 무장에 이른다!

#### 리더십저널, 짐 푸트먼 목사의 '가르치는 리더에서 무장시키는 리더' 로의 전환 원리 소개

교회에서 당신은 어떤 리더인가? 가르침에 익숙한 리더인가, 아니면 무장시키는 데 익숙한 리더인가?

가르치는 리더는 좋은 가르침을 준비해 구성원들에게 제공하는 리더다. 구성원들은 그 가르침을 잘 듣고 기뻐할 수 있다. 가르치는 리더는 좋은 가르침만큼이나 완벽한 모습을 보이고자 노력한다. 구성원들은 리더의 모습에 감탄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의 리더가 얼마나 뛰어난지 자랑하기도 한다.

반면에 무장시키는 리더는 좀 다르다. 무장시키는 리더도 좋은 가르침을 준비해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그보다도 구성원들이 스스로 무장해야 할 필요성을 알게 이끌어 준다. 무장시키는 리더는 자신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구성원들에게 자신과 함께 무장할 필요성을 공감하게 한다. 어느새 구성원들은 자신도 무장해 함께 싸우고 싶어 한다.

가르치는 리더는 구성원들을 관객, 평가자의 입장에 세운다면, 무장시키는 리더는 구성원들을 전우, 동참자의 입장에 세운다. 만약 자신이 가르치는데 익숙한 리더라면, 어떻게 무장시키는 리더로 변화해갈 수 있을까?

아이다호 주 포스트 폴스에 위치한 리얼 라이프 미니스트리스(Real Life Ministries)의 설립자이자 담임목사인, 짐 푸트먼(Jim Putman)은 우리에게 사람들을 무장(equipping)시키는 리더가 되는 원리를 말해준다.

#### 제자훈련의 자리가 좋은 출발점 가까운 관계 사람들부터 나누기

완벽해 보이려는 리더십의 함정

가르치는 리더의 약점은 자신이 가르치는 입장에서 항상 완벽한 사람으로 보이려고 하는데 있다. 가르치는 리더에게 있어서 항상 완벽한 사람으로 보일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은 의외로 매우 힘든 과정이다.

'리더는 본이 돼야 한다'는 말을 자신이 완벽한 리더가 돼야 한다, 또는 적어도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보여야

한다는 의미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제로 리더의 개인 인격, 가정생활, 정책결정 등 모든 영역이 완벽할 수는 없다.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 완벽한 사람으로 보이려고 할 때는, 그 모습을 유지하느라 자신이 아닌 모습을 겉으로 보여주려고 큰 에너지를 쓰게 된다. 그러다가 한번 좌절감은 둘째치더라도, 그동안 그의 가상의 이미지에 기대온 구성원들에게도 큰 충격을 주게 된다.

(3면으로 계속)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p>준학사 / 학사 석사 박사 수료증</p> <p>성서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목회학과(M.Div), 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목회학과(D.Min), 교회음악학박사(DCM-온캠퍼스) 가정상담 사역자, 유아교육 교사/원장</p>	<p>ATS 정회원</p> <p>월드미선대학교 온라인 프로그램</p> <p>www.wmu.edu</p>
--	---

월드미선대학교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admissions@wmu.edu, 213) 388-1000

**할렐루야 백화점**

성경 / 기독교서적 / 일반서적 / 베스트셀러 / 성구 / 성화 액자 / 기온 / 교회용품 / 영문성경 / 영문기독서적

**교회 · 사업체 · 달력 · 기념패전문**

뉴욕 Tel. (718) 762-0011 40-21 159th St. #1B Flushing, NY 11358

뉴저지 Tel. (201) 346-0030 5 Binkenhoff Terrace Palisades Park, NY 07650

핸드폰 347-952-5442 1-800-404-1171 E-mail: qospelmail@hotmail.com



시론 김홍운 목사



2면 중세교회 1000년 조진모 목사



7면 청교도신앙 이윤석 목사



8면 16면 독/자/간/중 박병택 장로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의 새로운 물결

#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학위과정:**  
 성경사역학철학박사 PhD / 목회학박사 DMin / 교육목회학박사 DEdMin / 목회학석사 MDiv  
 선교목회학 DMin in Missions  
 설교목회학 DMin in Expository Preaching

미남침례교단 6대 신학대학원 | 탁월한 교수진 | 저렴한 등록금 | 한국부 517명 재학 | HLC & ATS 정식인가 | 상시입학 | 100% 한국어 강의 | I-20 발행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한국부 사무실  
 최새롬 사모 816-414-3754; ks@mbts.edu; www.mbts.edu

#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1981년 출생자들에 주목하라

## 뉴스위크, 세대 구분 모호한 밀레니엄 첫 세대들의 정체성과 소속감 불투명성 지적

1981년생 중에 자신이 밀레니엄 세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음을 다잡는 게 좋겠다. 어쩌면 변호사에게 전화를 해야 할지도 모른다. 퓨리서치센터(이하 퓨)가 최근 1981-1996년 태어난 사람을 밀레니엄 세대로 정의했기 때문이다. 경제적 불확실성과 자기도취, 그리고 디지털에 능숙하고 아보카도 토스트를 좋아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세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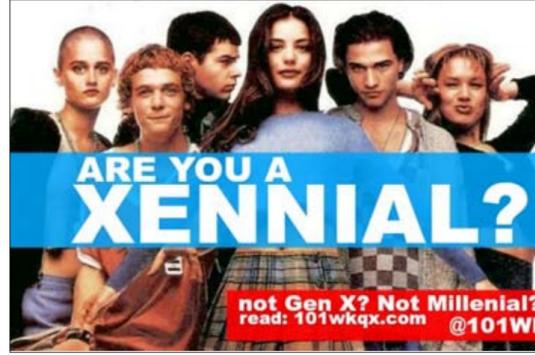
퓨의 기준으로 보면 1980년생은 X세대에 속한다. 너바나의 라이브 공연을 직접 보거나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빌 클린턴에게 투표했을

정도로 나이가 들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이들은 또 닷컴 거품이 꺼지기 전에 직장에 들어가기도 않았으며 X세대의 대표적인 10대 영화 '조찬 클럽'(1985)이 나왔을 때 아직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다.

따라서 뉴스위크는 밀레니엄 세대로 분류되지만, 너무 나이 든(?) 1981년 출생자들이 겪는 정체성과 소속감 혼란을 진단해준다(THE OLDEST MILLENNIALS WERE BORN IN 1981. ARE THEY EVEN REALLY MILLENNIALS?).

세대 구분은 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많다. '베이비 붐 세대는 인구학적으로 시작점과 끝나는 지점이 상제하고 명확한 유일한 세대'라고 퓨의 마이클 디록 사장이 말했다. 과거 일부 인구통계학자는 밀레니엄 세대(혹은 Y세대)가 1980년생부터 시작된다고 정의한다. 하지만 1983년생부터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었다.

1987년 '밀레니엄 세대'라는 용어를 만들어낸 윌리엄 스트라우스와 닐 하우 같은 학자들은 이



년 이후 출생자'와 '나이 든 밀레니엄 세대(Old Millennials, 1989년 이전 출생자)를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겔은 나이 든 밀레니엄 세대는 금융위기와 스마트폰이 보편화되기 이전에 성인이 됐기 때문에 젊은 밀레니엄 세대와는 사뭇 다른 삶을 살았다고 설명했다.

1980년대 출생자 대다수가 밀레니엄 세대로 불리는 걸 싫어하는 이유도 인스타그램이라는 필터를 거치지 않고 세상을 알게 됐

## 1981-1996년 밀레니어들... 정치·경제적으로 공감, 문화적으로 격리 경제적 불확실성, 자기도취, 디지털에 능숙, 아보카도 토스트 선호

세대가 1982년생부터 시작된다고 봤다. 미국에서 2000년대 들어 고등학교를 졸업한 첫 번째 인구이며 대학 재학 중 페이스북을 이용한 가장 나이 든 세대라는 점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지난 3월 초 퓨가 이런 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나섰다. "1981-1996년 태어난 사람이 밀레니엄 세대"라고 퓨는 발표했다. "1997년 이후 출생한 사람은 새로운 세대의 일원이 될 것이다." 그 새로운 세대는 흔히 Z세대로 불리지만 퓨는 공식적인 이름을 붙이지 않기로 했다. "이것이 이리라고 말한다(밀레니엄 세대라는 말도 요즘은 자주 쓰이지만 201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그렇게 보편적으로 사용되진 않았다).

어쨌든 밀레니엄 세대의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은 매우 혼란스럽다. "퓨의 발표가 나왔을 때 기분이 이상했다"고 레베카 파머는 말했다(파머는 퓨의 기준으로 볼 때 밀레니엄 세대 중 가장 나이 든 축인 1981년생으로 올해 37세다). "난 1981년 1월생이다. 그러니까 3주일 차이로 밀레니엄 세대가 될 셈이다. 이상한 일이다. 나보다 한 달 먼저 태어난 친구는 X세대로 불린다는 말 아닌가? 우리 두 사람이 기본적으로 똑같은 시기에 성장했는데도 말이다." 뉴스위크가 1981년생 10여 명

과 인터뷰한 결과 그들은 20대와 문화적으로 격리됐다고 느낄 때가 많고 밀레니엄 세대로 분류되는 데 대해 양면적인 반응을 보였다. 나이가 36-37세인 이들은 자신이 두 세계 사이에 불안정하게 걸쳐 있다고 생각한다. (페이스북 등장 이전의 초기)인터넷과 함께 성장했을 정도로 젊지만 자녀를 키우며 40대를 준비할 만큼 나이가 들었다. 인터넷 밈에 익숙하지만 환머리가 갈수록 늘어간다.

일각에선 이들을 '제니얼 세대(Xennials, X세대와 밀레니엄 세대의 중간 세대)'라고 부른다. 이들은 자신이 가장 나이 든 밀레니엄 세대, 혹은 가장 젊은 X세대라고 답한다. 하지만 대다수가 둘 중 어느 쪽에도 소속감을 느끼지 못한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대 초기에 태어나 9·11 사태 직후에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다.

"난 36년 동안 살면서 X세대, Y세대, 밀레니엄 세대, 제니얼 세대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다"고 작가 패트릭 힌은 말했다.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 문화와 테크놀로지 체험이 밀레니엄 세대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그는 성인이 될 때까지 휴대전화 없었고 CD를 바인더에 꽂아 보관했으며 친구와 약속을 잡을 때 집 전화를 이용했다.

문화적 기준이 세대 내 균열을 드러내주는 경우가 많다. 역시 1981년생인 도노번 앳킨슨은 최근 한 직장동료에게 '월 앤 그레이스'(1998년 시작해 2006년 종영됐다)가 지난해 다시 방영을 시작한 드라마를 다시 보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동료의 '월 앤 그레이스'가 뭐냐고 물어 깜짝 놀랐다. 그 드라마가 처음 방영됐을 때 그녀의 나이는 겨우 아홉 살이었다. "난 이제 40이 다 돼간다"고 앳킨슨은 말했다. "밀레니엄 세대의 견해와 인터넷 밈 대다수가 나나 내 또래 친구들 에겐 와 닿지 않는다."

이런 세대 내 격차를 해결하는 방법은 밀레니엄 세대를 두 부류로 나누는 것이다. 잡지 뉴욕의 기고자인 제시 싱겔(1983년생)은 지난해 에세이에서 '젊은 밀레니엄 세대(Young Millennials, 1989

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언론에서 밀레니엄 세대를 흔히 스냅샷에 중독된 특수계층으로 묘사하는 것도 이 용어를 경멸적으로 느껴지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다.

하지만 디록 사장은 "모든 세대가 상당히 폭넓은 경험 범위를 아우른다"며 "많은 사람이 자신에게 붙여지는 '00세대'라는 딱지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세대 간 경계에 있는 사람일수록 그런 경향이 두드러진다. 난 아주 이른 X세대에 속하는데 1990년대엔 X세대를 음악에 빠진 게으름뱅이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럴 때마다 난 '저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 자신이 그런 이미지는 어울리지 않는 구세대로 느껴졌다."

(3면으로 계속)



### 시론

## 왜 싸우나요?



김경운 목사 (백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

"세상에 있는 인생에게 전쟁이 있지 않나?"는 욕의 말처럼 세상은 싸움이 항상 있습니다. 나라와 기업에 학원과 가정에 전쟁이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여러분 가운데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라고 하므로 교회에도 싸움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에도 싸움이 있었다는 점을 알려 주는 말씀입니다. 이번 달은 야고보 사도께서 당시 섬기던 교회의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한 말씀에서 싸우는 원인을 찾아 우리 삶에 적용하기 원합니다.

먼저 싸우는 원인(이유)은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은 이에 대하여 "여러분 가운데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속에서 싸우는 쾌락에 대한 욕망 때문이 아닙니까?"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였지만 그들 간에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 때문에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누가는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그 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와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지므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였다"라고 썼습니다. 받은 것에 감사하고 또 더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지 않았더라면 그들 간에 다툼은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회 어른들의 싸움을 풍자한 만화 중에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친구들과 뒷마당에서 놀다가 장난감을 서로 가지려고 싸우는 딸에게 사이좋게 나누어 가지고 싸우지 말아야 한다고 타이르자 딸이 "Daddy, we are just playing church"(아빠 우리들은 그냥 교회 놀이하고 있는 거예요)라고 대답하는 내용입니다. "비료는 뿌리면 많은 열매를 만들어 내지만 썩어두면 악취를 풍기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지 않으면 또한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면 썩는 냄새가 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도 더 가지려는 욕심 때문에 교회에서 싸우는 어른들은 아닌지 생각해 봅시다.

다음은 더 즐기려는 욕심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2-4절은 이에 대하여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쾌락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간음하는 사람도,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누구든지 세상의 빛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한평생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라고 많은 것을 주셨는데 주신 것을 정성적으로 쓰지 않고 더 많은 쾌락을 즐기려고 선을 넘다보니 관계된 사람들 간에 싸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쾌락을 추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들 안에서 질투하시니 하나님과도 전쟁하게 되는 것이지요. 식욕 성욕 물욕 명예욕을 절제하지 않으면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래 말씀은 깊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꿀을 구하면 적당히 먹어야. 너무 많이 먹으면 토하게 된다. 꿀을 너무 많이 먹어도 이롭지 못한 것처럼 자신의 명예만을 추구하는 것도 이롭지 못하다"(잠25:16, 27).

마지막으로 더 높이 지려는 욕심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은 이에 대하여 "더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쓰여 있습니다. 교회 안팎에서 일어나는 싸움의 또 다른 원인은 서로 높아지려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2차 선교여행을 떠나기 전 마가를 데리고 가는 일을 놓고 서로 심하게 싸우고 헤어졌습니다. 서로 자기주장을 앞세우고 내 생각이 더 옳다고 주장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분명 나중에 크게 후회하였을 것입니다. 빌립보교회에는 유오디아와 순두게라는 두 여성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아서 바울은 감옥에서 교회에 편지할 때에 그들에게 사이좋게 지내라고 썼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빌립보 교회에 기둥 같은 일꾼들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생기는 싸움들의 중심에는 대부분 중직자들과 목회자들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마땅히 낮아져야 함에도 높아지려 하므로 서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도 선교도 봉사도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오늘도 그분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크리스천신문에 교회가 싸우는 기사는 실리지 않게 되기를 기도해드립니다.

pwkim529@gmail.com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www.rptseast.org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 학교안내

본 신학교는 미주에서 가장 큰 한인 장로교 교단이며 북미주 보수 장로교 및 개혁교회 협의회(North American Presbyterian and Reformed Council)의 정회원인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 신학교로 성경 영감과 절대 권위를 신조로 삼고 개혁주의 신학훈련을 통하여 복음적 목회자를 양성하는 정통적 보수 신학교입니다. 역사적인 21세기를 맞이하여 개혁운동을 통하여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고자 하는 사명감에 불타는 신실한 일꾼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 특전

- 국내외 저명한 교수진 확보
- 성적우수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특히 목회자, 선교사적 사명감이 투철한 자에게는 선별 심사후 장학금을 지급함)
- 6만여권의 한글, 영문 신학장서를 소장한 도서관이 있음
- 목회학 석사 졸업자는 총회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음
- 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여전도사는 본 교단 산하와 그의 기관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음

### 학과

대학부	신학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선교학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대학원	목회학석사	3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기독교교육학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선교학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여교역학과		3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 문의처

Admission Office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463-7163

#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장 장영춘 박사

# 미국인 56% '성경적 하나님' 믿는다

(1면에서 계속)  
 거의 90% 이상이 하나님의 사랑, 무소부재, 전지전능하심을 믿는다. 그러나 카톨릭이나 주류교단들은 60% 정도에서 멈추고 있다.  
 복음주의자들과 흑인 교회 간에도 차이를 보이는 결과가 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많이 관련, 간섭을 하신다는 점이다. 흑인 교회 98%가 하나님이 자신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고, 96%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조절, 조절한다고 믿고 있다. 그리고 이 두 그룹만-다른 그룹들은 약간 정도가 믿고 있지만-과반수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믿고 있었다.  
 교회에서 남자보다 여자가 많은 것처럼, 여자가 남자에 비해 성경 속 하나님을 더 믿는다. 남자에 비해 11%나 높은 61%가 성경적 하나님을 믿

고 있다.  
 퓨리서치는 "남성들에 비해 여성들이 하나님께서 삶에 간섭하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이끌어 가신다고 믿는다. 10명 중 8명이 하나님이 자신들의 삶속에서 소소한 영역에서부터 큰일들에 이르기까지 마치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지휘자처럼 이끄신다"라고 설명해준다.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도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도 달라진다.  
 보수적인 공화당 정치 색깔에 젖은 사람들 중 70%가 성경적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리고 민주당 성향은 45%에 멈추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속성을 묻는 설문에서도 공화당이 67% 민주당이 49%로 사랑, 무소부재, 전지전능을 받아들이

다. 그런데 공화당원들은 하나님을 심판자로 보는 성향이 높다. 민주당원 51%, 미국인들 평균 61%가 죄와 선에 따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보지만, 공화당은 75%가 그렇게 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하신다."  
 사회학자들은 이러한 공화당 성향의 미국인들의 하나님 이해가-바로 더 권위주의적이고 활동적인 하나님 이미지가 곧바로 보수적인 정치 성향과 연관되기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분석한다. 권위주의적으로 세상에 관련을 맺는 하나님이 두말 할 것도 없는 잘못, 불법, 죄에 따라 심판을 하신다고 보는 것이다.  
 결국 보수적인 시각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사람은 도덕적 기반에서 행동들을 통해, 제한해야 한다고 보지만, 세상과 멀리 떨어져서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인간 행동들이 느슨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보게 된다.  
 인용 역시 정치적 성향과 함께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를 결정 짓고 있다. 흑인, 히스패닉, 백인이 아닌 민주당원들이 백인 민주당원들보다 공화당이 믿는 하나님과 근접해 있기 때문이다. 백인이 아닌 민주당원들 61%가 백인 민주당원들 31%보다 성경 속 하나님을 믿고 있다.  
 결론으로, 미국인들 거의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번 설문을 통해 드러났다. 그러나 과연 성경적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말할 수 없다.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내가 믿는 하나님 이미지가 무엇인지에 따라 개인의 삶에서부터 사회적 결과들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성경적 하나님을 믿는 미국인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일에 더욱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야 할 때다.

# 소망 칼럼

##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라



박재호 목사 (브라질 새소망교회)

이 세상에 겸손한 사람보다 힘이 강한 사람이 없다고 했다. 사람은 무엇이든 많이 가지면 교만해진다. 가령 학식이 많든지, 돈이 많든지, 권력이 많으면 교만해지고 또 나아가 많아도 교만해 지기 쉽다. 그런데 버는 익을수록 머리를 숙인다. 따라서 우리는 성도들은 나이를 먹을수록 더욱 온유하고 겸손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

을 수 있다.  
 잠언 16:18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다. 교만하면 반드시 멸망한다는 것이다. 독일 격언에 "산꼭대기는 구름에 쌓여 벼락을 먼저 맞는다"고 하였다. 성도는 언제나 마음을 낮추고 겸손해야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성도의 겸손한 삶을 요구하신다. 잠언 11:2에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고 하였다. 겸손하면 지혜를 얻고 성공한다. 영국의 격언에 "지혜로운 자는 귀가 길고 혀가 짧다"고 하였다. 교만한 자는 말을 많이 하되 겸손한 자는 듣기를 많이 하고 말은 적게 한다. 교만한 자는 남의 말을 많이 하고 다른 사람의 흠을 까발리지만 겸손한 사람은 남의 흠을 덮어준다.  
 어느 음악회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날 오케스트라를 지휘하기로 된 가난한 음악가는 새 예복을 장만할 여유가 없어 전부터 입어오던 낡은 예복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만 지휘 도중에 그 낡은 예복이 찢어지고 말았다. 연주를 할 때는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지휘자는 한 곡이 끝나자 낡아서 찢어진 예복을 벗어치려 했다. 와이셔츠 차림으로 지휘하는 그를 향하여 사람들은 깔깔거리며 조롱하고 수군거렸다. 그러나 그는 열심히 지휘하였다. 이때 맨 앞에 함께 앉아있던 어느 신사가 조용히 자기가 입고 있던 겹옷을 벗음으로써 지휘자처럼 와이셔츠 차림이 되었다. 그것을 보고 있던 사람들은 비웃는 웃음을 멈추고 하나 둘, 전부 웃음을 보였다. 그 결과 그날의 연주는 그 어떤 연주회보다 매우 감격스러웠고 성공적이었다.  
 남의 흠을 조용히 덮어주는 모습이 인간의 행위 중에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모른다. 그런데 우리는 혹 이웃의 실수나 아픔을 보며 아무렇지 않게 비웃거나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비방하며 조롱하지는 않는가? 그보다는 이웃의 아픔을 감싸주며 진실로 함께 아파해주는 마음을 가지고 신사의 도를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바란다. 인간이 가장 범하기 쉬운 죄가 교만이다. 인간의 시조인 아담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으로 인하여 에덴에서 추방되었고 천사도 교만하여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다가 사탄이 되었다. 사울왕도 교만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교회 앞에 겸손한 자, 사람 앞에 겸손한 자, 말씀 앞에 겸손한 자 되어 복을 받고 성공하기 바란다.  
 물은 낮은 곳으로 모인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겸손한 자에게 임한다. 브하그완은 "진정으로 용기 있는 사람만이 겸손할 수 있다.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를 세우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톨스토이는 "겸손한 사람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호감을 산다"고 하였다. 무디는 "믿음은 최대의 것을 얻으며 사랑은 최대의 역사를 하고, 겸손은 가장 많은 것을 보존한다"고 했다.  
 nammicj@hanmail.net

# 약한 것 나눔으로 영적 무장에 이른다!

(1면에서 계속)  
 리더가 답을 제시해주는 사람, 모든 것을 알고 항상 정돈된 삶을 사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모습은 역효과가 있다. 따르는 사람들도 자신이 완벽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공동체는 완벽한 사람을 요구하는 공동체라는 인식이 연연중에 퍼져나간다. 그래서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이 다시 '완벽한 사람'과 어울릴만한 상태로 회복될 때까지 모임에 나오고 싶지 않게 된다. 특히 자신의 양심의 소리에 민감한 사람이 더더욱 그렇다. 이 부자유는 역설적으로 걸음으로 완벽한 척 하는데 익숙한 사람들만이 살아남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이것은 한 사람에게 삶의 문제가 생겨 기도와 격려와 도움이 가장 필요한 상태에서, 오히려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자리에 나아오지 못하게 막는 상황이 되고 만다. 전혀 의도치 않았지만, 완벽주의의 본을 보여주려 하는 리더는 구성원들에게 "다른 사람과 분투나 상처를 나누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가르친 셈이 된다.  
 심지어 잘못된 본을 본 사람들은

자신은 그런 모습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을 섬기고 봉사할 수도 없고, 다른 이들을 인도 할 수도 없다고 말하게 된다. 자신에게는 자격이 없다고 말하게 될 수 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역으로 완벽한 사람의 존재를 말하는 모습들을 보고 교회가 위선자들의 공동체라고 말하게 된다.  
 리더는 자신이 직접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돌보는, '목양을 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세워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돌볼 수 있게 하는, '목양의 환경을 만드는' 사람도 되어야 한다. 리더도 때론 돌봄 받을 수 있게 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고, 이를 위해 자신의 약점도 때론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무장하기 위해 약점을 드러내라  
 완벽한 모습을 본으로 보이려는 것을 멈춰야 한다면, 어떤 본을 보여야 할까? 실수를 하지만 여전히 신실하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가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본이 되어야 한다. 넘어져도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



#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1981년 출생자들에게 주목하라

(2면에서 계속)  
 어떻게 1981년을 밀레니엄 세대의 시작점으로 선택했느냐는 질문에 디목 사장은 놀란 기색을 보이며 "퓨에서는 이 세대의 끝을 어느 시점으로 할 것인가를 훨씬 더 많이 논의했다"고 말했다. "사실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 와서 보면 1980년과 1981년, 1982년의 차이점을 구분하기는 매우 어렵다."  
 하지만 1981년을 시작점으로 정한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디목 사장에 따르면 1980년 이후 태어난 미국 인에겐 2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다. 이 특징은 퓨가 11년 전 발표한 밀레니엄 세대에 대한 첫 번째 보고서에 드러나 있다. 이들은 인터넷과 초기 소셜미디어와 함께 성년이 된 첫 번째 세대다. "테크놀로지 분야와 사람들의 교류하는 방식에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던 게 분명했다"고 디목 사장은 말했다. 또 2004년 미국 대

통령 선거와 2006년 중간선거에서 밀레니엄 세대 유권자는 이전의 젊은 유권자보다 상당히 진보적인 성향을 나타냈다.  
 "다양성(동성 결혼과 젠더 문제 등)과 관련된 많은 사안에서 이전 세대와 큰 견해차가 있다"고 디목 사장은 말했다. "당시 20대 후반을 포함한 젊은이들 사이에서 관용적인 사고방식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1981년생은 정치·경제적으로 밀레니엄 세대에 가깝다. 뉴스위크가 인터뷰한 36세의 미국인 다수가 고용 축소에 대한 우려와 자본주의에 대한

한편 덜 더 젊은 밀레니엄 세대의 사고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또 이 세대는 대체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에 반대한다.  
 문화적으로는 좀 더 복잡하다. 젊은 밀레니엄 세대와 나이 든 밀레니엄 세대 간의 미묘한 균열이 관계 정립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36세인 퓨는 "22세인 내 여자친구가 나와 같은 세대라고 생각하니 일단 안심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그녀와 나는 같은 세대가 아닌 게 분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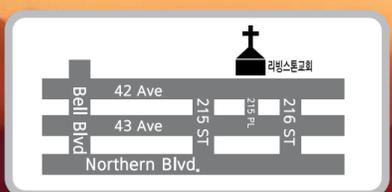
## Living Stone Church

# 리빙스톤교회 이전 감사예배

리빙스톤교회(대한예수교장로회)가 코로나(Corona)지역에서 베이사이드(Bayside) 지역으로 예배당을 이전하고 아래와 같이 감사예배를 드리게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여러분을 정중히 초청합니다.

---

장소 : 리빙스톤교회(Living Stone Church)  
 일시 : 2018년 5월 20일(주일) 오후 5시 30분  
 주소 : 215-29 42 Ave, Bayside, NY 11361  
 전화 : (718)961-2171, (917)862-0523




## 리빙스톤교회

담임 유상열 목사와 교우일동

\* 화환은 사절합니다

# 목양칼럼

**한평우 목사**  
(로마한인교회)



## 욕망을 제어하는 자는 안전하다-키케로

어떤 대상을 좋아하게 될 때 그를 미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로마인 이야기를 쓴 시오미 나나미는 시이저를 존경하다 못해 그를 숭배하고 있다. 시이저는 분명 영웅의 반열에 오를 사람이란 점은 두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수많은 전쟁에서 결코 패한 경우가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나폴레옹은 평생 그를 존경했고 닮고 싶어 했다고 한다.

그러나 어느 사가는 시이저는 수많은 고을족의 피를 담보로 영웅의 칭호를 받았다고 한다. 그가 얼마나 잔인하게 고을족들을 대했는지 무려 백만 명 이상을 살해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담보로 영웅이란 칭호를 얻었고, 그 칭호를 얻기까지 그가 죽인 자들의 피가 갈을 이루었을 것이다. 그런 자를 영웅으로 높이니 역사의 아이러니이지 싶다.

그런데 동 시대 활동했던 정치가요, 철학자가 바로 로마의 공화주의자 키케로(Cicero, 106-43BC).

그에 대하여 사람들의 평판은 극명하게 갈린다.

로마사 연구로 유명한 독일의 몸젠은 그를 별 볼일 없는 사람으로 여겼고, 몽테뉴도 그를 평가 절하했다. 그럼에 비해 어거스틴이나 에라스무스는 그를 탁월한 자로 인정했다. 한 사람을 두고 이처럼 평가가 극명하게 갈린다는 것은 그만큼 개성이 대단한 인물이기 때문이지 싶다. 이 시대 학계는 그를 인정하는 추세라고 한다.

그는 철학적인 삶을 정치적인 삶보다 하수로 여겼다. 키케로는 그리스의 철학자들, 예로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모방에 불과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자신은 로마의 정치체에 있으면서 철학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철학적인 학문을 정치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헌신했다. 그는 재산 자연법, 도덕적 평등, 애국심, 공화주의 같은 핵심 개념들은 근대 정치 사상가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그는 로마에서 100Km 떨어진 프로시노네(Frosinone) 근교의 작은 산동네인 아르피노(Arpino)의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다. 작은 산동네 귀족이라야 별 볼일 없었지만 말이다. 사람들은 흔히 도시의 크고 작음을 판단하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위인이 태어나느냐로 구분될 수 있다. 로마에서 멀지 않는 곳에 작은 마을이 있는데 그곳에서 교황이 태어났다고 자부심이 대단하다. 어떤 위인이 태어났느냐? 로 마을의 무게감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 싶다.

그의 아버지는 키케로를 동생 퀸투스과 함께 법률 공부를 시키기 위해 로마로 보냈다. 그리고 공부 마친 후에도 아테네로 보냈고, 키케로는 소아시아의 로도스에서 스토이철학자의 강의를 들었고 저명한 수사학자 몰론(Molon)에게서 웅변술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당시 로마 귀족의 자제들이 밟았던 코스를 밟은 셈이다.

그는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관료가 되었고 차근차근 올라가 BC 63년에 집정관이 되었다. 그 당시 중앙귀족이 아닌 시골 출신이 집정관이 되는 일은 아주 드물었다. 그는 집정관으로 있을 때 반란을 도모한 카틸리나와 동료 다섯 명을 재판할 거치지 않고 사형에 처했다. 그 문제가 늘 그를 괴롭히는 사건으로 평생 따라다니게 되었다. 인생은 이렇게 절차를 무시하고 처리한 사건으로 평생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 그 일로 클로디우스 법에 의해 로마에서 추방을 당하기도 했다. 곧 로마로 돌아올 수 있었지만 말이다.

그는 그 후, 정치적으로 입지가 좁아지게 되었다. 카이사르, 폼페

우스, 크라수스가 삼두정치를 시작하였는데, 그는 폼페우스 편에 섰기 때문이다. 이런 일은 21세기에도 비슷하다. 별 볼일 없던 사람이 선거운동에 줄을 잘 섰다가 한 자리 하는 경우가 얼마나 흔한가! 카이사르가 삼두정치에서 승리를 거둬에 따라 그의 영향력은 사라지게 되었다.

키케로는 60년대 말, 시이저는 자신들의 정치동맹에 참가하라고 권했지만 키케로는 이런 동맹이야말로 위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제의를 거절했다. 또한 기원전 59년에 갈리아 원정을 앞두고 시이저가 자신의 참모로 일해 달라고 했지만 역시 거절했다. 그의 요구를 들었더라면 아마도 그의 미래는 활짝 열렸을 텐데 말이다.

돌이켜 보면 그런 정황에 있다면 내가 할일이 여기까지구나! 이제부터는 내 철학적 양심을 좇아 여생을 살아야겠다. 하고 여기저기 매입해둔 별장을 옮겨다니며 스토아적 글을 썼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다. 그러나 한번 정치에 발을 담그면 쉽게 발을 빼지 못하는 속성이 있는가 보다.

키케로는 기원전 44년에 시이저가 살해당한 후 정치적 복귀를 꾀했으나 원대로 되지 않았다. 그는 시이저가 원로원에서 암살당할 때 로마에 없었고 또한 음모에 가담하지도 않았지만 심정적으로는 동정했다. 그는 철저한 공화주의자였는데 시이저가 종신 독재관이 되었고, 그는 전통적인 공화제를 말살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는 시이저가 살해당한 후 후계자로 부상한 옥타비아누스를 최대한 이용하려고 했고 그를 과소 평가했다. 산전수전을 다 겪은 그

가 볼 때 옥타비아누스는 스무 살도 안된 애송이로 보였기 때문이었다. 그는 젊은이에게는 칭찬과 명예를 주어야 하고, 그런 다음 제거해야 한다는 말을 했는데 옥타비아누스는 이 말을 전혀 들었다. 그러나 신중했던 옥타비아누스가 키케로를 어떻게 대했을지 싶다.

당시 그는 정치적으로 수많은 경협을 한 노련한 늙은이였다. 그는 철학은 영혼의 치료사이며, 격정거리를 없애고, 욕망으로부터 해방시키며 두려움을 쫓아버린다고 했다. 그는 더 나아가서 도덕이나 윤리에 대해 많이 강조하기도 했다. 그런 그가 아이러니하게 정치적 탐욕을 절제하지 못했고, 많은 재산을 형성했으니 주변 사람들이 그를 좋지 않게 여겼을 것은 당연하다 싶다. 그는 당시 여러 지역에 대단한 별장을 10여 채 이상 소유하고 있었다. 집 한두 채만 있으면 족할 수 있고 자책해야 하는 스토아 철학자이었던 때문이다.

로마의 집정관 출신 상원의원들 중에는 황제에 버금가는 화려하고 거대한 별장을 소유했다가 역적으로 몰려 몰수당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는 제 2차 삼두정치를 합당한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 레피두스는 키케로가 많은 재산을 부정 축재했다는 이유로 처벌 대상으로 정했다. 키케로는 그 소식을 듣고 쩍싸게 로마 남쪽으로 도망가던 중 12월 7일 포르미아(Formia)에서 안토니우스가 보낸 자객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 그때 그의 나이는 63살이었다.

포르미아 동네 한편에 키케로의 무덤이 있고 입장권을 사야 들어갈 수 있다. 높이가 6m나 되는 거대한 무덤이다. 그의 머리와 두 손

은 로마의 포룸에 있는 연설자들의 연단인 로스트라에 전시되었었다.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사람들을 충성모략하고 공격했던 바로 그 자리에 그의 신체 일부가 전시되었으니 이 얼마나 역사적 아이러니인가!

그 많은 학식과 웅변의 놀라운 재능으로 상대방을 공격하고 그의 치부를 들어내어 사람들을 열광하게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로 인해 박수를 받고 카타르시스가 될 수는 있었겠으나 언젠가는 자신도 당할 수 있다는 점을 그는 왜 몰랐을까?

끝으로 그는 이상국가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체제의 안정이라고 보았다. 안정되지 못한 국가란 늘 불안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다. 고로 지도자는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국가의 안정을 도모하는 일을 우선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는 철학자인 대화문을 썼는데 이 저서들은 그리스 철학이나 헬레니즘 철학 연구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중요한 자료로 간주된다. 그가 없다면 헬레니즘 철학에 접근하는 중요한 통로를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는 우리에게 공화주의의 중요한 이론을 제공하고 있고 철학의 기능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적용되고 반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단초를 제공한 정치가요, 철학자이다. 그리고 요즘은 그 가치가 점점 상승하고 있는 인문학이란 말을 맨 처음 사용한 사람이다. 그가 말한 명구를 하나를 생각해 본다. "명예를 가변적 여기라고 쓰는 사람도 자기 이름을 그 책에 쓴다."

chiesadiroma@daum.net

# 푸/른/초/장

**정필도 목사**  
(수영교교회 원로)



어느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부자요, 교회에 현금도 많이 하고 부흥회를 하면 부흥강사를 잘 대접하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부흥회를 인도한 후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분은 자신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제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고백했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일을 잘하니까 장로 직분을 받았지만 사실은 믿음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참 양심적인 분입니다. 그 고백을 듣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

다. 그런데 목회자 중에도 사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대로 믿지 않습니

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친히만 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마음대로 가감하여 가르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직분자요, 목회자요, 신학박사 중에도 성경대로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무엇에 보고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는 다른 기준은 없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것이 믿음의 증거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훌륭했습니다. 그들은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두 번 금식하고 울분을 잃고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십일조헌금을 철저히 드렸고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

와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고 율법과 모든 채소의 십일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한 주 전에 행하신 것과 말씀하신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요한복음에 절반에 가까운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열 명의 나병환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던 중에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돌고 예수님의 발아래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서는 "열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 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는나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눅 17:17-18)"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믿음과 사랑

(요한복음 12:1-11)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내가 얼마나 감사하는가를 보면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믿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환난 중에도 감사하는 사람, 고난이 있어도 감사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기쁨에 은혜에 감사할 줄 모릅니다. 교만한 사람은 어디를 가든 대접 받으려고 합니다. 대접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은혜에 보답할 줄 모릅니다.

아스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스르 군대를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큰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죽을병에 걸렸습니

다. 이에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사 38:1)"라고 말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울며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

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3백 데나리온이나 하는 값비싼 향유였습니다.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니 1년을 일해야 살 수 있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가진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리아의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의 믿음이 컸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믿음만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보면 믿음의 분량이 얼마나 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재산은 물론이요 목숨까지도 바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사

람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합니다. 돈을 더 사랑합니다. 가룟유다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가룟유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마련하는 일을 했습니다. 제자들 중에서 돈 계산이 가장 빨랐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를 믿었고 그래서 그에게 돈 관리를 맡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실 도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속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나"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요 12:6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 켜를 말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가룟유다는 불쌍한 사람이었

습니다.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 것을 본 가룟유다는 마리아에게 "이 향유를 어찌하여 삼백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요12:5)고 말씀하셨습니다.

향유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사용할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한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리아는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자신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것을 귀하게 여겨주신 예수님을 감사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유다는 예수님께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가룟유다는 이 향유를 어찌하여 삼백 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요12:5)라고 말하며 마리아를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가난한 자를 생각하여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는 돈의

노예가 되어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기쁘게 했지만 가룟유다로부터 비난을 들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어느 혼자사시는 권사님이 가서 도우미로 일하시며 번 돈 1천만원을 성전 건축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부자 성도들이 권사님을 비난했습니다. "저 늙은이가 자기도 먹을 것이 없으면서 1천만원을 헌금할? 제정신이 아니네"라며 권사님을 비난했습니다. 언제나 두 종류의 사람들은 공존하는 것입니다.

본문 12:7-8에 보면 예수님께서서는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마리아가 하는 일을 말리지 말고 가만히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9-11절에 보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함이라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 하니 나사로대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이렇게 악해졌을까요? 회개할 기회가 왔을 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

입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을 때에 겸손히 무릎 꿇고 회개했다면 이렇게 악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더욱 악해져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아 죽게 했습니다.

(5면으로 계속)

하나님이 주신 두려움

자녀가 아버지 어머니를 두려워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두려움이라는 본능을 주셨는데, 자식이 부모를 두렵게 여기지 않으면 인생은 많은 좋은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마땅히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는 분별력은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이미 영적으로 타락되었을 뿐 아니라 세상의 삶에서도 안타까운 인생을 살게 될 따름이다.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높은 다리에 올라가서, 예를 들어 저 워싱턴브리지에서 뛰어내려 볼까하는 두려움 없음을 결코 담대함이 아닐 것이

안 될 것이다. 때와 장소를 구별하는 분별력이라는 기본기를 상실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부모가 될 사람을 만나는데, 처녀가 민소매 옷에 슬리퍼를 직접 끌고 나타나서 다리를 췌 채 발가락을 달고라거리며 면접을 본다고 하면, 그런 이에게는 절대로 아들을 주어서는 안 될 것이다. 아들 코피 터지며 사는 인생을 허용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제한속도를 넘어서 차를 몰아 가다가, 이렇게 운전하면 죽을까 두려운 마음에 속도를 줄이게 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다. 두려움 자체가 틀린 게 아니라 그것을 긍정적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귀한 것임을 알게 된다. 지옥에 갈까봐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얼마나 복된 것인가? 하나님 안 믿으

지만 그 마음은 안타깝고 부끄럽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해주었다. 그러나 신문기사의 내용만을 본다면,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랑스럽고 축하할 일 정도로 소개되는 것 같아서 마음 한구석이 굉장히 불편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일부 목회자들이나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 정도가 무슨 문제가 되는가? 하는 말들과 자식이 결혼할 때 동성을 데려오지 않음만으로도 감사할 시대가 곧 올텐데 라는 탄식이었다. 과연 그런 시대가 올 것인가?

지킬 것은 지키는 분별력 성경은 지킬 것을 분명히 순종과 복종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지키지

실존이라고 했다. 인간이 살아있고 존재한다는 것은 불안이며 그 불안을 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높은 곳에 올려놓으면 두려워 떠는 것이다. 높은 곳에 올라가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훈련이 되어서가 아니라 너무 무지해서 그런 것이다. 아무리 익숙한 듯 하여도 두려워할 줄 알 때에 그 생명이 보전되는 것이다. 특히, 죄에 대해서 두려워할 줄 알고, 지옥에 대해서 두려워 할 줄 알고,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한 후에 이런 본능까지도 변형이 되어버렸다.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해야 하는데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에 빠져있는 인생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처럼 하나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간사 제자들과교회)

겁 없는 세상, 영적 어두움과 타락

-마땅히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는 은혜-

다. 거기서는 당연히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는데, 이것을 모르면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어찌 보면 영적 어두움이고, 사탄의 세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참 감사할 일이다. 세상을 겁 없이 막 사는 세대들이 있다. 극도의 이기적 개인주의가 판을 치고 있다. 세상에 아무 것도 무서울 것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하물며 웃을 입는 것에서부터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아주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아무런 두려움이 없이 살아가는 이들이 많다. 웃을 입어도 온갖 곳에 찢어진 채로, 땀에는 흥한 그림을 그리고, 상대방의 관점은 상관없이 자기가 좋으면 다 좋은 것이라고 여기듯 자유분방함을 가진다. 영적 타락의 분명한 현상임을 부인할 수 없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시대

나는 담대하다.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면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영적으로 어둡다는 말이다. 가끔 보면 무식한 사람이 용감하다고 하지 않는가? 그런데 그게 아주 그 사람의 캐릭터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이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시작하려면 두렵고 땀을 쥐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까짓 것 뭐 틀리면 어때 다시 하면 되지' 하고서 방종을 무한자위로 착각하고 산다면, 그것은 인생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바보 같고 너무나 무지한 일을 만드는 방언이 되고 말 것이다.

많이 헛갈리게 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최근 어느 성도가 신문을 보다가 질문을 했다. 예전에 한국에 축구 국가 대표팀 감독이었던 C 감독에 대한 내용이다. 이분이 나름 그 감독의 신앙심을 존경했다고 한다. 그 많은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서도 기도하며 경기를 시작하는 그 모습에, 역시 지킬 것은 지킬 줄 아는 그 모습에 감동을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 그분이 영화배우 며느리를 보게 된 모양이다. 그런데 그 며느리가 신문인터뷰를 하는데, 결혼식도 올리기 전에 임신 몇 개월이라는 말과 그 아들의 사진에 비춰진 몸의 마귀형상의 문신들과 그 며느리를 향해 축복하는 감독이 자기 신앙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과연 그런가 해서 찾아보니 내용이 그대로였다. 참 모를 일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존경받는 크리스천 지도자들의 가정도 자녀문제만큼은 어찌지 못하는가? 하는 생각을 했다. 더불어 그분의 신앙을 생각할 때,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

못하면 두려워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지킬 것을 지키지 못하므로 두려워하고 떠는 그 자체는 아직도 신앙심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도, 하나님의 것을 지키지 않아도 아무렇지 않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그의 영적인 타락을 설명한다 하겠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 중의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예 저 사람은 무대에 설 때 마다 떠는지 모르겠어! 바보 같아. 그러나 쉽게 말할 것이 못된다. 큰 무대에 서는 것이 두려운 것 인줄 알기 때문에, 이 두려움 때문에 사전에 준비를 더 하고 나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결과가 어찌되던 상관없다. 괜찮다. 틀려도 어쩔 건데. 죽일 거야 살릴 거야.' 만약 이와 같이 반응하는 삶이라면 그 인생은 정말 무지 속에 필히 후회하는 인생이 되고 말 것이다.

목사로서 강단에 대한 두려움,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의 그 두려움, 그것은 참으로 귀한 복이 된다. 그러나 목사에게 이것이 익숙한 일이 되어지고, 성도들은 너무나 프랜들리한 생각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경외감을 가지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 너무 가까워져서 친밀하다 못해 격의와 예의가 함께 사라져버린 채, 마치 함께 커피마시고 온라인 채팅하는 친구 같은 존재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 결과는 어떠한 것인가? 필히 그 생각들이 영혼의 타락을 가속화시키며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심판에 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두려움

인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를 경배하며 섬긴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복된 백성을 삼으시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기독교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는 불안이 곧 인간의

분별력과 기본기를 잊어버림

어떤 청춘 남녀가 선을 보게 되었다. 두 사람 모두 이 시간이 편하지 않고 조심스럽다. 내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상대방에게 내 첫 인상이 어떻게 남을까? 그들은 그렇게 두려워할 줄 알기에 옷매무새도 멋있게, 어떻게 하면 그에게 인정받을까? 하고 조심하며 만남을 시작하게 된다. 오늘 날 부끄러울 것도 두려울 것도 없는 막가파 청춘들 세대에서는 참으로 귀한 것이라 여겨진다. 자매의 경우, 헤어스타일도 고쳐보고, 화장도 고쳐보고, 웃도 예쁜 것으로 입고 나가고 그렇게 하는 것은 결코 구닥다리 세대의 바보스러움이 아니라, 그 자체가 참 귀하고 멋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결혼할 어떤 남자가 양가에 첫 인사를 간다고 하자. 처가 될 곳에 인사를 가는 데, 사위될 친구가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너무나 자유스러운 모습으로 찢어진 청바지에 슬리퍼를 끌고 프렌들리하게 방문한다면서 여자 친구의 부모님을 방문한다면 절대로 딸을 주어서는

것보다 더하리라(눅15:7)고 말씀하셨습니. 회개하기만 하면,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잃는 것이 다 회복됩니다.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는 아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것이 다 회복되었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겼습니다.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고 잔치했습니다. 회개하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아무리 죄가 많아도 회개하면 용서받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많아도 진정으로 회개하며 용서를 빌고 회개한다면 버림받지 않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요즘 목회가 매우 힘들어서 그런지 교회들도 힘들고 신학교에는 목회자 지망생도 많이 줄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장차 하나님의 종인 목회자가 되어 존경받는 실력있고 덕망이 있는 설교자와 교회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요? -오렌지카운터 Lee

A: 사명자의 길을 가고자 하는 형제를 격려하고 싶고 그 마음에 성령님의 기쁨부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어에 What I will be, I am now becoming이란 말이 있습니다. 미래에 무엇이 되기를 원한다면 지금부터 되어가는 것이다' 즉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일의 존경받는 리더가 되려면 오늘 배우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만일 당신이 하루아침에 황제를 하려고 한다면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장기간에 걸쳐서 매일 무엇을 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성공여부는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The secret of our success is found in our daily agenda). 리더십은 복합적입니다. 그것은 존경, 경험, 강한 정신력, 인간관계

소명과 비전, 열정만으론 안돼... 매일 배움과 내공 쌓아야

능력, 자기절제, 지식, 추진력, 타이밍 등 무엇이 다양한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유능한 리더가 되려면 오랜 경륜이 필요한 것이 그 때문입니다. 리더십은 매일 매일 개발하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개발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의 말처럼 "인생에서 성공하는 비결은 자신에게 기회가 올 때를 대비해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존 맥스웰이 쓴 "리더십의 21가지 법칙"이란 책을 보면 전설적인 농구선수 래리 버드(Larry Bird)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매일 학교에 가기 전에 500개의 슛을 연습함으로 그는 자유투가 뛰어난 선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데모스 테네스(Demosthenes, BC 384-322)는 자갈을 입에 물고 시를 암송하고 해변에서 커다란 파도소리 속에서 연설하면서 당대 최고의 위대한 웅변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언어장애를 갖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해냈습니다. 마찬가지로입니다. 위대한 리더가 되려면 당신도 헌신해야 합니다. '챔피언은 링에서 태어나지 않는다. 단지 링에서 인정받을 뿐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만일 당신이 챔피언이 만들어지는 장소를 보고 싶으면 그의 하루하루 일과를 살펴보세요. 과거 세계 헤비급 챔피언이었던 조 프레이저(Joe Frazi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링에서의 싸움이건 아니면 인생에서의 싸움이건 계획을 세우는 것은 좋다. 그러나 실제로 싸움이 벌어지면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계획이 아니라 반사적인 움직임이다. 매일 새벽 로드워크를 얼마나 성실하게 했는가 드러나는 것이다. 만일 이른 아침 어두움 속에서 땀을 부리고 연습하지 않았다면 밝은 시각의 링 아래서 속을 드러내고 값을 치를 것이다."

권투는 리더십의 개발과 좋은 비유가 됩니다. 하루하루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비록 어떤 사람이 타고난 소질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공하려면 준비와 훈련은 필수적입니다. 소명과 비전과 열정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평소에 실력을 쌓는 내공을 쌓으라는 말입니다. 많이 배우고 겸손한 인격을 쌓고 좋은 지도자 밑에서 훈련을 잘 받으십시오.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Table with subscription rates for 1 year: USA \$100, Canada \$110, Korea/East Asia \$190, Europe \$190, N. America \$190, Africa \$190.

Subscription form fields including name, address, phone, and payment details.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ny@chpress.net

신청일자: 20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L.A: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la@chpress.net

N.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인도의 하라우티(HARAUTI)



인도는 인종적, 언어적, 종교적, 사회적 여러 집단들이 복합적으로 모인 하나의 모자이크와 같다. 이러한 다양성 때문에, 어떤 하나의 민족 집단을 충분히 설명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로 중국 다음 순위를 차지하는 인도의 인구는 9억3천5백만 이상이다. 전체적인 인구 밀집도는 1평방마일당 762명이다. 히말라야, 북부 강변 평야 지역, 대간 고원, 동서부 가츠 산맥 등 인도는 네 개의 주요 지역으로 나뉠 수 있다. 다양한 지리적 특성 때문에 기후조건 또한 계절과 지역에 따라 열대기후에서 온난기후까지 매우 다양하다. 55만8백 명의 하라우티인들은 주로 라자스탄의 코타 지방과 마드야 프라데시 주에 살고 있다. 그들의 언어는 인도-아리안 어군에 속한다. 하라우티인들의 구체적인 생활양식에 대해 알려진 바는 거의 없다.

삶의 모습

인도 인구의 73%가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한다. 많은

사람들은 가가스로 생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수확하는 농부들이다. 그들의 농토는 아주 작은 데다 조각진 땅이 많다. 가축 특히 뿔이 있는 가축, 소, 말, 노새 등을 키우는 것은 그들 농업경제의 주요한 특징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힌두교의 영향으로 이러한 동물들은 고기로 먹기보다는 대부분 단지 집을 나르는 짐승들일 뿐이다. 인도 문화는 기본적으로 힌두교 중심적이다. 많은 힌두교 기관들은, 엄격한 카스트 제도를 포함해 세속적인 인도 사회에도 폭넓은 영향력을 지닌다. "카스트(caste)"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종족, 씨족, 동족을 의미한다. 인도 사회는 일반적으로 동족결혼 즉, 같은 카스트 안에서만 결혼을 하는 위계적인 카스트로 나뉘어져 있다. 카스트는 직업이나 친족관계와 혈통에 의해 정의될 수 있으나, 약간의 예외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스트는 사회 조직에서 가장 기본

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부 부족 사회를 제외하고는 모든 부분에서 적용되고 있다. 하라우티인들을 정확하게 카스트 제도 안에서 이해하기에는 그들에 대해 알려진 바가 충분하지 않다. 그러므로 그들의 독특한 생활양식과 문화를 적절히 설명할 수는 없다. 많은 하라우티인들이 라자스탄 주에 살고 있다. 사회의 중요한 부분으로 "라즈푸트(rajput, 인도 귀족)가 존재한다. 군주와 토후 국왕 시대에, 라즈푸트 귀족들이 수세기 동안 라자스탄의 정세를 지배했다. 라자스탄은 또한 인도에서 두 번째로 큰 지정카스트(불가촉천민, scheduled) 부족인 브릴족들의 고향이기도 한다.

신앙

하라우티인들의 다수(84.5%)는 힌두교도들이다. 이슬람교도들은 10.5%이며, 자이나교도(힌두교의

한 분파)들이 3%이다. 기독교인들은 1% 미만이다.

하라우티 힌두교도들은 기본적인 힌두교의 관습과 전통을 따른다. "힌두교"라는 말은 서기 1200년경쯤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힌두교도들이 믿는 바를 분명하게 확정짓기란 어렵다. 힌두교에는 창시자도, 선지자도, 교리 체계도 없다. 힌두교는 종교체계라기보다는 하나의 생활양식이며, 종교 이상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다. 서양에서 갖고 있는 신앙과는 달리, 힌두교는 고대의 고정된 어떤 신앙의 흐름이 아니다. 오히려 수백 년 동안의 주요한 변화를 지나는 관습과 실행, 신앙의 혼합체다. 힌두교도들의 주류들은 최상의 신적 존재는 믿는다. 어떤 힌두교도들은 모든 생명을 존중하며 야채만을 먹는 반면, 다른 힌두교도들은 신전에서 제사 드려진 고기를 기꺼이 먹는다. 어떤 힌두교도들에게는 그들의 종교가 매우 개

인적인 것이고, 또 다른 힌두교도들에게는 개인적이지 않은 객관적인 것이 된다. 대부분의 힌두교도들이 "브라만"(Brahman, 창조자), "시바"(Shiva, 파괴자), "비슈누"(Vishnu, 보존자), 여신 "샤크트리"(Shakti)를 숭배하는 반면, 그들은 또한 덜 중요한 신들의 만신전, 그들의 화신, 배우자, 소산을 숭배한다. 율법에 대한 믿음은 힌두교에서 한결 같이 믿는 특징 중의 하나다.

필요로 하는 것들

신약성경이 하라우티인들의 언어로 되어있으며, 그들 가운데 소수의 믿는 자들도 있다. 이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들의 생활에 격려가 되고 심화시킬 자료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라우티인들에게 계속해서 다가갈 개척 선교단체들의 사역이 필요하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르완다 정부, 예배당 안전 위험 내세워 교회 7700여곳 폐쇄

르완다 정부가 지난 2개월 동안 수도 키갈리의 교회 714곳을 포함, 전국 7700여개의 교회를 폐쇄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미국 크리스체리티투데이(CT)에 따르면 르완다 정부는 보건과 안전, 소음 규제 기준을 근거로 교회를 폐쇄하고 있다. CT는 "국회의원들이 늘어나고 있는 르완다가 교회를 규제할 새로운 법규 도입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3월 르완다 남부 나부구루 지역에서 교회 지붕에 벼락이 떨어져 예배를 드리던 성도 16명이 사망한 사고 이후 빠르게 확대됐다. 폴 카가메 대통령은 사고 직후 열린 회의에서 "르완다에 공장보다 교회가 더 많다. 이렇게 많은 교회가 필요하지 않다. 교회는 골칫덩이"라고 발언하면서 새 법안 제정에 불을 당겼다.

현행 르완다 민간단체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회 건축은 승인이나 허가 없이도 가능해 있다. CT는 "이번 조치로 규모가 작은 오순절 교파의 교회들이 가장 많이 폐쇄됐다"며 "급수시설, 화장실 등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집이나 천막으로 만들어진 구조물에 폐쇄가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도했다.

르완다 종교관리위원회는 "폐쇄된 교회의 상태는 교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이었다"며 "예배의 자유는 기준 미달의 건물에서 교인들이 예배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새 법안에는 '배관 및 주차시설 등 건축물에 대한 인증' '1년 주기의 인증 갱신' 등의 규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은 올해 안에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행 목회자들은 이 같은 정부 조치에 대해 찬반론이 팽팽하다. 가드프리 나군기라 키갈리 새생명성경교회 목사는 "기준에 미달하는 건물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의 안전이 염려된다"며 "교회는 법을 준수해야 하고 교회 지도자들의 불법적 관행이 교인들에게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정부의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문제이거나 키갈리 교회포럼 대표는 "정부의 결정이 사전 경고 없이 성급하게 내려졌다"며 "폐쇄 조치에 앞서 정부가 교회 지도자들과 협의를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변호사인 페이스 음바바지(성베드로교회)씨는 "도로도 없는 곳에 위치한 교회에 어떻게 주차공간을 요구할 수 있느냐"며 "새 법이 교회 개혁을 가로막고 열악한 환경에서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들의 사역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도모했다.

최근엔 정부 조치에 반대하는 목회자들이 시위를 조직하다가 경찰에 체포되면서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클로드 기하누카 키갈리 오메가교회 목사는 "강제 폐쇄 조치는 교회가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지적하는 것에 대한 탄압"이라며 "교인들에게 복음뿐 아니라 정부의 정책을 알리고 권장하는 교회의 역할을 간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 민주당도 트럼프 대북 외교 호평

한반도에 본격적인 대화 국면이 조성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 기조에 대해 야당인 민주당조차 긍정적인 평가를 내어놓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펼쳐온 거의 모든 정책이 민주당이 대립각을 세웠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현상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를 외교로 풀어나가는 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인정하면서 대화를 통한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기를 기대했다.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벤 카딘 의원은 30일 CNN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외교 행보에 고무됐다고 밝혔다.

카딘 의원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면담을 거론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이오 당시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북한에 보낸 것에 매우 고무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까지 대북 외교를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을 만하고, 만약 북한과의 협상이 성공한다면 업적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했다.

카딘 의원은 "우리는 하나의 팀 미국이다. 우리는 한 반도를 평온하게 진정시켜야 한다"면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비핵화를 해야 하지만, 지금 당장은 동결과 조사관의 (북한) 투입이 외교적으로 큰 승리"라고 주장했다.

이 밖에 그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한국 대통령이 올림피아를 이러한 (외교 협상)과정에서 시작되도록 하는데 훌륭한 점에 감사를 보낸다"고 호평했다.

대표적인 '반(反) 트럼프 정치인' 중 하나인 애덤 시프 하원의원도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과 공을 대체로 인정했다.

하원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시프 의원은 ABC 인터뷰에서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기로 한 것은 사실 대통령의 불가촉성교 호전성이 합쳐진 조합과 관계가 있다고 말하는 게 옳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면 노벨평화상을 받아야 한다는 평소 주장을 재확인하면서 "어떤 객관적 기준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해온 일은 역사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같은 당의 스티브 테일러 하원의원은 이날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때때로 비정통적인 방법을 썼지만 분명한 결과물을 낳았다"며 "지금까지 이런 진전에 매우 행복하다. 그의 공로는 인정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북미 정상회담 장소 판문점이 어떤가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월에 열릴 예정인 북·미 정상회담 장소로 판문점이 어떨까는 질문을 던져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트위터에 "(북·미) 회담과 관련해 여러 나라들이 고려되고 있다"면서 "그런데 남북한 경계에 있는 (판문점) 평화의집이나 자유의집이 제3국보다 더 대표성이 있고, 또 중요하고 오랫동안 기억되는 곳이 아니겠느냐"고 썼다. 그는 이어 "단지 어쩌냐고 물어보는 것(Just asking!)"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그는 지난 26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회담 장소가 두 개 나라까지 줄었다"고 말했다.

회담 장소와 관련해선 그동안 싱가포르와 스위스, 몽골, 미국령 괌, 스웨덴 등이 거론돼 왔다. 이 가운데 미국은 싱가포르를, 북한은 몽골을 선호한다는 얘기가 있었다.

하지만 외교가에서는 극적 효과를 키우려면 남북 단단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회담을 열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화해 무드와 관련해 노벨 평화상 수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회담을 더욱 극적으로 개최하려 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92년 '남북기본합의서' 꺼내든 불턴

미국의 외교 사령탑들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비핵화'를 비롯한 구체적 대화 조건들을 제시하며 북한을 압박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9일 미 CBS방송에 출연해 "북한은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핵무기와 무조건적 핵포기를 약속했다"며 "지난 역사를 돌이켜보는 것

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남북기본합의서를 준용할 수 있고, 북한이 말이 아닌 실천을 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또 "92년 합의서의 비핵화 대상은 남과 북이지 미국은 결부되지 않는다"고 지적해 미국이 한국에 제공한 핵우산 등은 대상이 아님을 강조했다.

볼턴은 또 북한의 핵 폐기가 '선(先) 폐기, 후(後) 보상'의 리비아 방식을 따라야 하고, 핵무기를 포기하는 전략적인 결정을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만 그는 핵시설 규모 등 리비아와 북한의 상황이 다르다는 점도 강조해 리비아식 해법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변용 가능성도 내비쳤다.

그는 이어 "지금(핵무기뿐 아니라) 탄도미사일과 생화학무기, 선량한 한국인과 일본인 납치 등 따져봐야 할 이슈가 더 있다"면서 이들 문제를 의제화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아울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마음속 최우선 순위에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3명이 있다"며 미국인 석방을 강력히 촉구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미 ABC방송에 출연해 "김 위원장을 만났을 때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종식을 협상할 수 있는 '진짜 기회'를 봤다"며 "김 위원장은 큰 결정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북·미 두 지도자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며 그들이 방 안에 함께 있게 됐을 때 방향을 정하고 계획을 만들고 각각의 팀에 지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가장 좋은 결과는 두 지도자가 완전한 비핵화에 도달할 것"이라고 합의하고, 각자의 팀에 그것을 실행하라고 승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인터뷰에서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임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은 30일 싱가포르로 출발했다. 싱가포르는 북·미 정상회담 개최 후보지 중 한 곳으로 거론되는 지역이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신(新)남방정책 이행을 위한 인사 교류 차원"이라며 북·미 회담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직원 '뇌파' 까지 분석하는 중국 기업

중국의 한 기업이 뇌파 측정기를 통해 사람들의 '머릿속'까지 통제하고 있다.



30일 사우스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에 따르면 통신장비 등을 생산하는 중국 기업인 항저우중형(杭州中恒)전기는 생산설비 노동자들에게 매우 작고 가벼운 무선 센서가 부착된 모자를 쓰고 일하게 한다.

이 센서는 노동자들의 뇌파를 실시간으로 측정해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컴퓨터로 보낸다. 이 컴퓨터는 뇌파를 분석해 노동자의 걱정, 불안, 분노 등 감정 변화를 읽을 수 있다. 이를 통해 회사는 생산 속도를 조절하고 공정을 개선해 전반적인 작업 효율을 높인다. 노동자들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휴식 시간의 빈도와 길이를 조절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뇌 감시' 연구는 서구 선진국에서도 이뤄지고 있지만, 실제 산업 현장에 전면적으로 적용된 것은 중국이 처음이다. 미국 등지에서는 양궁 등 스포츠 훈련에서 선수의 기량 향상에 쓰일 뿐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프로그램의 세부 사항을 밝히기는 거부하면서도 "그 효과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뇌 감시 시스템을 적용한 2014년 이후 이 회사의 순이익은 20억 위안(약 3400억원)가량 늘었다"고 말했다. 또 "처음에는 이러한 시스템에 대한 거부감이 컸지만, 이제는 모두 익숙해졌다"며 "이는 중국이 경쟁자들을 추월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각에선 전면적인 뇌 감시 시스템 적용이 초래할 '빅 브라더' 사회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도 나온다. 베이징사범대학의 차오젠 교수는 "이러한 기술은 기업이 노동자의 감정을 통제하고 사생활을 침해하는 데 쓰여 '작정 경찰'로 변질할 우려가 있다"며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유출도 나쁘지만, 이러한 뇌 감시 시스템은 사생활 침해를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오 교수는 "인간의 마음이 수의 창출에 함부로 쓰여서는 안 될 것"이라며 "뇌 감시 시스템을 제한할 법규를 마련하고, 이러한 시스템에 대한 노동자의 선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노벨문학상 '미투' 논란에 취소?

노벨상 가운데 문학상 수상자를 선정하는 스웨덴 한림원이 최근 발생한 미투(#MeToo) 논란 때문에 올해 문학상 시상식을 취소할 것으로 보인다.



1901년 노벨문학상 제정 이후 시상식이 취소된 경우는 2차 대전 때인 1943년 이후로는 처음이다.

대중 일간 가디언은 27일 한림원이 올해 노벨문학상 시상식을 취소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올해 시상식을 건너뛰게 되면 내년에도 두 명의 수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수상자를 선정하는 위원단을 이끄는 페르 바스트베르그(85)는 "지난 26일 열린 주간회의에서 올해 수상자를 정할 것인지에 대한 토의를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면서 "오는 3일 열리는 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해 설명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수상자 선정이 미뤄지면 내년에도 2명에게 노벨문학상을 수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논란은 지난해 11월 스웨덴 문화계의 거물인 프랑수아 출신 사진작가 장 클로드 아르노에게 여성 18명이 1996년부터 2017년까지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아르노는 한림원의 재정 지원을 받아 전시회나 공연을 여는 '문화 클럽'을 운영해 왔으며 그의 부인인 시인 카타리나 프로스텐손은 한림원 종신위원이다. 아르노가 1996년 이후 7차례나 노벨상 수상자 명단을 사전 유출했다는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다른 종신위원들은 프로스텐손을 해임할 것을 한림원에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종신위원들이 여기에 반발해 줄줄이 사퇴 의사를 밝혔고, 사라 다니우스(55) 한림원 사무총장이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는 의미에서 자리를 내려놓는 지경에 이르렀다.

미국인 66% "북미회담 지지"

미국 백악관은 25일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북한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최대의 압박 작전이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말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질 때까지 압박을 완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샌더스 대변인은 "그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샌더스 대변인은 전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열려 있고 훌륭하다(honorable)"고 칭찬한 것을 두고 보수층이 비난하자 적극 해명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 한 달간 진행된 북·미 간 대화와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 언급한 것"이라며 "김 위원장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평가는 달라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도 "미국의 정책은 달라지지 않았으며 북한이 취하는 조치마다 보상을 제공하는 데에도 관심이 없다"며 단계별 보상도 불가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किन저 전 장관은 지금도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나 외교정책을 건의할 만큼 현 정부 외교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 그가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 정부에 어떤 조언을 할지 관심을 끈다. किン저 전 장관은 지난해 미국과 중국이 북한 정권의 붕괴와 주한미군 철수를 맞바꾸는 '빅딜'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적도 있다.

정통성

동방교회를 정교회라 부르는 이유가 무엇일까? 정통성 때문이다. 정교회(正教會, Orthodox Church)는 정통성에 근거하여 세워진 교회란 의미이다. 또한 자신들이 그릇된 교리를 주장하는 사교(邪敎)와 구분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전해준 올바른 신앙과 초대교회가 보여준 성경적인 전통과 규범을 지키고 있다고 자부한다.

중세시대에 정통성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초대교회의 관계에서 교리적 정통성 주장하는 동방교회와 보편성을 강조하며 자신들의 정통성을 주장하는 서방교회 사이의 갈등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정통성은 반드시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정당성과 함께 주장되어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대단한 힘과 우렁찬 소리로 정통성을 외쳐도, 상대를 설득할 수 없다. 그러므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는 각각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다.

동방교회와 서방 교회는 언어, 문화, 전통, 지리적인 면에서 전혀 달랐다. 동방교회가 헬라어를, 서방교회는 라틴어를 사용하였다는 점을 생각할 때, 두 교회의 차이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차이로 인한 신학적 이견이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두 교회가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하였지만 중세시대의 그들의 강조점을 자세히 살펴보면 서로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동방교회는 사도 요한이 강조한 내용처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신비한 관계를 강조한다. 이러한 신앙적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묵상하는 신앙을 강조한다. 자연히 그들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지닌 신학적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된 것처럼, 사람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주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은 전통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인간이 되신다는 교리를 중시하였다. 인간이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다는 신비한 신학적 성향에 잘 어울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수도원 운동의 근본적인 뿌리였던 묵상과 기도를 강조하면서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을 강조하였다.

이에 반하여 서방교회는 사도 바울의 신학의 특징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지는 죄인과 하나님과의 법적 관계에 관심을 가져왔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려는 목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셨으며, 그가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새로운 관계가 형성된 사실을 강조한다. 이로서 그들은 성도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역이 어떠한가를 강조하였다.

특히 그들은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중보 사역을 강조하였으며, 이에 따라 성도는 이미 주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유지하는 것을 신앙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 여겼다.

이와 같이 동방교회와 서방 교회는 나름대로의 독특성을 지닌 정통성을 계승

하였다. 그들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문화의 차이가 엄청나듯이 그들의 신학적 정통성 역시 매우 달랐다. 문제는 상대가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상대를 수용하는 것은 곧 자신의 정통성을 포기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출하는 일이다. 다시 말해, 서로를 향해서 "너희는 교회가 아니다!" 라고 주장한 것이다.

만일 그들의 말이 모두 맞는 것이라면 지상에서 진정한 교회가 상실되는 역사적 비극이었을 것이다. 그들은 정통성에 대한 자부심에 근거한 힘의 대결로 인해

는 자들을 배려하여, 그림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설명할 것을 장려함으로써 교회 내에 자리를 잡았다. 그 후로 지속적으로 이미 성도들에게는 신앙의 성숙을 위하여, 불신자에게는 전도지와 같은 역할로 사용되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상 사용이 동서교회 분리에 영향을 주었을

필박으로 인하여 성도들은 지하묘지에서 지낼 수밖에 없던 환경 속에서 벽에 그리스도의 생애를 그려놓고 큰 힘을 얻으며 신앙심을 유지하였다.

동방교회를 중심으로 성화상이 많이 사용되었다. 그들에게 성화는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다. 그려진 그림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것들을 경험하였다. 성화상 자체를 숭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림에 그려진 대상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도구가 되었다.

성화상은 그들에게 하나님으로 인도하는 훌륭한 도구였다. 성화상은 개인을 위한 작은 것에 국한하지 않았다. 그들의 예배당은 비잔틴 미술의 극치를 보여준다. 모자이크를 이용한 것이 가장 대표적이다. 물론 그리스도가 그려진 그림 또는 조각은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 가치를 비교될 수 없다. 어느 정도의 유익을 줄 수는 있었지만 분명한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726년, 동방로마의 황제였던 레오 3세(Leo III, 685-741)가 성상파괴운동에 관한 칙령을 내렸다. 인간의 손에 의한 그림과 조각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완전하게 드러낼 수 없다며 성화상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성상 경배는 곧 우상 숭배라고 천명한 것이다. 그는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성화상을 파괴하는 대신, 십자가를 설치하였다. 이로 인하여 엄청난 성상화가 파괴되었다. 무엇을 말하는가? 성화상을 통해 신앙을 키워가던 성도들은 물론, 교회적으로 커다란 혼동이 찾아왔다.

395년 동서 로마가 분할된 뒤, 서방로마는 게르만족에 의해 476년에 멸망당했다. 동방 교회가 속하였던 동방 로마는 아직도 과거 로마의 전통을 지니고 있었다. 그 중에 하나가 황제 숭배였다. 로마인들은 정치적 장악을 위하여 로마 황제를 신의 지상 대리인으로 신성시 하고 식민지 시민들에게 그를 숭배하게 하였다. 황제 숭배에 익숙하던 그들에게, 사실 너무도 자연스럽게 성상화 숭배가 이뤄진 것이었다.

레오 3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오랜 역사를 걸쳐오면서 익숙해진 것을 단번에 중단하고 제거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대다수의 성직자와 신자들이 반대 입장을 표시하였다. 그 당시 교회의 일에 대하여 절대군주적인 힘을 발휘할 수 없었던 황제는 로마 교황과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 게르마누스에게 자신이 주도하고 있는 성상파괴 운동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며 도움을 청했다. 그들의 답은 기대와 달리 부정적이였다.

레오 3세는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730년에 전보다 더 강력한 칙령을 발표하였다. 또한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를 파문하고 자신의 뜻을 따르는 자였던 아나스타시우스를 그 자리에 앉혔다. 레오 3세가 사망한 뒤 아들 콘스탄티누스 5세가 정권을 물려받은 뒤, 성화상을 중심으로 두고 찬성과 반대하는 세력의 공방전이 벌어지자, 더욱 강력한 자세로 부친의 뜻을 이어갔다.

(10면으로 계속)

# 중세교회 1000년 - 어둠에 잠긴 구속역사의 현장(10)

조진모 목사  
(필라델비아한인연합교회)



## 동방교회(헬라어, 교리적)와 서방교회(라틴어, 보편성) 갈등 역사와 전통, 문화 차이만큼 신학적 정통성 차이 매우 커

### 상호 파문

1054년에 일어난 동서교회의 대분열(The Great Schism)의 원인은 매우 복잡한 것이었지만 결국 '힘의 대결'이란 구

념지 못할 선을 넘은 것이다. 교회가 힘을 키우더니 결국 크게 잘못 사용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에게 '상호 파문'까지 이르게 하였을까?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있다면 예배의 형태의 차이와 연

까?

### 성화상

성상은 동방교회에서 크게 발전하였다. 성상이 교회에 처음 나타난 것은 1세기였

## 성상 사용 갈등 제2차 니케야 종교회의에서 회복시켜 교회존재 이유 등 궁극적 가치 잃어버리고 '상호 파문'

도 속에서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 어떤 힘을 말하는가? 나는 옳고, 상대는 그르다는 확신이다.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이 지닌 정통성에 대한 신념이다.

동서교회가 영원히 갈라지는 모습을 보는 우리의 마음이 그리 편안하지 않다. '상호 파문'으로 종결되었기 때문이다. '상호 파문'이란,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서로를 향해서 "나는 옳고, 네가 문제!"라는 선언을 한 것이다. 참고로 파문(破門, excommunicate)이란, 교리적으로 중대한 죄를 지은 자를 교회 공동체로부터 축

관된 문제를 꼽을 수 있다.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예배의식 역시 서로 대조적이였다. 동방교회는 매우 복잡하며 동적이였다. 이에 반하여 서방교회는 간소하며 정적이였다. 동방교회는 교회가 속한 지역이 특수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나, 서방교회는 획일적인 예배의식을 구축하는 일에 힘을 쏟았다.

정작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를 갈라지게 한 중심 문제 중에 하나가 성상(聖像, icon) 사용이였다. 성상 사용은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틴 대제가 글을 읽지 못하

다. 초대교회가 핍박 속에서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 성도들 사이에 위안이 주는 성상을 사용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문장을 구성하는 각 단어의 첫 헬라 알파벳을 따서 만든 익스투스(XΘΥΣ, 물고기), 그리스도의 평안을 나타내는 비둘기,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공작 등이 있었다.

일반인에게는 그림에 불과한 것이었지만 성도들은 그 그림에 담겨진 뜻을 이해하고 비밀스럽게 위로를 받는 도구가 된 것이다. 나아가서 2-3세기에 대대적인



# 교회 이동 디스플레이 및 디자인 전문

카라반캐노피는 대형프린팅 분야에서 18년의 전문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안 수정, 로고 제작, 한글 캘리그래피 디자인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며 고성능 프린트 작업으로 최고의 만족도를 약속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모든 디스플레이 제작, 맞춤형 서비스

- ✓ 현수막 | 천막
- ✓ 접이식 배너 | 디스플레이
- ✓ 프로모션 상품
- ✓ 디자인서비스

**VINYL BANNERS**

2' X 5' with grommets : **\$25** Plus tax if applicable

4' X 5' with grommets : **\$50** Plus tax if applicable

**MESH/POLY FABRIC BANNERS**

2' X 5' with grommets : **\$35** Plus tax if applicable

4' X 5' with grommets : **\$70** Plus tax if applicable



플래그, X 배너 거치대, 롤업배너, 현수막, 벽걸이 포스터, 미디어벽



예수 안에서 열매 맺는 교회

성탄 축하예배 Merry Christmas

# 성경도 신앙(50) 국가, 정치, 교회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린 제일교회)

라) 현대에 이르는 '언덕 위의 도시' 이상향의 영향  
존 윈스롭은 첫 번째의 위대한 미국인으로 불리 어진다. 캠브리지 출신의 법률가로서 매사추세츠 만 식민지 총독을 지낸 그는 제 1세대 뉴잉글랜드 청교도들의 신적 정치적 이상을 가장 잘 대변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 매사추세츠 주 일대의 식민지를 건설하기 위해 조직된 매사추세츠만 회사가 그에게 식민지 경영의 중책을 맡기자 그는 안락한 영국의 삶을 포기하고 험한 신대륙에 건너 온 것이다.

17세기의 영국 종교개혁의 와중에서 칼빈주의자인 그는 뉴잉글랜드에 완성된 종교개혁의 빛을 전 세계에 비취줄 등대와 같은 '언덕 위의 도시'를 건설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로 하여금 온갖 역

흥을 위해 사용 받은 이가 미국 청교도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인 노스 햄프턴(North Hampton)의 조 나단 에드워즈(Jonathan Edwards, 1703-1758)이다.

에드워즈는 교회의 각성과 영적인 부흥을 통해 뉴잉글랜드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 하고 참된 회개와 영적인 열정과 올바른 삶으로 돌이키고 가정과 학교와 교회와 사회 등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거룩한 예외 기도로 새롭게 무장하도록 하는 일에 큰 역할을 감당했다. 기독교 역사는 그것을 뉴잉글랜드의 제1차 각성이라고 부른다. 이 부흥으로 당시의 뉴잉글랜드는 교회, 사회, 정치 전반이 새롭게 각성되어 다시 이전 시대의 거룩한 언덕 위의 도시를 세우고자 하는 청 교도 세대의 소망을 이루고자 하였다.

## 청교도들 신대륙 정착시 가졌던 목표와 이상은 존 윈스롭의 '언덕 위의 도시' 강력한 신앙, 성경적 설교, 교리적 토대가 오늘날도 분명하게 큰 영향 미쳐

경과 싸워 이기며 황무지를 개척하고 보스턴을 그 중심지로 키울 수 있게 한 것은 이곳을 인류의 모퉁이 되는 '언덕 위의 도시'로 만들겠다는 비전이 라고 되고 있다. 윈스롭이 대서양을 지나면서 쓴 일기에 "은 세계의 눈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해 버림을 받으면 우리는 모두에게 교훈이 될 것"이라고 적혀 있다.

미국 역사의 바닥에 깔려 있는 도덕적 비전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윈스롭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매사추세츠만 식민지가 건설된 직후인 1636년 세워진 하버드대학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청교도들이 자신들의 이상을 자책적으로 달성해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작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자신의 청교도 공동체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새로운 이스라엘로 파악했다. 언약 공동체로서의 교회이며 동시에 정치집단인 매사추세츠만 식민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께서 부여한 임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었다.

청교도들이 신대륙에 정착하면서 가졌던 그들의 목표와 이상은 한 마디로 이 '언덕 위의 도시'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세상의 영적, 도덕적인 빛이 되며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 복음이 증거하기를 꿈꾸었던 것이다. 그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도시를 세우고 학교를 세워 성경과 기도를 가르치고 교회에 교인들이 참된 거듭난 교인들이 되어 정치적, 사회적 변혁을 위해 쓰임받기를 바랐다.

청교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로마 가톨릭의 영적 음행과 사악함이 피지 않도록 힘썼다. 그런 청교도들의 도덕적, 윤리적 열정이 신대륙으로 들어오는 이민자들 속에는 신앙이 없는 자들이 많아지자 온갖 영적, 도덕적, 윤리적 퇴폐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후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다시 교회를 새롭게 각성시키며 거룩한 교회의 부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대선에서 승리한 후, "나는 존 윈스롭이 세운 민주정치의 원칙을 나의 정치철학으로 삼아왔으며 우리는 이제부터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며 부러워하는 '언덕 위의 도시'를 건설해야 합니다"라고 연설했을 정도이다. 모순된 것은 윈스롭의 철학을 지닌 케네디 대통령이 종교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학교에서의 신앙에 있어 필수적인 성경공부와 기도를 폐지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최근 정치인들까지도 윈스롭은 미국 정신의 아버지로 불리우고 있으며, 필그림 아버지의 아버지로 불리고 있다.

오늘날 미국의 정치와 교회도 언덕 위의 도시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한다. 청교도들은 결코 비현실적인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들의 강력한 신앙, 성경적 설교, 교리적 토대가 오늘날도 분명하게 그 놀랍고 큰 영향을 계속 미치고 있다.

### 3. 새로운 나라의 목표와 이상

플리머스의 분리주의자들의 관심은 윌리엄 브래드포드를 중심으로 이상적인 경향보다는 현실적인 문제에 있었다. 그들은 이민에 대한 구체적인 필연성이나 계획성이 없이 다만 고갈된 현실을 피하기 위해 영국을 떠나서 영국인들이 거주하는 버지니아로 향한 것이다. 그러나 도착한 곳이 매사추세츠였기 때문에 영국 정부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었으며, 인디언의 침입이나 동료 간에 일어날 수 있는 혼란을 제할 수 있는 정치 조직이 없었다.

1) 플리머스 비분리주의의 개인적 자유의 극대화  
가) 먼저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정치구조가 필요하였다  
그들은 백성을 잘 인도할 수 있는 통치자와 그

에 순복할 백성, 순간순간 일어날 수 있는 범죄율에 대해 억제할 수 있는 방법, 앞으로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자의 선출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한 후, 존 카버(John Carver)를 그들의 지사로 뽑고 메이플라워 계약(Mayflower Compact)을 맺음으로 스스로 정치적 집단화현상을 드러내었다. 이 모든 진행들은 정치에 대한 집단화를 위한 사전 계획이 없이 임기응변적으로 이루어졌다.

분리주의자들은 다음과 같이 서약하였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엄숙하게, 상호 합의 아래, 그리고 전에 말한 목적들을 잘 보존하고 지켜 나가기 위해 우리 자신을 상호간 행정 조직에 얽매기로 서약한다."

나) 경제와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 건설을 생각하고 있었다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경제적인 궁핍과 양심을 억압하는 것들, 정치적인 폭정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었다. 그들은 경제적인 궁핍과 개인의 양심이 구속받는 것이 싫었으므로 개인의 자유가 경시되거나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제로 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해, 무엇보다 먼저 시민의 기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이 플리머스 이민자들의 자유정신은 1636년부터 1671년 사이에 작성된 '일반적 원칙들(The General Fundamentals)'에 다음과 같이 표현되고 있다:  
"플리머스의 동료들인 우리는 모든 특권을 부

여받은 영국 정부의 자유민으로 법령을 선포하고 법규를 제정하며 설립하기 위해 여기에 모였다. 어떤 법령이나 부칙, 법 또는 규칙이 지금이나 장차 우리를 향해 제정되거나 부과될 수 없고, 자유민이나 동료들의 모임, 또는 그들의 법적인 대표들의 동의를 받아 제정되거나 부과된 것이다."

이와 같이 플리머스 정착민들은 구속이나 강요를 대항하는 자유민으로 스스로 간주하면서 개인주의적 플리머스 정신을 만들어 나아갔다.

다) 종교적 관용의 정신을 우선시하였다  
플리머스 분리주의자들에게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과 종교적 관용을 허용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였다. 그들은 영국에 있을 때 인간의 양심대로 예배할 수 있는 권리와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 교회 당국에 대항하여 싸웠던 사람들이 다.

분리주의 운동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로버트 브라운(Robert Browne)은 "종교를 강요하고, 힘에 의하여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것, 법과 벌금에 의해 교회 정치에 복종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것은 행정 관료나 교회 당국이 누릴 권세가 아니다"라고 주장하였다(Wilson). 그는 인간의 양심과 자유에 반하는 억압이나 강제는 폭력이라고 여겼다.

브라운의 종교적 자유사상은 플리머스 식민지의 기본정신이 되어 종교적인 박해를 받는 자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였다. 예를 들면 1635년 로저 윌리엄스(Roger Williams)가 영국 교회로부터 철저한 분리주의를 주장하다가 세일럼(Salem)에서 추방되었을 때, 플리머스 식민지가 그를 목사로 받아들였고, 주지사인 에드워드 윈슬로우(Edward Winslow)는 윌리엄스와 평생을 친구로 지내면서 종교적 자유를 옹호하였다.

younsuklee@hotmail.com

**건강 길라잡이**

**이영직 내과전문외**

**이영직 내과전문외**

### 취장염

#### 담석이나 과음 등이 원인

-은행에 근무하는 50대 중남 남성 박 씨는 아침 식사 후 심한 복통을 느끼기 시작했다. 잠시 후 통증과 함께 구토증을 느꼈고 속이 매스꺼워서 음식을 먹을 수 없었다. 처음에는 소화불량으로 생각하고 인근 약국에서 소화제를 사 먹었지만 통증은 전혀 가라앉지 않고 점점 더 심해졌다. 복통의 양상은 배꼽 주위를 마치 송곳으로 찌르는 듯 한 느낌이었고 대로는 통증이 등으로 움직이는 기분이었다. 통증이 너무나 심해서 인근 병원 응급실을 찾았을 때는 심한 통증으로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박 씨는 고혈압이나 당뇨병과 같은 만성 질병을 앓지도 않았고 수술을 받은 적도 없고 건강한 편이었다. 술이나 담배도 전혀 하지 않고 규칙적인 운동도 하고 주말에 골프도 치는 등 건강에 관심이 많은 편이었다. 검진상 박 씨의 혈압은 110/60mmHg이고 맥박은 분당 90회였다. 체온은 37.9도로 미열이 있었다. 복부 촉진상 심한 통증을 호소했고 반사통이나 복부 경직의 소견은 없었다. 혈액 검사상 취장염을 나타내는 효소의 수치가 아주 높게 나왔다. 응급실에서 실시한 복부 CT 검사상 취장염 소견이 보였고 담낭 내에서 돌이 발견되었다. 박 씨는 담석으로 인한 급성 취장염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에 들어갔다.

취장은 많은 소화효소를 분비하면서 음식을 소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 인슐린을 분비해서 우리 몸의 혈당치를 조절한다.

취장염은 급성 취장염과 만성 취장염으로 나뉘는데 급성 취장염의 대표적인 원인은 담석과 지나친 알코올 섭취다. 혈중 중성지방 수치가 아주 높은 경우도 취장염을 유발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약물이나 감염에 의해서도 취장염이 유발 될 수 있고 내시경으로 담관을 보기 위한 시술의 합병증으로도 취장염이 생길 수 있다. 급성 취장염의 치료는 입원치료가 원칙이다. 이때 일단 급식하면서 취장을 쉬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혈관으로 수액을 공급하면서 진통제로 통증을 진정시키는데 일단 심한 진통이 가라앉고 혈액 검사상 취장염이 호전되는 것이 보이면 물이나 부드러운 음식 위주로 식사를 시작한다.

취장염이 심한 경우는 초기에 중환자실 치료를 받아야 할 때도 있다. 담석으로 인한 취장염이 발생한 경우는 취장염이 재발할 우려가 30-50% 정도 되기 때문에 담석 제거술을 받는 것이 좋고 지나친 알코올 섭취로 인한 경우는 금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 동부(NY, NJ) 교회

<b>뉴욕부르클린제일교회</b> 담임목사: 이윤석 주일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45 새벽기도: 오전 08:45 성경공부: 오전 05:30 성경공부: 오전 10:00(화,토)	<b>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혜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2:00(영아) 수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b>뉴욕사백별장로교회</b> 담임목사: 정기태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30 주일3부예배: 오후 1:15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b>뉴욕새생명장로교회</b> 담임목사: 허윤준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b>뉴욕새사람교회</b>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1부예배: 오전 10:30 주일2부예배: 오전 10:45 수요일예배: 오후 8:00 수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b>뉴욕센터교회</b>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b>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b> 담임목사: 이만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시온예배: 오후 8: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b>뉴저지성도교회</b>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기도회: 오전 8:30 (매주1주, 3주)	<b>리빙스톤교회</b>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찬양예배: 오전 10:50 찬양예배: 오후 1:3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오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b>빛과소금교회</b> 담임목사: 정순원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후 1:5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매일 오전 6시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시 30분	<b>주미전교회</b> 담임목사: 이규분 주일1부예배: 오전 12:30 주일2부예배: 오전 6:00 금요찬양기도: 오후 5:00 영아예배: 오후 1:00	<b>퀸즈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12:15 수요일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b>퀸즈한인교회</b>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찬양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NCF영어: 오후 1:30	<b>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200 Fax. (718)886-0074
<h2>세계로 뻗어가는 교회</h2> <h1>하와이 및 북미 지역</h1>						



목회서신



이재근 목사 (주사랑선교교회 담임)

지옥의 7대 경이(驚異)

천국의 실재를 믿지 않는 자들도 있지만, 천국의 실재는 믿지만 지옥의 실재를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이 없음을 대한 반대로 지옥에 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렵고 무서운 메시지는 지옥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지옥은 가지 말아야 합니다.

1. 지옥은 분명히 존재한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다. 지옥이 무섭다고, 가지 싫다고, 지옥의 실재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지옥의 분명한 존재를 인정해야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지옥에 관한 실재의 근거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지옥이란 말이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이란 말을 만드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신약에 1만162회나 지옥에 대하여 언급되었고, 70회는 주님이 직접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마태복음에서 10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2. 지옥은 사탄을 위하여 예비된 곳이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옥을 예비하신 것이 아닙니다.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께 대적하여 반역하므로 쫓겨났을 때부터입니다. 그러므로

지옥은 원래 인간을 위해서가 아니라, 타락한 천사, 즉 사탄과 그를 추종하는 천사들을 위하여 만든 곳입니다. 인간이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범죄함으로 마귀를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3. 지옥은 무서운 곳이다. 지옥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입니다. 지옥은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곳입니다. 지옥은 영원토록 괴로움과 고통을 받는 곳입니다. 지옥은 죄값으로 영원한 처벌을 받는 곳입니다. 지옥은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는 곳입니다. 지옥에는 2가지 색이 있는데, 새빨간 유향 불꽃과 새까만 흑암같이 어두운 곳입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서운 곳입니다.

4. 지옥은 입구만 있고, 출구는 없다. 이 세상으로부터 도피는 죽음으로 가능하지만, 지옥에서의 출구는 없습니다. 어떤 이는 세상이 괴롭다고 자살하는 이가 있지만, 그것은 후라이팬이 뜨겁다고 영원한

불에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뼈뼉이 세상 감옥은 탈출할 수도 있지만, 지옥은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입구는 있지만 한번 들어가면 도망칠 수 있는 문도 없고 길도 없습니다.

5. 지옥에는 후회와 회개가 필요 없다. 지옥엔 2가지 후회의 말을 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때문에' 라는 책임전가성 후회입니다. 누가 나를 전도했으면 지옥에 오질 않았을 텐데, 전도해주지 않아서, 누구누구 때문에 여기 왔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결정'이라는 후회입니다. 전도할 때 예수를 잘 믿을걸, 거짓말하지 말걸, 죄짓지 말걸 등 뒤늦은 후회입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만 기회를 주면 예수도 잘 믿고 죄도 짓지 않겠다고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해도 지옥에선 소용이 없습니다.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 믿고 회개하고 죄 사함 받아야 합니다.

6.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다.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마7:13-14)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가는 쉽지만 지옥가는 너무 쉬워서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7. 지옥에 대하여 무감각, 무대책이다. 혹자들은 지옥에 대하여 농담 삼아 얘기하기를, "지옥은 가는 사람이 많아 만원이므로, 들어갈 자리가 없으므로, 천국갈 수밖에 없다"라든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실 이가 없고, 지옥을 만드셨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영원한 불못에 던지신단 말인가? 너무 잔인하기에 하나님이 그러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위험천만한 발상이고 착각이며, 지옥에 대한 무감각, 무대책입니다.

북한동족과 통일위한 탈북자 토크쇼

OC통곡기도대회... '북한 행보 경계' 의견모아

그날까지선교연합(국제대표 손인식 목사)이 주관한 북한동족과 통일을 위한 탈북자 토크쇼 OC통곡기도대회가 29일 오후 4시30분 베델한인교회(담임 김한요 목사)에서 열렸다.



북한동족과 통일을 위한 탈북자 토크쇼 OC통곡기도대회가 베델한인교회에서 열렸다. 사진은 이날 탈북자 토크쇼 모습

임창호 목사(고신대 부총장, 장대현 탈북자교회 담임) 사회로 시작된 토크쇼는 북한의 실상에 대해 알리고 북한의 행보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는 결론을 맺었다.

강철환 대표(북한전략연구소장)는 "북한은 김일성을 유일신으로 믿고 있는 사이비 봉건교주 국가이며 사람목숨에 대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곳"이라며 "지난 27일에 열린 남북회담에서 북한인권문제가 다루어지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 말했다.

강철호 목사(북미총회장/새터교회 담임)은 "남북한 간 정상회담이 전 세계에 이슈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감격해하기도 했다. 하지만 탈북자들 중 90% 정도는 기뻐하지 않고 있으며 회담에서 나온 내용에 대해 신뢰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소연 대표(북한 4군단 출신, 뉴코리아여성연합 대표)는 "북한에서 여성의 위치는 권력 밑에 희생되고 있는 위치"라 말하며 "탈북자들 중 70%가 여성들이다. 그들이 중국에서 인신매매를 당하며 성노예로 팔

려가고 있는데 정작 북한에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지 않고 있다"며 "북한이 인신매매 문제에 대한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은 이상 북한에 대해 신뢰를 접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토크쇼에서는 UN이 취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가 지속돼야 북한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으며 지난 두 번의 정상회담 후 북한의 태도를 볼 때 이번 정상회담 역시 북한의 변화에 대해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날 토크쇼 이후 베델연합성가대의 찬양이 있었으며 손인식 목사가 '용기중의 용기'(삼상17:45)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진 통곡기도회는 강철호 목

사 '북한의 우상독재와 인권탄압이 끝나게 하소서', '북한 지하성도들과 정치범 수용소에 갇힌 자들이 풀려나게 하소서', 임창호 목사가 '너무 늦기 전에 한국교회 성도들이 요나처럼 깨어나게 하소서', '한국교회와 해외교회들의 기도도 통일되게 하소서', 이은우 목사가 '세계 모든 나라가 일어나 한반도 통일을 돕게 하소서', '대한민국과 해외의 젊은이들이 통일을 누리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각각 기도회를 인도했다.

이날 모든 순서는 송정명 목사(월드미션대학교 총장)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연목회 회장 이취임 감사예배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앞줄 왼쪽에서 네번째가 신임회장 조종곤 목사)

연세목회자회 신임회장 조종곤 목사 이취임 감사예배, 수석부회장 신명균 목사

연세목회자회(회장 김기동 목사)는 이취임 감사예배를 사우스베이 선교교회(담임 조종곤 목사)에서 29일 오후 4시30분에 열었다. 사우스베이선교회 찬양단의 찬양인도로 시작된 이취임 감사예

배는 조후연 목사(부회장)가 기도했으며 김영숙 목사(부회장)가 성경봉독, 연세콰이어가 찬양하고 김정복 목사가 출애굽기 4장 1-8절을 본문으로 설교했다. 이어 김기동 목사(17대 회장)가

이임사를, 조종곤 목사(18대 회장)가 취임사를 했으며 조종곤 목사가 김기동 목사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그리고 도성환 회장(남가주연세대 총동문회)과 서니 박 회장(부여나팍 1지구 시의원 후보)이 축사했으며 권영대 목사(회계)가 축가를 불렀다.

이어 이정근 목사(미성대 명예총장)와 남상국 목사(OC목사회 회장/본회 부회장)가 격려사를 전했다. 조종곤 목사가 연목회 임원소개를 했다.

이날 예배는 한기형 목사(연목회 증경회장) 축도로 마쳤다. 다음은 연세목회자회 18대 임원 명단이다.

△회장: 조종곤 목사 △수석부회장: 신명균 목사 △부회장: 김기대 목사, 김영숙 목사, 남상국 목사, 박종대 목사, 조후연 목사, 차광일 목사 △총무: 정효남 목사 △서기·회계: 권영대 목사 △자문위원: 증경 회장단(1-17대).

(박준호 기자)



제12회 남가주한인연합감리교회 R2R 연합찬양축제가 하나님 나라 주제로 라팔마연합감리교회에서 열렸다

남가주한인연합감리교회 R2R 연합찬양축제 제12회... "하나님 나라" 주제로

제 12회 남가주 한인연합감리교회 R2R 연합찬양축제가 '하나님 나

라' 주제로 29일 오후 4시30분 라팔마연합감리교회(담임 김도민 목사)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가주태평양연회 한인연합감리교회 남산교회 연합회 주최로 열린 찬양축제는 김은아 사모(남가주주님의교회)의 찬양과 유열 권사(총남산교회 부회장/남가주 주님의교회) 기도로 시작됐으며, 나성금관 교회, 월서연합감리교회, 라팔마연합감리교회, 벨리연합감리교회, 남가주주님의교회, 드림교회 찬양팀들이 찬양이 있었다.

이날 말씀선포는 이태범 목사(라팔마연합감리교회)가 했으며 The Blue Sax Gospel 팀이 특별연주를 했다.

이날 찬양제는 김도민 목사 축도로 마쳤다.

(정리: 박준호 기자)



서울신학대학교 남가주총동문회 주최 장학금 모금 제1회 총장배 골프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서울신학대학교 남가주총동문회 주최 장학금 모금 제1회 총장배 골프대회

서울신학대학교 남가주총동문회(회장 송중복 목사) 주최 장학금 모금 제 1회 총장배 골프대회가 미주성경교회 총회 기간(4월 16-20일) 중인 19일 오전 8시 LA 북쪽 파코 이마 시에 위치한 한센덤 골프코스에서 진행됐다.

동문들과 교단 후원 목사 장로 그룹 등 30여명이 한자리에 어울린 토너먼트 결과 최우수상에 나성성

결교회 안민구 장로가 수상했다. 준우승은 송 풀 목사, 그리고 3위는 뉴욕성경교회 김창완 장로가 차지했으며 근접상에 2명, 장타상에 3명이 수상했다.

금번행사에서 LA 시장 커미셔너였던 구 황민수 장로 기념장학금으로 정그레이스 집사가 조의금을 장학금으로 기증한 감사장을 받았다. 또한 서울신학대학교 노세영 총

장에게 모금된 장학금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번 대회는 감리교에서 목회한 동문 김민희 원로목사와 아버지가 동문인 안민구 장로, 이경호 목사 등이 참여했다.

(기사제공: 서울신학대학교 남가주총동문회)

월드미션대 비영리단체 사역 수료증 과정 개설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송정명 박사)가 미주와 한국을 통틀어 최초로 비영리단체 사역 수료증 과정을 개설했다.

본 수료증 과정은 세계 어느 곳에서나 수강이 가능한 온라인 강의로 이뤄지는 총 40시간의 이 수료증 과정(총 5과목)은 총 10주 과정으로 여름학기에는 오는 6월 11일부터 8월 5일까지 열린다.

최근 선교학의 화두인 '선교적교회 차원에서 NGO/NPO 사역'을 전반적으로 다루게 될 이 수료증 과정은 △비영리단체 사역의 선교적 이해와 실천(1학점) △모금 및 캠페인(1학점) △비영리단체 운영 및 홍보 마케팅(1학점) △국제개발사업

(ODA)에 대한 이해와 실천/국제기구와 글로벌 NGO의 개요와 펀드(1학점) △기회의 사회공헌 및 비영리

리단체의 연계(1학점) 등 모두 5학점 과정이다.

강사진은 임진기 교수(휴먼앤유먼 인터내셔널 사무총장), 이준우 교수(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민아 교수(컴패션코리아, Marketing and Engagement Impact 차장), 민준호 교수(대한적십자사 대외협력실 팀장), 임진호 교수(한국기술교육대학교 개도국 기술이전연구소 연구부장), 김도영 교수(한국비영리학회 이사/승실사 이버대 외래교수) 등이다.

여름학기 접수마감은 오는 6월 1일(금)이며 등록금은 학점당 250달러다.

문의: (213)388-1000, admissions@wmu.edu. (기사제공: 월드미션대학교)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추진 요구

한미연합회, 성공적인 남북정상회담 축하에 이어

한미연합회(KAC 사무국장 방준영)는 지난 4월 27일 비무장지대(DMZ)의 남북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성공적으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축하 및 트럼프 대통령의 후속적인 한반도 평화 추진을 요구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방 위원이 남북 관계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정상 회담은 11년 만에 이루어진 두 나라 지도자 사이에 첫 만남을 의미하며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분할된 한반도에서 전쟁을 끝내고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자는 역사적인 약속을 만들어 냈다. 방준영 사무국장은 "우리는 국

가의 지도자들이 고립과 전쟁보다는 대화와 평화를 추구하는 이 순간에 희망과 영감을 찾을 수 있다. 대담한 발걸음을 내딛고 한국역사의 새로운 장을 만든 남북 지도자들의 지도력을 인정한다. KAC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오늘의 진전된 성과에 따라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외교적 해결책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우리는 이 순간이 통일 한반도를 향한 새로운 길의 시작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기사제공: 한미연합회)

# 동부교계 기사판



## 유스 사역자 컨퍼런스

작은 교회 유스들을 섬기고자 하는 목적 가운데 세워진 RED(1.5세 & 2세 사역자들 중심으로 활동하는 선교단체)가 주최하는 유스 리더들(사역자들, 교사들, 임원들)을 위한 컨퍼런스(Deeper Life Conference)가 5월 12일(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30분까지 그레이스크리스천처치에서 열린다. 주제는 멘토십(Mentorship, www.facebook.com/rednites)이며 강사는 제이슨 박. 2회의 세미나와 소그룹 모임, 점심 및 교제의 시간으로 진행된다. 참가비는 25달러이며 모든 순서는 영어로 진행된다.

▲문의: (646)457-2027(장의기 전도사, 이중언어 가능), redrednites@gmail.com

## 리빙스톤교회 이전 감사예배

리빙스톤교회(담임 유상열 목사) 이전 감사예배가 5월 20일(주) 오후 5시 30분 동 교회당에서 열린다. 새 주소는 215-29 42Ave, Bayside, NY 11361.

▲문의: (917)862-0523

## 플타임 교육목사/전도사 청빙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소속 시카고 그레이스교회가 플타임 교육목사/전도사(유초등부사역 겸임)를 청빙한다. 자격은 정규신학교(Seminary)를 졸업한 목사/전도사(M.Div.)로, 영어권 문화와 언어에 능통해야 하며 교육담당 디렉터로 다른 사역자들과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합법적 신분과 한국어 능숙자 선호. 제출서류는 사진 부착한 이력서와 추천서 2부, 가족사진 부착한 가족소개서, 목회(사역)에 대한 생각(목회 혹은 사역 철학), 개인 간증서, 설교 CD 혹은 동영상이며 제출마감은 5월 31일. 서류는 sungkim@igrace.org(Rev. Jack Kim)에게 영어로 보내야 한다.

▲문의: (847)243-2511(Rev. Jonghoon Weon)

## 뉴욕어린양교회 영적대각성 집회

뉴욕어린양교회가 설립 28주년을 맞아 영적대각성 집회를 갖는다. 일시는 5월 10일(목)부터 12일(토)까지 저녁 8시 30분, 13일(주) 오전 11시, 오후 2시30분. 강사는 이서 목사(미주비전교회 담임)로 현재 오렌지카운티 교협회장이다.

▲문의: (718)899-8309

## 뉴저지 은혜와사랑교회 봄 부흥회

뉴저지 은혜와사랑교회가 봄 부흥회를 갖는다. 일정은 5월 19일(토) 오후 7시30분, 20일(주) 오후 12시30분이며 강사는 분당 선한목사교회 유기성 목사. 한편 동 교회는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은세대여, 일어나라! Rise, All Generations!"를 주제로 황영송 목사(뉴욕수정성결교회 담임)를 강사로 부흥회를 가졌다.

▲문의: (201)567-3535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4월 월례모임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 "모든 일을 미션으로 행하자"

##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4월 월례모임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회장 유상열 목사)가 지난 25일 4월 월례모임을 갖고 2018년 단기선교와 후원의 밤 등 행사에 대해 논의했다.

회장 유상열 목사는 "웹사이트 관리 및 활용"에 대해 강조하고 "우리가 받은 미션의 사명을 다하자"고 촉구했다.

오전 10시30분 뉴욕늘기뵤교회(담임 김홍석 목사)에서 열린 월례회에 앞서 드린 예배는 박이스라엘 목사 인도로 기도 김영환 목사, 특송 안경순 김사라 목사, 설교 김홍석 목사, 합심기도, 축도 유상열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홍석 목사는 "소명에서 사명으로(롬1:1)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신의 전 사명을 언급하고 있다"며 "바울은 나는 아무 것도 아니고 내가 한 일은 주인을 위해 한 것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사람이 하는 일에는 ①하고 싶은 일-자기성취 ②할 수 있는 일-자기능력 ③해야만 하는 일-삶의 이유, 목적이 있으며, 사람은 ①쫓겨 다니는 사람-자기가 필요한 길로 가는 사람 ②부름 받은 사람-자기를 필요로 하는 길로 가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다. 부름은 2가지로, 1차적 부름은 하나님

과의 관계이며 2차적 부름은 하나님과 일과의 관계"라며 3M(Money, Meaning, Mission)으로 설명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돈벌이로 하면 직업이지만 미션으로 하면 하나님의 일이다. 기아대책이 하는 일도 미션"이라고 강조했다.

합심기도 제목은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회장 및 회원을 위해 △결연아동을 위해 △선교사들을 위해 △단기선교를 위해 △후원자의 밤을 위해 박이스라엘 목사가 인도했다.

2부 회무는 사무총장 전희수 목사의 개회기도 후 사역보고를 했으며 폐회기도 권금주 목사, 식사가 김인한 장로의 순서로 진행됐다.

과테말라(장경순 박윤영 선교사)로 결정된 2018년 단기 선교 날짜는 10월 1일(월)부터 5일(금)까지로 확정됐으며 2018년 후원자의 밤도 11월 25일(주)로 발표됐다. 동 기구는 콜롬비아와 페루, 코트디부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의 어린이들을 후원하고 있다. 아동 1명당 한달 후원비는 30달러로 동 기구는 현재 5개 지역의 100여 명의 아동을 후원하고 있다.

한편 5월 정기예배는 23일(수) 오전 10시30분 퀸즈소망교회(담임 정배울 목사)에서 열린다.

(유원정 기자)

# "은퇴 후에도 풍족한 삶을 누리라"

## 뉴욕교협 주최 세미나, 강사 배희남 회장

뉴욕교협(회장 이만호 목사)이 미나가 지난 30일 오전 10시30분부터 CSN GOOD TV(대표 한은경)



뉴욕교협 주최 세미나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욕목사회 기도회 및 세미나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 열정적 개혁자 존 낙스를 만난다...

## 뉴욕목사회, 스코틀랜드탐방위한 제2차 기도회 및 세미나

뉴욕목사회(회장 문석호 목사)가 오는 5월 29일 출발하는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자 탐방을 위한 제 2차 기도회 및 세미나를 지난 26일 열었다.

효신장로교회에서 열린 기도회 및 세미나에서 문석호 목사는 유럽의 영향을 받은 영국과 칼트족의 영향을 받은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 상황을 설명하며 열정적인 개혁자 존 낙스에 대해 언급했다.

문 목사는 "스코틀랜드를 개신교(장로교) 국가로 만들려는 의지에 불탄 존 낙스가 영국에 대항해 노예선에서 1년 10개월을 지낸 후 풀러나자 존 칼빈을 만나러 제네바로 가서 6개월 이상 거머쥔 장로교 체제를 배워 스코틀랜드 시의회를 장로교 체제로 만들었다"며 "이번 여행에 서는 에딘버러의 여러 성들과

순교자들의 발자취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또 1860년 존 로스 선교사가 중국에서 한글성경을 번역하고 한글 사전까지 만들었으며, 1910년 에딘버러 장로교연합교회에서 열렸던 세계선교대회에서 어느 선교사는 한국의 대부흥을 보고하며 당시 2% 미만의 한국 기독교인들의 열정을 보고했다고 소개했다.

총무 이준성 목사가 기도회를 인도했으며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자를 영상으로 보는 시간도 가졌다.

이날 이영삼 목사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이번 탐방여행은 목회와 사모, 평신도지도자 등 총 38명이 참석하며 6월 7일 오후 5시 뉴욕 도착 예정이다.

(유원정 기자)



뉴욕실버선교교회 종강 및 단기선교 파송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 26기, 과테말라에 총18명 파송

## 뉴욕실버선교교회 종강 및 단기선교 파송예배

뉴욕실버선교교회(회장 김재열 목사)가 주최하는 제 26기 뉴욕실버선교교회 종강 및 단기선교 파송예배가 4월 30일 오후 8시 뉴욕늘기뵤교회(김홍석 목사)에서 열렸다.

예배는 김경열 목사 인도로, 대표기도 이재봉 목사, 특송 김영환 전도사, 설교 한재홍 목사, 헌금 소피아 송 전도사, 헌금기도 이승진 목사, 수료증 및 감사패 수여 김재열 목사, 헌서 및 스페니시 찬양 선교사 일동(단장 최윤섭 목사), 축사 윤후의 영사, 인사 장흥호 선교사, 광고 장중현 장로, 축도 김홍석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26기는 지난 2월 26일 "가든지 보내든지 하자"라는 주제로 개강해 10주간 동안 매주 월요일 진행됐으며, 강사는 김홍석, 김재열, 김성기, 송병기, 장동일, 민상석, 최창섭, 이재봉, 최윤섭, 양민석, 조원태, 이지용, 한재홍, 장봉익 등 목사들과 전문 사역자들이 선교에 대한

영성과 정보, 그리고 현장에서 필요한 선교기술을 강의했다.

교육과정 후 파송되는 단기선교 이번에는 5월 14일부터 19일까지 과테말라로 가게 되며, 한방, 이마음, 안경, 사진, VBS 등의 사역을 펼치게 된다.

단기선교사는 총 18명으로 명단은 이형근, 최윤섭, 최혜란, 신정호, 신용자, 황명현, 황양욱, 신현숙, 이성숙, 윤석남, 주영숙, 송영민, 최남정, 서현숙, 김신디, 장지호, 지사라, 김경열.

단기선교에 관한 문의는 김경열 목사(917-963-9356)나 장중현 장로(646-309-1787)에게 하면 된다. 2004년 시니어들의 선교동원을 위해 조직된 뉴욕실버선교회는 같은 해 1기 실버선교훈련을 시작으로 봄학기 및 가을학기 연 2회 교육과정을 14년 동안 진행했으며 650여명의 시니어들이 수료했다.

(기사제공: 뉴욕실버선교교회)

에서 열렸다.

총무 김희복 목사 사회로 부회장 정순원 목사 기도예 이어 이만호 목사가 인사 및 강사를 소개했다.

회장 이만호 목사는 "한인 평신도 뿐 아니라 목회자들도 은퇴 후에 경제적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오늘 강의를 통해 은퇴 후에도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찾기 바란다"고 말했다.

강사 배희남 회장(G.L.F)은 '부동산 투자교실'이라는 세미나를 해오

고 있는 재정 컨설턴트 배 회장은 "은퇴시 어떤 것이 목표인가"라며 은퇴는 준비가 돼 있을 때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하고 "Financial Freedom은 돈 걱정 안하는 것인데 노동해서 얻은 돈이 아닌 cash flow, passive income을 겨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배 회장은 재정에 대한 개념 정리와 사고의 변화를 촉구하며 돈을 더 버는 것, 돈을 방어하는 것(세금), 예산세우기, 돈 빌리기, 정보 얻기 등에 대해 설명하고 부동산 건물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한다고 예를 들어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는 안창의 목사 기도로 마쳤다. 오찬은 GOOD TV가 제공했다.

(유원정 기자)



예장(대신) 미주동부노회 55회 정기노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 예장(대신) 미주동부노회 55회 정기노회

## 노회장 한준희 목사, 부노회장 주효식 목사

예장(백석, 대신) 미주동부노회(노회장 임준환 목사) 정기노회가 지난 4월 23일 저녁 뉴욕선민교회(담임 함성은 목사)에서 열렸다.

임원개선을 통해 통합 미주동부노회는 한준희 목사를 3대 노회장에 공천했다. 그리고 주효식 목사를 부노회장으로 공천했으며, 임원선출은 회장단에 위임했다.

통합전 노회에서 이미 3번 노회장을 역임했으며 통합 후에도 서기로 일한 한준희 목사는 노회장 공천을 받은 후 "봉사적으로 알고 열심히 회원 목사님들을 잘 섬기고 교회가 잘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55-56회기 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노회장 한준희 목사(뉴욕성원교회) △부노회장 주효식 목사(뉴욕정원교회) △서기 장규준 목사(뉴욕주님교회) △회록서기 홍지철 목사(뉴 교회) △회계 서문도 목사(CT 에버그린교회).

회무에 앞서 열린 예배는 한준희 목사 인도로 기도 김경열 목사, 설교 임준환 목사, 예물감사기도 홍지철 목사, 축도 증경노회장 송원섭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어 주효식 목사의 집례로 성찬예식이 진행됐다.

임준환 목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고전3:7-9)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고 받으실만한 노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 귀한 일이 일어나기를 축원한다"며 "하나님의 동역자들 3가지

모습으로 첫째, 동역이란 위치적으로 수직적이지만 근본적으로 수평적 관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하는 사이이다. 둘째, 동역자간에는 시기심, 이기심, 자만심 같은 마음은 자리할 수 없다. 혹시 그런 모습은 없는지 늘 자기를 믿음 안에서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살펴보라. 셋째, 모든 섬김과 헌신을 믿음 안에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리에 나가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동역자의 태도이며 자세"라고 강조했다.

회무처리를 통해 이인철 목사(슈빌리교회 부교역자)를 노회원으로 재가입시켰으며, 김동욱 목사(복음뉴스 발행인)를 신입회원으로 받았다.

또 목사후보생에 양명철 전도사(뉴욕주신교회)와 이중진 전도사(뉴욕만백성교회)를, 강도사 인허 김혜영, 문상성, 양명철 등 3인에게 목사고시 청원 또한 허락했다.

또한 지난 정기노회에 결정에 따라 장기간 참석하지 않은 장두만, 구경서, 이정근, 임관호, 이아브라함, 최태은 목사 등 6명을 제명했다.

또한 지난 정기총회에 제기됐던 교단신학교 설립을 결의하고 총회에 신학교 설립에 대한 헌의안을 내기로 했다. 이외에 어려운 회고를 돕기 위한 재정확보, 카톡 단체방 개인목적 사용금지, 경조사비 운영, 회비미납 처리, 임원선출 자격, 노회책자 제작 등의 내용이 의논됐다.

(정리: 유원정 기자)

# 중세교회 1000년 - 어둠에 잠긴 구속역사의 현장

(8면에서 계속)

결국 그는 754년에 히에레이아에서 교회회의를 개최하여 성화 경배를 우선 숭배로 재천명하고 성화상 파괴를 정당화시켰다.

로마 교황은 이런 상황을 매우 못마땅하게 여겼다. 게르만족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화상이 절대적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였지만, 항상 베드로의 신앙 전통을 지닌 서방교회가 동방교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근거로 동방교회로부터 독립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그들에게 좋은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그러므로 성상 파괴를 중지하라는 글을 써서 콘스탄티누스 황제에게 보냈다.

나아가서 로마에서 교회회의를 소집하여, 성화상을 파괴하거나 제거하는 행위는 파문을 피할 수 없다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어떤 위협도 황제의 성화상 파괴 의지를 꺾을 수 없었다. 도리어 동방 로마의 영역에 있는 로마 교회의 재산이 몰수하는 등 복수를 감행하였다.

787년, 제2차 니케아 종교회의가 소집되었다. 성화상에 대하여 동방교회의 분위기가 새로워졌다. 이 모임에서 과거 성화상에 대한 태도를 회복하였다. 우상숭배가 아닌, 경의를 표하는 것을 가결한 것이다. 호기가 찾아온 것이다. 이러한 동방교회의 변화는 서방교회와 한 마음을 지닐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주었다. 그렇다면 결과는 어떠하였나?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는 서로가 등을 돌린 채 자신의 길을 고집하였다. 그들이 각자 세우는 정통성의 차이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것을 뛰어 넘어 궁극적인 가치를 거부하였기 때문이다. 자신들이 어디로부터 출발하였는지, 무엇을 위해 교회가 존재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에 몰두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유사한 현상은 이 시대에도 허다하다.

covenantcho@yahoo.com

# 11월 5-7일 선교박람회 열린다

## 은혜한인교회서... 첫 번째 준비 모임 가져

한인세계선교사회, 선미니스트리, GMAN이 공동주관하는 선교박람회가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 오는 11월 5일부터 7일까지 개최된다.

선교박람회를 위한 첫 번째 준비 모임이 30일 오전 10시 선미니스트리(대표 김정환 선교사) 사무실에서 가졌다. 김민희 목사 지도로 시작된 준비모임에서 최찬영 선교사(한국교계1호 선교사, 영락교회 파

송, 황금기선교사운동 총재)는 “선교에 참여하는 교회들은 15% 정도이며 대부분이 대형교회”라 지적하며 “주님의 지상명령인 제자 삼는 일에 작은 교회들도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번 선교박람회가 잘 준비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정환 선교사는 “KWMA 통계에 2015년 파송선교사 숫자는 0명이었으며 2017년에는 242명이었다. 한국에 크리스천이 8백만명 정

도가 있으며 6만개 이상 교회가 있는데 선교사 파송률이 너무 적다”고 지적하며 “향후 5년간 현 상태로 이어질 것이라 전망이 있다. 이대로 가면 선교 동력은 죽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선교박람회를 통해 중소형 교회들도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선교박람회는 교회 안에 있는 선교에너지들을 활성화 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선교박람회는 △참석 선교사들이 제공한 선교기회에 대한 책자가 발행되며 △선교사들이 선교지 특산물을 소개해 성도들이 구매할 기회를 제공한다.

박람회를 위해 참석하는 선교사들에 대해서는 중소형 교회들이 숙박비(300달러) 후원하며 공항에서 박람회장까지 차편으로 이동하게 하는 것을 담당하면 된다.

강의는 오전 8시부터 정오까지 진행되며 12시부터 오후 9시까지 부스를 마련하고 박람회가 진행된다. 박람회장을 방문한 성도들은 부스들을 방문해 선교사들과 직접 만나는 시간을 갖게 된다.

▲문의: (714)350-6957 (박준호 기자)



한인세계선교사회, 선미니스트리, GMAN이 공동주관하는 선교박람회가 은혜한인교회에서 오는 11월 5일부터 7일까지 개최된다. 이에 대한 첫번째 준비모임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제33회 사랑의 마당축제에 참석한 모든이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2018 희망나눔콘서트에 대한 기자간담회에서 관계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 2018 CTS 희망나눔 콘서트 연다

### 5월 19일(토) 오후 7시 미주비전교회

OC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이서 목사)와 CTS아메리카(이하 CTS)가 공동 주최하는 미자립교회 돕기 “2018 희망나눔 콘서트”가 오는 5월 19일(토) 오후 7시 미주비전교회(담임 이서 목사)에서 열린다. 이에 대한 기자간담회가 지난 4월 23일 미주비전교회에서 열렸다.

김덕규 CTS 부부장은 “CTS 방송국의 철학인 섬김과 나눔의 일환으로 지난 7년간 희망 나눔 콘서트를 개최해 왔다”며 “희망나눔콘서트를 통한 수익금은 노숙인, 장애인, 중독자 선교단체에 전달됐다. 2015년엔 네팔 지진 피해자들에게 도움을 줬다. 올해는 교협과 공동주관하고 수익금을 미자립교회 목회자를 돕는데 사용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OC교협 회장 이서 목사는 “이번 콘서트를 통해 모아진 수익금은 교

협임원들과 CTS임원들과 회의에서 선정된 20곳의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실질적으로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한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선정된 교회 목회자들과는 콘서트를 마친 후 다시 초청해 건강한 목사와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 덧붙였다.

김영옥 무대 총감독은 “이번 콘서트는 CTS 혼성합창단, 여성합창단, 어린이 합창단, 청소년 챔버 앙상블 등이 출연한다”고 언급한 뒤 “특별히 윈디걸스 선에 씨도 함께 하며 더욱 풍성한 감동과 은혜의 시간을 나눌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2018 LA 신포니에타 정기공연에서 모든공연이 마친후 연주자들이 관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 2018 LA 신포니에타 정기공연

2018 LA 신포니에타(뮤지컬덕터 김용재) 정기공연이 27일 오후 7시30분 콜번스쿨 피피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LA 신포니에타 알버트 정 이사장은 “음악은 창조와 소통, 그리고 나눔을 이루는 예술”이라며 “음악은 우리에게 잔잔한 감동과 기쁨 그리고 즐거움을 주는 마음의 전령사 역할을 하는 소리예술로 나 자신과 서로 간에 마음에 문을 열고 소통할 수 있는 축복의 선물”이라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오늘 음악회가 삶의 여유와 행복감을 느낄 수 있고 위로가 되는 소중한 시간이 돼 감동과 기쁨을 나누고 경험하는 아름다운 자리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연주회는 조지 도먼트 씨가 객원지휘자로 나섰으며 멘델스존의 ‘The Hebrides’, 비제의 ‘L'Arlesienne Suite No.2’, 그리고 드보르작의 Symphony No.8’를 연주했다.

(박준호 기자)

## 주님의영광교회 & 해피빌리지 공동주관 제 33회 사랑의 마당축제 성황

주님의영광교회(신승훈 목사)와 해피빌리지(KAVC 미주한인봉사단)가 공동주관한 제 33회 사랑의 마당축제가 Whittier Narrows Recreation Area에서 2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30분까지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마당축제는 남가주 지역에 위치한 약 28개 교회 장에서와 13개 장애인 단체가 참여했다. 이종희 밀알선교단 단장은 “33번째 맞이한 사랑의 마당축제에 참여한 장애인 친구들과 봉사자들, 그리고 사역단체장들이 즐겁게 지냈으면 한다”며 “이번 행사 주최를 한 주님의영광교회와 해피빌리지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예년보다 많은 인원이 모였다. 좋은 날씨와 좋은 시간 속에서 참여한 교회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보내게 되서 감사하다”며 “장애사역이 힘든 환경 속에 이뤄지고 있지만 사역을 통해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함관호 전도사(주님의영광교회) 환영인사로 시작된 사랑의 마당축제는 케시 리 목사가 “True Love”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디어빌리티 오케스트라가 특별 연주했다.

점심식사 후에 이어진 오후순서

는 마가렛 리 자매가 특송을 불렀으며 디어빌리티 오케스트라의 특별공연, 그리고 진발레쿨의 발레공연 등 다채로운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 참여 교회와 단체들은 다음과 같다.

Acts Global Church/ANC은누리교회/가주남교회/감사한인교회/기쁜우리교회/나성영락교회/나성한인교회/남가주사랑의교회/남가주살롱교회/동양선교회/드림교회/로렐장로교회/베델한인교회/사랑의빛선교회/선한목자장로교회/선한침지기교회/성마리아 엘리자벳천주교회/세리토스장로교회/샌디에고한빛교회/에브리데이교회/인랜드교회/은혜한인교회/장애우사랑교회/주님의빛교회/주님의영광교회/충현선교회/토렌스제일장로교회/토렌스조은교회/남가주밀알선교단/물덴동산장예인선교회/살롱장예인선교회/작은예수회/평화의집/한미특수교육센터(Circle of Friends/Lanterman Regional Center/PAI/Partners for Potential/This ability orchestra foundation/Friends for special needs

(박준호 기자)



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 김주련 대표 간담회가 JJ그랜드호텔에서 열렸다

## “목회와 목상훈련 도움 콘텐츠 나누겠다” 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 김주련 대표 간담회

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대표 김주련, 이하 성서유니온)가 지난 27일 정오 JJ 그랜드호텔에서 기독교 언론과 간담회를 가졌다. 성서유니온의 남가주 방문은 로렐장로교회에서 열린 LCT 성경목상훈련을 위해 이뤄졌다. 성경목상훈련 강사로 초청된 김주련 대표는 “국제성서유니온은 지난 1887년 영국에서 시작된 150년이 넘는 국제 선교단체이며, 한국에서는 45년째 사역을 이어오고 있다”며 “한국에서는 출판 사역이 활발하다. 현재 ‘매일성경’을 비롯해 다양한 연령별 목상 자료집을 만들어 보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대표는 “특별히 성서유니온이 가진 다양한 자료들을 활용해 목회와 목상 훈련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를 미주한인교회들이 함께 나눠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성서유니온의 목상집은 300부 이상 제작을 원할 경우에 해당 교회의 이름으로 표지를 만들어주며, 현재 미국 워싱턴중앙교회와 호주 시드니교회와 성도들의 목상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이번 세미나를 통해 새롭게 제작된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영어자료와 한국어와 영어로 제작된 목상집도 제시됐다.

(박준호 기자)

## 서부교계 게시판



### 라모나 쉼터 세미나

라모나 쉼터 ‘만나며 사랑하며’ 세미나가 라모나 쉼터(17806 Oak Hollow Road Ramona, CA)에서 21일(월)부터 23일(수)까지 개최된다. 강사는 송연선 목사(MD 빌립보교회 원로)와 송순옥 사모(MI 대학준교회)

▲문의: (224)622-9183 신경섭 목사, mcc3694@yahoo.com

### 선교지 및 신학교 랩탑 발송 사역 설명회

비즈니스 전문인 선교 법인 ICMM(Information Center for Mission and Ministry 대표 제임스구 교수)는 선교지 및 신학교 사역에 필요한 랩탑(Laptop) 발송을 후원하는 사역 설명회를 4일(금) 오후 1시 Grace Library GL2 강의실(201 S. BASQUE AVE, FULLERTON)에서 갖는다.

▲문의: (714)393-4595

### 셀러브레이팅 수퍼맘스 공연

디어빌리티 오케스트라(대표 박현주 전도사)는 셀러브레이팅 수퍼맘스 콘서트를 11일(금) 오후 7시 나성영락교회(담임 박은성 목사)에서 갖는다.

▲문의: (323)594-2060

### HYM 청년연합집회

HYM 청년연합집회가 5일(토)과 6일(주) 양일간 저녁 7시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 월드플레이어센터에서 ‘그리스도인(행11:19-26)’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강사는 강대형 목사(수지선한목자교회 담임).

▲문의: (714)393-5135

### 감사한인교회 김영길 목사 은퇴기념 부흥성회

감사한인교회(담임 김영길 목사)는 김영길 담임목사가 인도하는 은퇴기념 부흥성회를 6일(주) 1-3부 예배, 7일(월)-12일(토) 저녁 7시30분, 13일(주) 1-3부 예배시간에 갖는다.

▲문의: (714)521-0991

### 달라스연합감리교회 설립37주년 기념부흥성회

달라스연합감리교회(담임 이성철 목사) 설립 37주년 기념부흥성회가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10일(목)부터 13일(주)까지 열린다. 강사는 주성민 목사(세계로 금관교회 담임).

▲문의: (972)258-0991

### 연목회 회장단 이취임식

연목회 회장단 이취임식이 29일(주) 오후 4시30분 사우스베이선교회(담임 조종곤 목사 25512 Walnut St. Lomita, CA)에서 갖는다.

▲문의: (714)353-8501 추무 정효남 목사

### 두마니스장로교회 교회이전

두마니스장로교회가 얼마인 지역(18004 Sky Park Circle #260)으로 이전했다. 예배는 수요일 오후 7시30분, 주일 오전 9시30분(영어), 11시(한국어)로 진행된다.

▲문의: (714)595-6636



한인크리스천여성방송인 연합 주관 신은경 권사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 연론은 하나님 대사의 사명의식 가져야

### 한인크리스천여성방송인연합 주관 신은경 권사 간담회

한인크리스천여성방송인연합(대표 윤우경 아나운서)이 주관한 전 KBS앵커 신은경 권사 간담회가 26일(수) 오전 11시 JJ그랜드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4월 22일 출범한 한인크리스천여성방송인연합의 첫 번째 행사로 남가주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교계신문사들과 방송사에서 활동 중인 여성 언론인들과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간담회는 신은경 권사의 어린 시절 이야기와 KBS 입사 후 아나운서와 앵커로 활동했던 이야기, 그리고 유학 후 결혼과 정치인의 아내로 지냈던 이야기 등을 풀어냈다.

신은경 권사는 “제사를 하는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중 2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가 교회에 다녀보라는 권유를 받고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다. 하지만 믿음이 없어서인지 교회는 아나운서가 되었을 때까지 신앙생활은 안하게 됐다”며 “유학을 다녀온 모태 신앙의 남편을 만나면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하게 됐다”고 말했다.

신 권사는 “KBS에서 5년여 동안 주중 9시뉴스를 진행했었다”며 “

새로운 여성아나운서에게 9뉴스 자리를 물려주고 주말뉴스를 단독 진행하게 됐다. 처음에는 밀려나는 생각에 서운함도 있었지만 한국 첫 여성앵커라는 것이 부각이 됐으며 그것에 자부심을 갖고 7년간 단독 진행했다”고 말했다.

그는 “KBS 퇴사 후 영국유학을 하게 됐는데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게 되면 대학교 강단에 서거나 뉴스지행자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결혼을 하게 됐으며 남편이 정치에 입문하는 바람에 정치인 아내로 살아야 했다”고 말했다.

신은경 권사는 “정치인 아내로 살았을 때 출마도 했었다. 그 시간들은 돌이켜보면 광야생활을 하던 때 같다”며 “CTS TV를 통해 다시 방송인이 됐는데 방송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내 힘으로 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해야 할 말을 넣어주시고 넣어주시는 말을 할 때 성령님이 함께하셔서 이루어주시신다”고 말했다.

그는 “크리스천 언론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대사의 사명을 가지고 사역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간담회는 “KBS에서 5년여 동안 주중 9시뉴스를 진행했었다”며 “

(박준호 기자)

## “평화 넘어 한반도 복음화의 길도 열자”

### 역사적 회담 후 첫 주일 교계 표정

남북의 지도자들이 군사분계선에서 손을 잡은 모습에 한국교회 강단과 주요 교단, 연합기관에서는 일제히 환영과 기대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특히 한국교회는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를 넘어 한반도 복음화의 토대 마련에 대한 기대감을 피력했다.

김지철 서울 소망교회 목사는 29일 설교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남북의 활발한 교류를 통한 자유로운 소통, 북한 주민들의 영혼의 갈급함 해소 등을 이뤄나가자”면서 “한라부터 백두까지 무너졌던 복음의 재단이 다시 세워지는 것을 두고 기도하자”고 당부했다.

소강석 새에덴교회 목사는 “이번 회담은 전쟁과 갈라짐으로 인해 고난 받고 통곡하며 평화를 사모해왔던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참평화’에 대한 소망을 주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국 사회가 양극단의 목소리를 잠재하고, 평화공존 속에서 남북이 끊임없이 교류·소통할 수 있도록 교회가 앞장서자”

고 권면했다.

감격과 의심이 교차하는 상황에 대한 복음적 결단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기석 서울 청교교회 목사는 “분단체제가 평화를 향한 우리의 꿈을 오랫동안 움켜쥐어 온 탓에 아직도 반신반의하는 이들이 있지만 지금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선언을 현실로 바꿀 용기를 내야 할 때”라고 전했다.

최기학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장은 담화문에서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것을 남과 북이 성의껏 지켜서 남북화해와 공동번영의 시대를 열기 바란다”며 “교단 산하 교회와 성도들이 남북의 공존·공영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27일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 평화통일위원회(위원장 정상시 목사)는 논평을 내고 “이번 회담 합의의 평화 기운이 북미정상회담까지 이어져 한반도와 아시아에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기를 기도한다”고 밝혔다.

민간기구로서 대북선교 사역을

펼치며 한반도의 평화를 지원해온 한국교회 연합기관도 일제히 환영했다. 한국교회총연합(공동대표 전계헌 최기학 전명구 이영훈 목사)은 27일 논평에서 “이번 회담의 인도적 교류확대와 평화정책, 종전 및 평화선언 추진 합의가 항구적 평화를 향한 전기가 되길 바란다”며 “북한에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총무 이홍성 목사) 화해통일위원회(위원장 나해석 목사)는 성명을 발표하고 ‘군사적 적대행위 중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이산가족 상봉 등 통일운동에 민의 참여 보장’ 등에 지지의사를 전했다.

한국기독교연합(대표회장 이동석 목사)은 “평시적 합의를 이뤘더라도 향후 진행상황을 포함한 구체적 부분에서 얼마나 남북이 신뢰를 쌓게 될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 “남북정상들이 화해와 용서의 마음으로 두 손을 맞잡게 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은혜인 만큼 평화통일이 이뤄지는 그날까지 한 마음으로 기도하자”고 당부했다.

긴장을 풀고 공동체성 회복이라는 더 중대한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탈북민 최경희 한양대 현대한국연구소 연구위원은 “중국의 학자들은 북한이 덩샤오핑식 개방정책을 모델로 삼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경계선으로 북한에 들어간 종교인의 역할을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탈북민 박사는 “정상회담 전후로 교계는 차분하기도 했고 소외감을 느끼는 듯도 했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교계가 무엇을 했는가는 질문이 던져졌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교계가 모여 남북 화해와 통일을 위한 공동의 논의를 이뤄야 한다는 데도 의견이 모였다. 성 교수는 “유연하고 공적인 통일 신학의 패러다임을 도출할 공론의 장을 형성해야 한다”며 “남북이 문화적 공동성을 회복하도록 한국교회가 기여한다면 북한선교의 정당성 확보는 물론 사회적 신뢰도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만 선교사는 “한국과 북한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모든 우상을 훼파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도록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말했다.

기도회에 참석한 통일코리아협동조합 박예영 이사장은 “한국교회 안에 남북정상회담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지만 모두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분명하다”며 “지금 은 비평할 때가 아니라 기도할 때다. 주일마다 참석해 기도할 예정”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40일 기도는 4년 전 한국계 미국인 마크 조 목사(하와이 코나 열방대학 동북아시아 DTS 학교장)가 자신의 비전을 공유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그는 북한을 방문했었고 2018년 4월 29일부터 기도하라는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고 한다. 다소 신비적일 수 있지만 날짜가 남부정상회담 직후에다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이어서 의미심장하다.

40일 기도는 미국 시애틀 형제교회(권준 목사), 부산 수영로교회, 한동대 등에서 돕고 있으며 브라질 스웨덴 일본 베트남 등 국내외 70여개의 교회와 신자, 예배팀 등이 참여한다.

천지는 기존 창고시설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고양시 기독교총연합회(고기총), 고양신천지 건축관리대입시주민대책위(고양신천지대책위),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대) 등 지역 교계 및 주민들은 신천지 종교시설 건축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 세 단체는 25일 고양 일산동구 숲속마을로 큰빛교회(김종철 목사)에서 지역 주민을 상대로 신천지 건물 신축 반대를 위한 주민설명회와 키키대회를 잇따라 열었다. 지역 주민 100여명은 정체를 숨기고 접

## 10년째 ‘감독회장 리스크’ 되풀이

### 감리회, 또 다시 파행...만성화된 리더십 부재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가 2003년 4년 전임 감독회장 제도’를 부활한 이후 ‘감독회장 당선→소송→자격 상실’이라는 흑역사를 반복하고 있다. 4년 전임 감독제의 첫 수혜자인 신경하 전 감독회장을 제외하곤 모든 후보와 감독회장이 소송 당사자가 되고 있는 것이다. 임기를 마친 전용재 전 감독회장도 자격을 상실했다가 소송을 통해 복권됐을 정도로 소송은 감독회장 임기내내 따라다녔다.

현 감독회장인 전명구 목사도 자유롭지 못했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선거무효 판결을 받은 뒤 절치부심하던 전 감독회장은 지난달 27일 해당 법원이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결국 수렁에 빠졌다. ‘감독회장 리스크’는 기감 본부, 산하 교회 지원 업무와 교회 연합사업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30일 전 감독회장을 대신해 입장을 전한 지하수 기감 선교국 총무 직무대리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선거무효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직무만 정지될 뿐, 감독회장 자격은 유지된다’고 보는데 판결의 향방에 따라 복귀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전 감독회장이 복귀를 염두에 두는 것과는 달리 직무대행을 선출해야 하는 현직 감독들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기감 산하 11개 연회 감독 중 선임인 강승진 서울 연회 감독은 이날 기감 본부에서 감독 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에선 오는 18일 감리회 본부에서 총회 실행부위원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강 감독은 전화통화에서 “기감 현회 법인 교리와 장정에 따라 이달 30일까지는 직무대행을 선임해야 한다”면서 “절차 등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아 일정이 촉박하다”고 했다.

기감의 지도력 공백 사태는 10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병폐다. 김국도 임마누엘교회 목사가 감독회장 후보 자격이 있는지를 두고 시작된 갈등이 출발점이다. 2008년 9월 법원이 김 목사가 2001년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이 결격 사

유라고 판결하자 김 목사 지지파와 반대파가 각각 총회를 열어 교단 분열 직전까지 치달았다.

기감은 2012년 5월 극적인 회생 기회를 맞았지만 후보 자격 문제가 또 불거지면서 세 차례나 선거가 중단되는 혼란을 겪었다. 2013년 6월 4명의 감독회장 후보들이 등록을 마친 뒤 7월 선거에서 전용재 목사가 감독회장에 당선되면서 5년 갈등이 종식됐다. 하지만 곧바로 총회 특별재판위원회가 당선 무효 판결을 내렸다. 전용재 전 감독회장은 2014년 4월 서울고등법원에서 ‘당선무효 판결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된 뒤여야 겨우 지위를 회복했다.

기감 본부는 감독회장 리스크가 반복될 때마다 혼란에 빠졌다. 본부의 한 직원은 “이제 무덤답하지만 이럴 때마다 혼란스럽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제 막 걸음마를 댄 한국교회총연합회도 고민이 크다. 변창배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사무총장은 “전 감독회장은 한교총 총회에서 선출한 대표회장인 만큼 자격면 문제가 없다”면서도 “하지만 기감 총회와의 협력 등 교회 연합 사업엔 어려움이 예상 된다”고 우려했다.

## 명성교회 세습 정당성 판결 연기

###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 다음 심리 5월 15일 예정

27일로 예정됐던 서울 명성교회(김하나 목사) 세습의 정당성 여부를 판결하는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 재판국 심리가 미뤄졌다. 지난달 13일과 이달 10일에 이어 3번째 연기다.

이날 회의 장소로 결정된 서울 종로구 100주년기념관 제1연수실 앞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굳게 닫힌 제1연수실 문에는 ‘담임목사의 직계비속을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는 내용의 총회 헌법 제28조 6항이 붙어 있었다. 이 종이를 붙인 교회세습반대

운동연대 회원들은 문 앞에서 ‘교회세습 NO’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시작했다.

그러나 “재판국장인 이만규 목사가 다른 일정을 이유로 재판에 나오지 않는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오늘도 미뤄지는 것 아니냐” “오늘 판결은 쉽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회의 시작 시간인 오전 11시가 돼도 이 목사가 도착하지 않자 재판국은 짧은 경건회를 진행한 뒤 비공개 회의를 시작했다. 1시간쯤 뒤 문을 열고 나온 재판국 관계자

는 “오늘은 명성교회 세습 관련 심리를 진행하지 않을 계획이다”라며 “재판국장도 부재중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상황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총회 회관에 모인 재판관원들은 이 목사가 제출했던 재판국장 사임서의 최종 반려 통지문을 받았다. 이 목사는 국민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한달에 한번 드리는 연합예배 일정과 겹쳐 오늘 재판국 회의에 가지 못했다”며 “이후의 계획은 상황을 보고 말씀드릴 수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명성교회 세습 관련 심리는 다음달 15일로 예정됐다.

## 총신대 학부·신대원 수업 재개

### 교육부, 총장 파면요구 후 재단이사회 직무 정지

굳게 잠겼던 총신대(총장 김영우) 전산실이 25일 열렸다. 총신대 신대원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곽한락 전도사)가 지난 2월 20일 ‘김영우 총장 사퇴’를 촉구하며 서버를 차단한 지 2개월여 만이다. 교육부가 김 총장 파면을 요구하고 재단이사회 임원 전원을 직무 정지시킨 이후 학사운영은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다. 학부에 이어 신대원도 25일부로 정거를 해제하고 수업 복귀에 나섰다.

26일 서울 사당동 총신대 캠퍼스는 철제 컨테이너가 여전히 종합관

과 신관 건물 앞을 막고 있었지만 정거 농성 당시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야 했던 것과 달리 출입에 제한이 없었다. 계단과 각종 로비를 가득 메웠던 책상과 의자, 천막은 사라졌고 임시숙소와 비대위 회의실로 사용되던 열람실엔 수업 준비와 과제를 하러 온 학생들로 활기가 돌았다. 시위에 참가했던 학생 대부분이 수업에 복귀하면서 나타난 모습들이다.

하지만 긴장이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다. 학부 측 시위를 주도해 온 총신정상화위원회는 “수업 정상화

##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부활 창작발레

### 이화 창립 132년 기념 ‘메시아’ 공연 80여명 등장

발레와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면 어떤 모습일까.

이화여대 총동창회는 이화 창립 132주년 기념으로 다음 달 26일 서울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제14회 MESSIAH(메시아)’ 공연을 개최한다.

외국인 여성 선교사이자 이화여대 설립자인 메리 스캔런이 이 땅에 심은 아름다운 선교의 결실을 기념하는 작품이기도 하다. 총동창회 선교부와 이화발레앙상블, 이화여대 무용과 주관으로 펼쳐진다. 이 공연은 헨델의 메시아 음악에

맞춰 성서적 내용을 통해 믿음과 사랑, 희망의 메시지를 예술적으로 표현해낸 창작발레다. 낭만발레의 환상적인 이미지와 현대적 움직임, 마임과의 절묘한 조화를 통해 인물의 심리를 탁월하게 묘사했다.

무엇보다 메시아 예수를 전하는 작품이기에 깊은 감동을 느낄 수 있다. 전체 2막으로 구성된 이 작품은 예수의 삶과 죽음, 부활의 생애를 다룬다. 80여명의 무용수가 등장하는 대작이다.

안무 및 예술감독을 맡은 신은경 이화여대 무용과 교수는 “무용수들

의 아름다운 몸짓 기도를 통해 고도의 발레 테크닉과 감정을 화려하면서도 소박하게 그렸다”고 설명했다. 2003년 초연된 이후 ‘제18회 기독교 문화대상’(2004) ‘올해의 최우수 예술가상’(2014)을 수상했다.

신 교수는 1992년 이화여대 무용과 발레전공 재학생과 졸업생을 중심으로 이화발레앙상블을 창단했다. 현대 발레예술의 창작과 및 레퍼토리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그는 “발레로 만나는 메시아는 온 가족이 함께 보고 누릴 수 있는 아름답고 감동적인 공연”이라며 “이 시대의 절망과 아픔을 희망과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소중한 선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익금은 모두 선교사들에게 전달된다.

## 청평 이어 고양 주민·성도들도 팔걸었다

### 신천지, 일산동구 부지매입 시건축위원회에 심의 접수

신천지에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경기도 고양에서 계획하고 있는 대형 종교시설 건축에 지역 성도·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신천지는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에서도 지난 2월부터 신천지박물관 건립을 시도해 지역 사회 곳곳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대법원은 심각한 지역 갈등이 우려될 경우 공익 목적상 신축·용도변경에 대한 불허가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민일보 취재 결과 신천지는 지난 1월 고양 일산동구 별마로의 한 물류센터 부지 7934㎡(약 2400평)를 매입하고 지난 12일 고양시청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직 잔금을 치르지 않아 토지대장·등기부상 소유권은 이전되지 않은 상태다.

향후 매매계약을 마무리하고 건축위원회 심의까지 통과할 경우 신

근하는 신천지 포교 방식의 폐해를 경정한 뒤 “우리 가장 위협하는 사 이비 신천지 결사반대한다”고 외쳤다.

고기총과 고양신천지대책위는 지난 2월부터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신천지 시설 건축 반대서명운동에 나섰다. 최근까지 지역주민 2만여 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향후 고양시청에 반대서명 명단을 제출하고 다음 달 9일 2차 주민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앞서 전북 익산시청은 2011년 6월 신천지가 익산에서 종교시설을 건축하려고 하자 지역 주민과의 갈

등, 교육환경 침해 등의 이유로 불허한 바 있다. 이에 신천지는 소송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대법원은 2014년 2월 이 사건에 대해 신천지 종교시설 건축으로 인해 지역 갈등, 교육환경 침해 등이 우려될 경우 주무관청의 건축·용도 변경 불허가 공익상 이유 있다고 판시했다. 교인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반대 서명에 참여했고 해당 부지가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에 있으며 인근 학생들에게 미칠 악영향에 대한 학부모 우려가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

고양시의 신천지 신축 부지 역시

인근 200m 내 유치원이 위치하고 있어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에 속한다. 반경 2km 내에는 대학 캠퍼스, 고등학교 5곳, 중학교 4곳, 초등학교 6곳, 아파트 단지 10여개가 있다.

고기총 대표회장 김광범(고양그리향교회) 목사는 26일 “신천지가 일산에 들어오면 많은 가정이 파괴되고 지역사회 분위기를 흐릴 것으로 우려된다”며 “지역 교계·주민들과 목소리를 모아 지속적으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선교의 창 (100)



송종록 목사 (대학선교, Ph.D.)

## 선교사의 눈에 비친 빌리 그레이엄(Billy Graham) 목사

또 한 사람의 영적 큰 별이 떨어졌다. 익히 아는 바 세세기 최고의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2018년 2월 21일 향년 99세로 별세했다. 그는 역사상 존재했던 개신교도 중에서 전 세계의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한 목회자였다. 그레이엄 목사는 지난 70여 년간 전 세계 125개국에서 2억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복음을 전했다.

기록에 의하면 "1993년 한 해 동안 25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고 회심했다. 또한 라디오 청취와 텔레비전 시청을 포함해서 이 전도자의 설교를 들은 청중은 22억 명에 달한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그는 아이젠하워 대통령 이후 12명의 미국 대통령들에게 영적 멘토가 되었다. 이로써 사람들은 빌리를 가리켜 "미국의 목사"요 "개신교 교황"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어떻게 한 사람이 영향력이 이렇게 클 수 있던 말인가?

아무튼 고인은 이 땅의 미완성 과업을 남겨둔 채 우리 곁을 떠나고 있다. 이제 그가 남긴 몫은 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것이 되었다. 이 시간 우리는 고인의 일생을 돌아보며 마음가짐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

### 1. 출생과 성장배경

그의 본명은 윌리엄 프랭클린 그레함(William Franklin Graham Jr., 혹은 Billy Graham)이며 Billy는 애칭이다. 그는 1918년 11월 7일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샬럿 부근 농촌에서 태어났다. 그의 부모는 목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었다. 그 가정은 궁핍한 살림살이는 아니었지만 빌리는 소년 시절부터 새벽에 일어나 소의 젖을 짜다. 그는 역사책을 애독하였고 이를 통해 질이 좀 낮은 교육의 약점을 극복하였다.

그는 1934년 한 복음전도 집회에서 회심을 경험하였다. 그 때의 설교자 모더카이(Mordecai Ham)는 지옥과 심판을 선포하는 보수적 내용으로 일관하였다. 하지만 성경에서 강하게 빌리의 마음을 자극했고 그 체험이 평생 전도자의 길을 걷는데 계기가 되었다.

그는 플로리다 성서신학교(Florida Bible Institute)와 휘튼(Wheaton)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였다. 그는 2차 세계대전의 포성이 채 끝나지 전

인 1943년부터 20대 부흥사로서의 삶을 시작했다. 그는 1946년에서 1949년까지 십대선교회(YFC)를 회장으로 사역을 했다. 이 경험은 그로 하여금 전도 사역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갖게 해주었다. 그는 중국에서 선교를 했던 외과외과의 딸 루스 벨(Ruth Bell)과 결혼했으며 5명의 자녀들을 두었다.

### 2. 한국 방문

그는 생전에 한국의 상황을 안타까워하며 여러 번 방문했다. 그는 6.25 전쟁으로 포화가 날리던 1952년 12월에 한국을 방문해 부산과 서울 등지에서 전도대회를 가졌다.

그레이엄 목사의 설교를 들은 청중은 22억 명에 달한다.

그는 고결한 인격으로 세계인의 영혼구원을 위해 일생을 바쳤다.

그는 지구촌을 누비며 복음이란 함포 사격으로 견고한 진을 부수었다.

1973년의 서울 여의도 전도 집회에는 100만 명의 성도들이 운집하였다. 1984년 한국선교 100주년 기념대회에서도 여의도를 방문하여 설교를 하였다.

그는 또한 1992년과 1994년에 김일성 전 주석의 초청을 받아 북한을 방문하였다. 1994년 북한을 방문한 그레이엄 목사는 김일성 주석에게 성경책을 선물로 건네며 난치성 복음에 대해 이야기했다. "저는 결코 함을 외교관이나 정치인으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써 간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평화의 왕을 따르는 자로서 저는 지구촌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긴장의 지역이 있다는 것에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해하며 상처를 어루만지며 평화를 위한 작은 보탬이 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었을 뿐입니다."

그는 자신의 생애 가운데 북, 북한이 통일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했다. 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힘을 모을 때 남북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 3. 설교의 특징

그는 설교를 통한 탁월한 전도자였다. 그의 설교는 단순하며 실제적이고 설득력이 있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고 기도의 능력을 믿었다. 그의 설교는 동시대적이었다. 그는 설교의 권위를 성경의 많은 인용구로서 두었다. 그레이엄 목사의 설교에서는 놀랄만한 내용이나 형식을 찾아볼 수 없다. 그의 설교 주제는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관한 메시지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선포였다. 그는 날이 갈수록 후자의 주제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그는 성경중심의 복음에 관한 간

략한 설교를 전달하기 위해 현대적인 대중 매체와 조직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였다. 그는 결코 자만하지 않았다. 그는 소홀한 준비로 강단에 나서지 않았다. 시간이 날 때마다 연습하였고 한밤중에도 소리쳐 설교하였다. 이로서 그는 회중에게 감동을 안겨주는 여투를 사용하면서도 말 한 번 더듬는 일이 없었다. 그야말로 단순하면서도 호소력 있는 영적 추수의 전도자가 된 것이다.

### 4. 그레이엄 부부가 남긴 영적 유산

스위스 CCC 디렉터로 30여 년간 섬겨온 한스페터 뉴스크(Hanspeter Nuesch)는 그레이엄 부부의 사역과 삶을 오랫동안 연구하고 자료를 수집해온 결실로 "루스와 빌 부부가 남긴 유산(Ruth and Bill Graham: The Legacy of a Couple)"이란 제목의 책을 펴냈다. 저자는 이 책에서 다섯 가지 점을 언급했다.

첫째 겸손함이다. 그는 미국 대통령들과 전 세계 주요 정치 지도자들에게도 존경받는 인물이었다. 그러나 세상의 명예를 바라지 않았기에 한 번도 이러한 지도자들과의 만남에 대해 자랑한 적이 없었다. 실제로

그 집에는 유명 인사들과 찍은 사진이 하나도 걸려 있지 않다.

둘째는 진실함이다. 그는 "하나님께 가까이 있으면서 사람들에게도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그는 '삶의 끝에서 주님께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그렇지만 내가 그런 말을 주님께 들을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셋째, 끊임없는 기도이다. 매일 저녁이면 무릎을 꿇고 앉아서 다양한 주제들에 관해서 기도했다. 그들은 하루 중 많은 시간을 기도에 할애했으며 그 기도는 대부분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신들의 사역과 다른 사람들을 그리고 대통령과 정부를 위한 것이었다.

넷째, 성경에 대한 사랑과 헌신이다. 그들은 매일 아침 집안과 시편을 묵상했으며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를 원했다. 말씀에 대한 사랑과 온전성은 그 삶을 이끌어온 중대한 힘이기도 하다.

다섯째, 흔들림 없는 믿음이다. '젊은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조언해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하루에 한 번 이상 기도하고, 성경을 보고, 묵상하고, 성구를 외우십시오. 또한 언제나 주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답하곤 했다. 주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그들 부부의 삶에 많은 문제가 닦혔을 때

조차도 흔들리지 않고 사역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 맺음 말

세계적인 전도 부흥사인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 그의 저서 "불타는 세계"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성경의 가르침을 현대 철학과 조화시키려고 시도해야 할 책임이 없습니다. 성경의 진리는 어떤 세대이든 인간의 의견과 필적하지 않습니다. 보통 그것과는 반대입니다. 우리는 중인들이 되어야 모방 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그레이엄 목사는 삶과 사역이 단순했다. 그는 사역을 위해서는 문화와 인종 종교와 정치 체제를 넘어 어디까지 갔다. 그는 세상과 교회의 경계선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흑암의 권세에 짓눌려 있는 영혼들을 향한 애라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었다. 이 사실이 그를 불세출의 전도자로 만들었다. 그가 없는 빈자리가 행하다. 누가 그 자리를 메꿀 것인가? 바로 당신이 되어야 한다.

jsong007@hanmail.net

## 선교 편지

### 니카라과

니카라과가 많이 아픕니다.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 수요일(4월 18일)부터 그동안 억눌려 왔던 정부에 대한 반감이 연금법 개정을 이유로 10일간 전국 주요 도시마다 반정부 시위가 벌어져 정부의 TV 방송국 5곳 송출 중단, 우파 라디오 방송국 방화, 여러 건물의 방화와 정부 사주로 인한 월마트 등 슈퍼마켓 15곳 약탈 등으로 혼란이 심화되었습니다.



경찰과 쇠와이프 등으로 무장한 정부 친위대의 강제 진압과 무차별 폭력으로 얼룩져서 상심인권위원회(CPDH) 니카라과인권센터(Cenidh) 니카라과인권협회(ANPDH) 등의 집회에 따르면 4월 26일까지 63명 사망, 15명 실종, 200 여명 부상, 200 여명 구속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 되었습니다.

월요일인 22일 전국에서 약 100만명에 육박한 시민, 학생들이 참가하는 평화적인 시위를 벌이고 4.19 대학생 운동으로 명명한 대학생들이 희생자들을 위해 25-27일까지 3일간 추모기간으로 정하고 시민들이 이에 호응하여 평화적인 시위는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14면으로 계속)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 서부(CA)교회안내

<p><b>감사한인교회</b> 담임목사: 김영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양강화: 오후 7:30 세례기도: 오전 9:30(월-토) 영양강화: 오후 7:30(월-토)</p> <p>www.thanksgivingchurch.com Tel: (714)521-0991, Fax: (714)521-4636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2620</p>	<p><b>나성순복음교회</b> 담임목사: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양강화: 오후 7:30(영양) 주일영양회: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세례기도: 오전 9:30(월-토)</p> <p>lafgusa@yahoo.com / www.lafgusa.com Tel: (323)913-4499, Fax: (323)913-4494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p>	<p><b>나성영락교회</b> 담임목사: 박은성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영양회: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세례기도: 오전 9:30(월-토)</p> <p>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Fax: (323)227-0718 www.youngnak.com</p>	<p><b>나성제일교회</b> 담임목사: 김문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회: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세례 기도회: 오전 9:30(월-토) 오전 6:00(토)</p> <p>Tel: (213)388-7101, (F) (213)388-6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p>	<p><b>나침반교회</b> 담임목사: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후 12:00(영양) 주일 학교: 오전 10:00 영양강화: 오후 7:30 토요성경연구회: 오전 9:30 토요영양회: 오전 6:00</p> <p>Tel: (562)691-0691, (F) (562)691-0698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amp; Puente) / www.nachimban.org</p>		
<p><b>남가주든든교회</b> 담임목사: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 오전 11:00 주 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세례 기도회: 오전 5:40(월-토)</p> <p>Tel: (949)854-2779 / Fax: (213)48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facebook.com/frscca</p>	<p><b>남가주사랑의교회</b> 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영양회: 오후 7:30 세례 기도회: 오전 9:20 2부: 오전 9:20</p> <p>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www.bkc.org</p>	<p><b>대동장로교회</b> 담임목사: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회: 오전 11:30 세례 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 요 예 배: 저녁 7:30</p> <p>Tel: (310)719-2244, Fax: (310)719-2229 15411 N.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www.dkpc.org</p>	<p><b>디아스포라선교회</b>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에서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포를 위해 일하는 진교회" 목요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후 4:00</p> <p>Tel: (213)559-7728 (전화 팩스 겸용), Tel: (213)210-6890 1213 Gabriel Garcia Marquez St., #B L.A., CA 90033</p>	<p><b>미주양곡교회</b> 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회: 오후 11:30 수요예배: 오후 7:00 세례기도: 오전 5:30(월-토)</p> <p>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p>	<p><b>미주평안교회</b> 담임목사: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영양) 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세례) 기도회: 오전 6:00</p> <p>www.mpcia.org Tel: (213)387-9425, Fax: (213)387-2535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p>	<p><b>빛과 소금의 교회</b>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양)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영양) 금요예배: 오후 8:00 세례 기도회: 오전 5:45(월-토) 세례 기도회: 오전 6:00(토)</p> <p>Tel: (310)749-4756 21519 S. Menlo Ave Torrance CA 90502</p>
<p><b>베델한인교회</b> 담임목사: 김한요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15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주일영양회: 오후 2:00 성인영어예배: 오전 9:15, 11:30 주일학교: 오전 1:30(수요일-토) 주일학교: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p> <p>Tel: (949)854-4010 / E-mail: belthe@bkc.org 16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www.bkc.org</p>	<p><b>LA 복음연합감리교회</b> 담임목사: 이영성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아동부/중고등부: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영양회: 오후 7:00 성경연구(목요일) 오전 10:00 세례기도: 오전 6:00</p> <p>Tel: (323)641-0691 / ys2104@hotmail.com / www.lagumc.org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 www.lbc.org</p>	<p><b>복음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상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회: 오전 11:3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p> <p>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p>	<p><b>세계소망교회</b>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회: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목요기도회: 저녁 8:00 세례기도: 오전 5:30(월-토)</p> <p>Tel: (213)745-9191(CH), 사택: (818)893-86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p>	<p><b>요셉선교회</b> 담임목사: 정상호 주일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저녁 7:30 세례기도회: 새벽 5:30</p> <p>Tel: (213)245-4099, Fax: (213)365-1670 1400 Alvarado Terrace, L.A., CA 90006</p>	<p><b>얼바인침례교회</b>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영양) 세례 기도회: 오전 5:00(월-토) 오전 6:00(토) 수요성경기도회: 오후 7:30</p> <p>www.ircmca.org Tel: (949)857-9425 / Fax: (949)857-9472 5101 Walnut St., Irvine, CA 92604</p>	<p><b>월셔크리스천교회</b> 담임목사: 엄규서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양)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영양) 주일 4부예배: 오후 2:00(영양) 세례 기도회: 오전 5:40(월-토) 주일 학교: 오전 11:00 토요영양회: 오후 6:00</p> <p>Tel: (213)384-7274, Fax: (213)384-8638 3435 Wilshire Blvd., #101 L.A., CA 90010</p>
<p><b>은혜한인교회</b>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영양회: 오후 2:00 금요성경연구회: 오후 8:00 세례기도: 오전 5:30(월-토), 6:00(토) 온라인세례기도: 365일 24시간 오픈</p> <p>www.gracemc.com Tel: (714)446-6200, Fax: (714)446-6207 1645 W. Valencia Ct., Fullerton, CA 92833</p>	<p><b>주님세운교회</b> 담임목사: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영양) 주일 학교: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세례 기도: 오전 5:50(월-토) 성경대명회: 오후 7:20(금)</p> <p>Tel: (310)325-4020, Fax: (310)325-4025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www.junimchurch.com</p>	<p><b>주님의영광교회</b>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 수요예배: 오후 7:30 세례예배: 오전 6:00(월-금)</p> <p>Tel: (213)749-4500, Fax: (213)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www.gcc.org</p>	<p><b>좋은마음교회</b> 담임목사: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양)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수요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p> <p>www.sccalsamsunchurch.org Tel: (714)646-9259, Fax: (714)646-9264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p>	<p><b>코너스톤 교회</b>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세례 기도회: 오전 5:30(월-토)</p> <p>www.cornestone.org / e-mail: pastor@cornestone.com Tel: (310)530-4040(CH), Fax: (310)530-9400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2</p>	<p><b>토렌스 Irvine교회</b> 담임목사: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양, 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영양) 세례 기도회: 오전 5:00(월-토) 영양대명회: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p> <p>www.torrencegcc.org Tel: 310-370-5500, Fax: 310-370-2009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p>	<p><b>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b></p> <p>■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 GMS브라질신학교 시역에서 본 변역과 개신(2)



**강성철 선교사**  
(브라질 GMS신학대학 학장)

카톨릭교회에서 개신교로 이동한 브라질 사람들

#### 1. 구조적인 사회적

브라질은 1500년 4월 21일 알바레스 카브라우(Pedro Alvares Cabral)에 의해 발견된 나라로 당시에는 이 땅에 인디오가 살고 있었다. 브라질 역사는 네 시대로 구분할 수 있다. 식민시대, 왕정시대, 군사공화시대, 민선시대이다. 식민지 개척을 하면서 수많은 인디오를 죽였다 이때 인디오에게는 영혼이 없다는 유권해석을 하며 미사를 집례 하는 신부도 있었다한다.

최근에 이르기까지 인디오에게는 시민의 기본권인 투표권이 없었다. 또한 광대한 브라질 땅을 개척하여 농장에 필요한 인력을 충당하기 위해 아프리카에서 수많은 흑인 노예들이 유입되었다. 원주민인 인디오들은 주권을 빼앗겼고 저들의 토지와 자녀들을 뺏기고 아프리카 흑인노예들은 중노동을 하면서 비참하게 살았다. 왕족과 귀족, 군인들, 농장주들 그리고 천주교 교권주의자들이 모든 땅과 권리를 다 가지고 백성들을 억압하였는데 그들의 횡포는 말할 수 없이 잔인했다.

#### 2. 불의한 사회체제와 야합한 종교집단

서구전통교회는 개척자들과 함께 이 땅에 도착해 십자가를 세우고 미사를 드리면서 브라질 및 남미 땅에 구명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모호하고 더러운 정치하는 자들과 야합하여 약에 동조하기 시작했다. 식민지를 개척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괴로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는 많은 의문을 제기하는 자들의 질문이 교회들에 의해서 무시되고 배척되기도 하며 교회와의 관련성을 잃거나 고립되었다.

#### 3. 민중의 믿음 속에 동참하면서 나온 해방신학

인종의 편견과 지배와 피지배라는 사회적 상황 속에 기존의 관습과 제도에 대한 도전장을 내고 탄생한 해방신학은 남미의 대표신학이 되었다. 남미 해방신학자 대표인 알렌티노 조지신학 교수인 J. M. 호세 미구엘스 보노노 교수는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정의와 사랑, 세상의 변화,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와 옹호에 대하여 입버

릇처럼 말하지만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말하는 법이 없다. 도덕적인 문제들에 있어서 그리스도교인들은 개인을 위한 일반적인 원리 또는 규범 이상의 것을 기여할 수 있는가?"

만일 우리가 오늘의 세계에서 신앙을 생활화하고자 한다면 수천만 명의 생사를 결정하는 "정치투쟁"을 회피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모든 새로운 형태의 우상숭배를, 이데올로기와 체제가 완전하고 절대적이라는 온갖 주장들을 부인하고 고발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의 해방을 위해서 생명을 내거는 일을 뜻한다.

해방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은 해방과 고통에 목숨을 바쳐 지나간 투쟁에 뛰어난 수많은 죄 없는 사람들의 사랑과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소유의 상실에 대한 불안에 쫓기는 가진 자와 억압자들의 공포와 고통에 대해서도 말하는 것이 해방신학이다.

#### 4. 정령주의에 친숙한 브라질 사람들에게 다가간 신은사운동

브라질 사람들은 현실적인 삶속에 당면한 문제들과 불확실한 미래를 헤쳐 나가기 위해 정령주의자들을 찾는다. 그리고 이들이 겪고 있는 모든 질병과 고통, 근심의 원인인 악한 영을 쫓는 축귀(Exorcism)

의식을 쫓는다. 브라질인들은 알게 모르게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데 하나님의성회를 비롯한 오순절계통의 교회들은 은사교회와 함께 귀신을 쫓는 의식을 행한다.

브라질의 정령주의의 활동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조직적이고 혼합적이다. 이를 장화경 박사는 아프로-브라질 종교(Afro-Brazil Religion)이라 정의하고 있다. 수세기에 걸쳐서 브라질로 이동한 아프리카 종교가 포르투갈의 카톨릭과 브라질의 원주민 종교, 프랑스의 카르텍염매술(Kardecism) 그리고 유럽의 신비술(Occult) 등과 조우하면서 변화, 통합, 융합을 거쳐서 생성된 혼합종교(Syncretism)이다.

그 대표적인 아프로 종교는 스칸돌브레(Candomble)는 아프리카 종교+카톨릭, 1930년 성립, 특징은 많은 오리샤들이다. 삼파(Macumba)는 아프리카 종교+카톨릭+인디오+오컬트, 19세기 말, 특징

#### 6. 이동의 원인과 상황(카톨릭에서 개신교로)

브라질은 원래 카톨릭의 종주국이다. 세계 최대의 카톨릭 국가인 브라질에서 해마다 개신교로 개종을 하는 카톨릭 신자들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 브라질은 인구 1억9천1백만 가운데 1억 2천3백만 명이 스스로를 카톨릭 신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세계 어떤 국가보다 많은 숫자다. 하지만 2010년도 인구센서스에 의하면 지난 30년 동안 브라질의 카톨릭 인구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70년에는 인구의 92%가 카톨릭 신자였는데 비해 2000년도에는 73.6% 그리고 2010년도에는 64.6%로 감소했다. 반면에 개신교인의 숫자는 2000년 15.4%(2천6백만명)에서 2010년 22.2%(4천2백6십만명)로 증가했다. 1970년에는 전체인구의 6.6%에 불과했다.

#### 7. 빈민지역 선교활동

필자는 도시빈민을 상대로 36년째 선교 사역을 하고 있다. 쌍과울 외곽지대 과를루스 콤파가, 오사소 중심한 페리투바 지역, 아에 까르발로 지역, 사포페마 지역, 시다지 페라렌시스 지역 그리고 쌍과울 중심에 우범지대인 그리세리오 지역을 선교교구로 정하고 개척교회 사역, 청소년 기술학교인 까자 도 메를, 걸인사역인 보아스 노바스(좋은소식) 걸인교회, 탁아소 해칸도 도세, 문맹자 퇴치교육, 소벤(빵과 우유 공급)사역, 알코올 및 마약중독자 재활원, 축구학교, 노인대학 등 다양한 선교 사역을 펼쳐 왔다.

그런데 이러한 빈민지역을 대상으로 세워진 교회는 거의 모두가 하나님의성회 즉 은사중심의 교회들이며 교인들은 거의가 세라라, 페르남부주, 피오리바, 마라롱 주, 파라 주, 바이아 주에서 무작정 살 길을 찾아온 사람들이며 이들 모두 전에는 카톨릭 신자들이었다.

도시빈민을 대상으로 펼친 브라질 디아스포라선교회 사역도 이 지역을 집중적으로 하였다. 교회개척과 지도자 양성을 위한 신학교사역을 하였다. 감사한 것은 GMS지부 공동사역으로 시작한 신학교사역을 시작하였고 도중에 지부사정상 두 개의 신학이 생기지 않기 위해 토요일에 집중적으로 수업을 하는 학점제 신학교를 세워 운영했다. 의외로 브라질 환경과 오순절교단을 비롯한 브라질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잘 살펴볼 수 있는 학습장이 되고 있다.

개혁주의 노선에서 조직신학과 역사신학 성경신학과 선교신학을 비롯한 보수신학을 중점적으로 가르치며 말씀과 기도과 전도와 봉사 및 실천신학을 가르치는 GMS신학교에 교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며 광고하지 않아도 이미 목회를 하고 있는 교역자들과 사회에서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 수준 높은 학생들이 오고 있으며 앙골라와 파키스탄 등에서 외국인 학생들이 몰려오고 있다. 더욱이 감사한 것은 실력 있는 현직인 교수들이 자원하여 강의안을 듣고 온다는 사실이다. 본교를 졸업한 학생들도 자원하여 봉사하며 학교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 논의: 1) 왜 브라질 및 라틴아메리카 교회가 해방신학을 채택하지 않고 변역신학과 신은사운동을 채택하였을까?

## 식민정치와 야합한 카톨릭 버리고 개신교로 이동 해방신학보다 변역신학, 신은사운동 선택...급성장

은 주술적이다. △움반다(Umbanda)는 아프리카 종교+카톨릭+카르텍시즘+인디오+오컬트+마파, 1908년, 특징은 조직적 교리와 치유이다.

신은사운동을 펼친 오순절계통의 교회들은 서구전통교회인 브라질교회가 방치한 하층민과 도시빈민을 찾아가 단순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하류층의 언어, 치병, 축사를 통해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불어 넣어 주었다.

#### 5. 도시빈민들에게 다가간 변역신학

현재 브라질에는 70% 이상이 빈민이며 최저 임금(680헤알)도 받지 못해 거리에서 자고 쓰레기통을 뒤져 먹는 걸인들이 100만명이 넘는다는 통계가 나와 있다. 가난하여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배틀리 먹지 못하고 세상을 원망하거나 꿈을 저버린 채 하루하루 타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가난 때문에 방황하다가 범죄자의 길로 빠져드는 도시 빈민들에게 나아가 손을 들어 머리에 안수하면서 "당신도 축복을 받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고 축복기도해주며 소외된 도시의 하층민들을 잘 보듬었기에 하나님성회 교회를 비롯한 오순절계통의 교회들이 크게 성장한 것이다.

브라질 리오국립대학 통계학 교수인 호세 다니즈는 브라질 카톨릭이 계속 감소하여 2030년도에는 인구의 50%까지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브라질 개신교에서 가장 큰 교단은 백년의 역사를 가진 "하나님의성회"이다. 5만명의 목사와 대형교회 10만개의 교회가 있다. 반면에 로마카톨릭은 2만5천명의 사제와 1만1천개의 교구가 있다.

이러한 종교인구의 이동은 보수적인 서구전통교회인 카톨릭 교회에 실망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이 땅에서의 부유함 뿐 아니라 내세를 바라보게 하는 복음주의 교회로 이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카톨릭에서 복음주의 교회로 옮기는 또 하나의 이유를 지난 십수 년간 발생한 브라질 북동부 가뭄으로 인해 살 길을 찾아 내부적인 인구이동을 할 수 밖에 없었음을 들고 있다. 즉 수 만명의 브라질 사람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그들의 고향을 떠나 주요 도시 특별히 쌍과울로, 리오 데 자네이루 번두리로 몰려든 것과 연관을 짓고 있다"고 보도했다.

리오 데 자네이루 카톨릭대학 정치학 교수이며 브라질 지역경제 전문가인 세자로 로메오 야콥은 "카톨릭 신자들은 카톨릭 지역인 브라질 북동부와 남부를 떠나, 주 정부가 없고 카톨릭 모습이 두드러지지 않은 지역에 이들이 모이고 있다"고 밝혔는데 그에 따르면 오순절 교단이 이러한 지

(13면에서 계속) 정부의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운 방송 송출 정상화, 구속자 석방, 평화적인 시위 보장 요구들은 이틀날인 23일 이루어져 곧 정부와 종교, 사회단체 간 협의가 있을 예정이지만 아직까지 정부의 뚜렷한 협상 일정이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대사관은 지난 24일 대사관

가족을 비롯하여 미국인들의 출국을 허용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대사관을 비롯한 다른 대사관의 움직임은 아직 관망세입니다. 저도 18일인 수요일 선교사들이 개인적으로 제게 물어오는 상황이 시위가 일어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보다 긴밀한 소식 나눔을 위해 '니카라과를 위한 기도방'이란 카톡방을 개설하여 선교사간에 실시

간으로 정보를 교류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2001년에 시우지를 기증받아 개척한 마사아제일장로교회의 경우 지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를 빼앗아 카톨릭 성당으로 만들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여 대토를 매입하고 대토에 세울 지역 센터 건축에 필요한 15,000불을 시에 기부, 대지를 시와 정식으로 교환하여 법적으로 완전한 장로교회 법인 소유

로 3년 전 전기 완료한 바 있습니다만 이 기회에 교회를 불태려 버리겠다는 일부 좌파의 위협에 교인들이 금식하며 교대로 성전을 지켜가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선교 사무실이 차로 약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현지 목회자들과 교우들이 사무실로 가는 길에도 여전히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어 통행을 제한하고 있고 또 마사

야 지역에 많이 알려져 있기에 가끔 적 사무실에도 나오지 말고 외출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바라기는 민심을 완전히 잃어버린 정부와 교계, 사회단체장 회담을 통해 평화롭고 자유로운 민주화와 정의가 이 땅에 앞당겨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부터 어제부터 자유로운 통행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더 상황을 지켜봐야할 듯 합니다. 니카라과와 교회들 그리고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4월 30일 니카라과에서 이동홍 드림 missionica21@gmail.com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p><b>강남중앙감리교회</b> 담임목사: 노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5: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www.gangnam.org Tel: (02)525-7767, HP: (017)237-8258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30-20</p>	<p><b>군포제일교회</b> 담임목사: 권태진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2:30 저녁예배: 오후 7:30 Tel: (02)397-6754~5 군포시 금정동 870-10호</p>	<p><b>금란교회</b> 담임목사: 김정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www.kumran.org Tel: (82)2-490-7000, Fax: (82)2-436-5770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340-1(131-231)</p>	<p><b>든든한교회</b> 담임목사: 장향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전 11:00, 7:00 금요철야예배: 오후 9:00 Tel: (031)977-8383~9, Fax: (031)977-8382 (우)41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670-1</p>	<p><b>로마한인교회</b> 담임목사: 한병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매일) Tel: 39-06-827-3585, 39-348-339-1726 39-06-842-8676(교우관) VIA DEI QUINTILI 32-38 00175 ROMA, ITALY</p>	<p><b>새이덴교회</b> 담임목사: 소강석 주일1부: 오전 7:30 주일2부: 오전 9:30 주일3부: 오전 11:00 주일4부: 오후 12:30 주일5부: 오후 2:30 새벽기도: 오전 5:00(매일) (침례를 위한 헌대예배)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 (031)896-607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12번지</p>	<p><b>성문교회</b> 담임목사: 황정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전 3:30 새벽기도: 오전 5:00 새벽기도회: 오전 6:30 www.seongsil.or.kr Tel: (02)262-2646-3191~3, (02)2646-3184 서울시 양천구 목동2동 520 (158-808)</p>	<p><b>성실교회</b>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www.seongsil.or.kr Tel: (02)920-9980-9988, Fax: 3927-1008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22-43 (142-073)</p>	<p><b>성일교회</b> 담임목사: 김정곤 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토요일은 쉰다) Tel: (0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3동 713-26호</p>
<p><b>수정교회</b> 담임목사: 조일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Tel: (82)32-568-0191, Fax: (82)32-562-2738 인천시 서구 불로동 416-1(404-270)</p>	<p><b>승송교회</b> 담임목사: 박상훈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저녁 7:00 Tel: (02)732-2341~3, 사택: (02)389-2235 (110-290) 서울시 중로구 인사동 137 번지</p>	<p><b>시온소교회</b> 담임목사: 김성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5:00 새벽기도: 오전 5:00(월-토) Tel: (031)253-1004, Fax: (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리동 419-2</p>	<p><b>신길교회</b> 담임목사: 이기용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Tel: (02)2-842-1968, 사택: (011)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4동 63-3, (150-051)</p>	<p><b>신천교회</b> 담임목사: 송용결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2:5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6:00 Tel: (02)418-0481, Fax: (02)422-0751 서울시 중랑구 화곡동 172 29(잠실동) www.shincheon.org</p>	<p><b>신촌교회</b> 담임목사: 박노훈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 (82)2-3142-6080, Fax: (82)2-336-4188 서울 마포구 노고동 49-45 www.shinchn.org</p>	<p><b>안암 제일교회</b> 주일1부예배: 오전 9:2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기도회: 오후 8:00 Tel: (02)926-926-4508 서울시 용인구 용인시 50-1 www.anamjil.or.kr</p>		
<p><b>양곡교회</b>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4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전 10:30/오후 7:3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30/6:30/9:00 Tel: (055)210-5500, Fax: (055)210-5510 (841-370)경남 창원시 양곡읍 양곡로 415 www.yangokg.org</p>	<p><b>왕성교회</b> 담임목사: 김요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Tel: (82)2-889-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41-24 (151-029)</p>	<p><b>장위제일교회</b> 담임목사: 신일권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금요침야기도회: 오후 9:30 Tel: (02)842-6881, Fax: (02)842-6882 (136-631)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79-12</p>	<p><b>주안교회</b> 담임목사: 주승중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4:00 주일7부예배: 오후 7:00 Tel: (02)32-527-1009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곡4동 294-1(403-838)</p>	<p><b>창대교회</b>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Tel: (82)2-482-3536, Fax: (82)2-488-4508 서울시 중랑구 성북동 448-23</p>	<p><b>청주주님의교회</b> 담임목사: 주서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043)275-9191, Fax: (043)273-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당동 259-12</p>	<p><b>충신교회</b> 담임목사: 이진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 (82)2-793-7740 서울시 용인구 이천동 302-67 (140-031)</p>		

기독교 경영 전략

기독교 경영 전략(Christian Business Strategy) 강의 (9)



제임스구 교수 (그레이스미션대학교 행정처장)

기독교 경영-공의(Justice)와 신뢰(Trust)의 원리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와 공의의 하나님은 이심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사30:18).

공의의 원리는 '하나님의 의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원리'다. 기독교 경영이 공의의 원리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불의를 미워하고 정의를 펼치는 하나님의 속성 때문이다.

공의는 히브리어로 '미쉬파트'(מִשְׁפָּט)로 재판에서 옳은 태도를 유지하고 공평을 견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스네(dikaiosunh)'로 올바름을 표현할 때 쓰인 단어이다. 이와 같은 공의의 원리는 기업경영 특히 기독교 경영에 반드시 지켜져야 할 원

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판단하고 행동을 옮겨야 함을 의미한다.

기독교 경영에서 이와 같은 공의의 원리가 위배되면 많은 부작용이 발생한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착취하고, 편익을 실현하기 위해 불공정거래가 시도되며, 불평등으로 인해 구성원 사이의 불평이 팽배해질 수 있다. 결국 대내적으로 종업원의 불만에 따른 생산성 저하와 대외적으로는 부정적인 기업 이미지를 생성하게 되어 기업 존속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신뢰(Trust)의 원리란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이 행하여 이해 관계자들에게 믿음을 주는 원리'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과 이룰 일 있어 신실하시기 때문이다. 기업도 동일한

에 출시할 때에도 거짓과 과장 없이 정직하게 소개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기업의 신뢰를 증진시키는 방법이다.

투명성은 '사회로부터 요구되는 경영정보를 바르게 드러냄'을 의미한다. 투명성은 투자자들이 원하는 정보가 재무제표 혹은 영업보고서에 적절하게 공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무엇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어떻게 측정되었는지를 기업외부에 적절히 공시하지 않은 투명성이 부족한 기업을 사회가 신뢰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진실성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 혹은 가치를 정확하게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즉 어떤 가치를 측정할 때에 과학적 방법과 객관적 수단을 이용하여

공의의 원리-형평성, 평등성, 공평성 필요  
신뢰의 원리-정직성, 투명성, 진실성으로 구성

리이다. 기업은 여러 이해관계자에 의해서 구성되고 운영되는 조직이다. 그러므로 어느 한 이해관계자만의 이익을 부당하게 대변하거나, 특정인을 정당한 근거 없이 차별대우하여 결과적으로 다른 개인 혹은 집단이 손해를 입게 된다면 이는 공의의 원리에 위배되는 것이다.

공의(Justice)의 원리에는 형평성(Equity), 평등성(Equality) 그리고 공평성(Impartiality)이 필요하다.

형평성은 '능력과 수고에 상응하여 성과를 배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심은 대로 거둔다'는 표현처럼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는 그 수고에 따라 보응하고 게으른 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주어지는 것이다.

평등성은 '개개인 가진 동등한 기본적 권리를 인정함'을 의미한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이기에 성별, 나이, 인종, 출신지역 등으로 차별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개념이다.

공평성은 '편견과 치우침이 없는 태도와 행동을 취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성경에서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 지며'(레19:15)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회 및 개인의 편견에서 떠나 객관적이

다. 특정 기업을 믿을 수 없다면 그 기업에서 만드는 제품을 믿을 수 없고, 직원은 최고경영자를 믿지 못하고, 사회는 그 기업에서 발표하는 재무제표를 믿을 수 없다면 고객은 떠나게 될 것이고, 사회는 그 기업을 용납하기 힘들 것이라 결국 해당 기업은 오래 지속되기 힘들 것이다. 또한 한 번 신뢰를 상실하게 되면 새로이 회복하는 데 지출되어야 할 비용이 너무 커져 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신뢰(Trust)의 원리는 정직성(Honesty), 투명성(Transparency) 그리고 진실성(Truthfulness)으로 구성되고 있다.

정직성이라 '거짓과 과장 없이 바르고 끈게 함'을 말한다. 신제품을 시장

그 본질에 최대한으로 접근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진실성이 위배되어 잘못된 가치가 전달된다면 그 이후의 과정인 투명성과 정직성은 의미가 없어진다. 왜냐하면 그 기초가 되는 정보 및 가치 평가가 처음부터 진실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

신뢰의 원리들은 직원의 능력을 평가할 때 그 직원의 능력이 어느 정도 인지를 진실하게 측정해야 한다. 또한 회계에서 자산(Asset)의 가치를 평가할 때도 진실성이 적용되어야 한다. 투명성은 지역사회, 정부, 투자자, 고객 등이 요구하는 정보를 완전히 공시하는 것이다.

dr.jameskoo@yahoo.com



전화령 목사(캄보디아선교사)

whiteyou11@yahoo.com

매일가정예배

월 설교는 예언이다(고전14:24-25)찬259장

사도가 예언의 우위성을 강조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한 교회는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잘 받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언이란 앞일을 맞추는 것보다 성경말씀을 전하는 설교사역에 더 비중을 두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는 예언의 목적 3가지를 지적합니다. 첫째, 책망하는 일입니다(23). 성경이 교훈, 책망, 바르게함, 의로 교육하는 계시기기 때문에 교회는 설교로 그릇된 점을 교정

해 빛으로 나가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을 바로 경배하게 합니다(24).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역시 그 중심은 설교의 역할입니다. 예배의 중심이 설교이고 설교가 공예배를 관장해 말씀의 빛 아래 서게 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임재를 전합니다(25). 설교의 목표는 말씀을 깨닫게 함으로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참된 예언인 설교를 귀하게 여깁시다.

화 혼란을 극복하는 교회(고전14:26-33)찬378장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에 혼란이 일어나는 것은 사탄의 유혹에 자주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 혼란을 이기는 길은 무엇입니까? 첫째, 건덕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26). 사탄은 육체의 소욕을 자극해 자기 위주로 살게 합니다. 은사가 육의 부패성을 만족시키려고 이용될 때 이미 타락한 증거입니다. 둘째, 순서를 따라 교통정리를 잘해야 합니다. 은사가 귀하나 마구잡이로 하면 교만이 자칫돼 무질서하게 되

고 혼란과 혼돈을 가져옵니다. 마침내 자기 자랑으로 떨어진 인본주의를 가게 합니다. 셋째, 침묵이 필요합니다(28-33). 혼돈의 날에 찬송하지만 굳고한 날에는 침묵함은 하나님과 이웃관계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이 침묵이 영적 성장의 좋은 기회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그리스도는 침묵정진하셨습니다. 혼란의 때에 교회의 영권을 잘 세우십시오.

수 성경적 여권신장(고전14:34-38)찬412장

사도는 여자들의 교회 활동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첫째, 잠잠해야 합니다(34). 이것은 여자의 권리와 은사를 무시함이 아니고 그들의 고유의 은사를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인도하는 자는 뒤에서 잠잠히 받쳐주는 배필을 필요로 합니다(딤후2:13-14). 교회는 화평케 하는 자로 채워질 때 능력을 갖습니다. 둘째, 복종 위주의 봉사여야 합니다(34). 율법의 복종은 언약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백성의 복종으로 되는 연합이 교회가 보일 마지막 모습입니다. 셋째, 남편의 권위를 세우는 숨은 권위를 주셨습니까(35).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으로 하나님나라의 질서를 세울 남편은 아내의 숨은 복종을 통해 그 효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여자는 가정의 실세입니다. 복종이 은혜를 지속시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여권신장을 따라 재창조의 아름다움을 이뤄갑시다.

남의 사랑과 그의 백성의 복종으로 되는 연합이 교회가 보일 마지막 모습입니다. 셋째, 남편의 권위를 세우는 숨은 권위를 주셨습니까(35).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으로 하나님나라의 질서를 세울 남편은 아내의 숨은 복종을 통해 그 효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여자는 가정의 실세입니다. 복종이 은혜를 지속시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여권신장을 따라 재창조의 아름다움을 이뤄갑시다.

목 질서의 하나님(고전14:39-40)찬361장

교회의 질서는 개인의 영적질서의 반영이기 때문에 사도는 질서를 존중하 여깁니다. 어떻게 질서있게 합니까? 첫째, 신령한 은사에 대한 갈망이 넘쳐야 합니다. 은사는 그 자체가 성령 하나님 자신의 뜻대로 주시기에 소원하며 구해야 합니다. 그 은사가 총만할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곧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둘째, 품위를 지켜야 합니다(40). 무엇을 더 받으려는 것보다 이미

받은 지위와 은사를 발전시키는 내면에 더 초점을 맞춥니다. 받은 은혜를 잘 관리하는 것이 질서 세우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우선순위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자면 개인생활분야에 주께서 주신 순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일에 마음을 쏟을 때 자연히 질서가 세워지고 균형있는 교회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개인 경건생활에 힘씁시다.

금 사도의 복음(고전15:1-8)

고린도교회의 문제를 자세히 밝히고 구체적으로 해답을 준 바울은 수시로 원복음을 더 밝혔 습니다. 복음만이 모든 문제의 영원한 해결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떤 복음입니까? 첫째, 전수된 복음이다(1). 갑자기 던져진 것이 아니고 오랜 역사적 과정을 걸쳐 전해진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사 속에 여러 모양과 여러 방법으로 개인에게 전수된 역사성을 주장합니다. 둘째, 구원의 복음이다(2). 인간의

결핍질서의 구출이나 해방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이것은 창세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속과 그 영광입니다. 셋째, 성경적 복음이다(3-8). 이것은 고안된 것이 아니고 성경대로 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이 복음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중심으로 완성된 것으로 성경이 이것을 통제한다는 것입니다.

토 은혜로 되는 사역(고전15:9-10)

왜 은혜로 되는 사역입니까? 첫째, 이미 주신 은혜를 귀하게 여겨야 하기 때문입니다(9). 박해자가 전파자가 된 것 자체가 은혜로 시작된 것입니다. 자기의 것이 가미되면 그만큼 권리를 주장하기에 하나님은 이런 극적사건을 통해 은혜로 뒀을 가르치셨습니다. 둘째, 더 많은 수고를 드렸습니다(10). 공짜로 받으면 무시하거나 게으름으로 떨어지기 쉽습니다. 그가 받은 은혜는 영원한 효력을 가진 비

싼 것이기에 자발적으로 헌신했습니다. 자원적인 수고나 아니면 이미 타락한 것입니다. 일해 놓고도 써주신 것을 감사할 뿐이지 자기 몫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자본없이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그 사역 역시 은혜로 된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위에 사역의 은혜를 받은 자는 주장하거나 교만한 태도를 가질 수 없습니다(11). 도리어 나같은 죄인을 써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Table listing various churches and their contact information. Columns include church names like '갈보리성로교회', '몽고메리교회', '빅스카운티성로교회', '벤엘교회', '보스턴성로교회', '살롱성로교회', '시애틀평강장로교회', '안다옥교회', '알칸사 제자들교회', '앵커리지베를린교회', '엘파소열린문교회', '영성장로교회', '킬린노루교회', '워싱턴메시야성로교회', '주예수교회',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Each entry includes a photo of the pastor, name, address, and phone numbers.

아리조나 기도원 매매

좋은 환경과 쾌적한 공간에 위치한 아리조나 기도원을 좋은 가격에 매매 합니다. 대지 7.3에이커, 건물 3동과 예배실, 피닉스 공항에서 50마일 거리. 문의: 623-326-5532

독/자/간/증

박병덕 장로
빅토리아순복음교회(브라질)



“내가 만난 예수”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3)

또 다른 계획...

나와서 빈손으로 하려니 할 게 없었는데 교포 한 분이 배 선원 상대로 껌데기 장사를 잘하여 돈을 잘 번다는 소문을 듣고 무슨 껌데기가 하고 알아봤더니, 소가죽도 아니고 돼지 껌질도 아닌 선원 상대로 술장사를 하는 장사가 잘된다고 하여 돈을 벌 수 있을 같아서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신문 광고에서 장사할 가게를 수소문하여 세를 얻고 보니 너무 쉽게 벌수 있는 돈이 보였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 맥주 4병을 사서 2병을 마시고 2병은 냉장고에 두고 잠자리 들었습니다.

닥쳐 온 시련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니 어제 보던 내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입이 옆으로 돌아가고 침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아침을 하는 아내를 불렀지만 허가 굳어졌고 성대를 막아 괴음만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 손을 입으로 갈다 대려고 해도 입으로 안가고 다른 곳을 집게 되었습니다. 이상한 소리를 듣고 아내가 달려왔습니다.

어디 아픈데도 없고 머리만 팽할 뿐 정신도 말짱하였습니다. 중풍에 좋다고 하는 우황청심환과 병원 약을 개어 쉴 새 없이 먹어 넣으니 삼켜야 했지요. 그러다보니 양약과 한약인 우황 청심환이 배속에서 부작용이 나서 배가 점점 부어올라왔고 급기야 숨을 가쁘게 쉬게 되었고 목에 가래가 끊기 시작하여 목구멍 숨통을 막으면 안간 힘들어 써 겨우 숨을 쉬면 가래를 이용 목구멍에 가래를 제거하여 숨을 쉬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언제 숨이 막혀 죽을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또 괴로운 것은 눈을 마음대로 뜨고 감을 수가 없어 다른 사람이 걸어 울려야 볼 수가 있고 감겨 쥐야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눈을 뜨고 싶지만 뜨지 못하니 답답하였습니다.

병문안 온 사람들은 모두 얼마 못산다고 혀를 차고 돌아가면 아이들과 안사람의 한숨 소리와 우는 소리만 들려와 너무 괴로워 그동안 내가 믿어온 예수님께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주님의 음성

“예수님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건가요?” 표현도 말도 못하니 마음속으로 예수님께 대들기 시작하였습니다. 복 주신다고 하시더니, 천국이 있다고 하더니 이렇게 병이 들어 지옥 같은 이 고통이, 예수를 믿는 자의 최후가 이렇게 되면 모두가 거짓이 아니냐고 대들기 시작하였습니다.

내 자신이 바보라고 후회도 했습니다. 남들같이 술 먹고 잘 놀고 스트레스 해결하며 살았으면 이런 병이 걸리지 않았을 것을 내 자신을 미워했습니다. 이제 언제 가래가 목을 막아 죽을지 모르는 이 순간 무엇이 두렵고 바랄 것이 없어 속에 있는 하고 싶은 화풀이를 마구 예수님께 했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나를 믿느냐?” 이렇게 묻는 말에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은 예수가 더 알지 뭐 나에게 물어요?” 하고 대답을 하니까 “나는 너를 모른다” 하시는데 것이었습니다.

“왜 몰라? 그동안 교회에서 봉사하고 남들이 놀러가도 놀러가지 못하고 교회 청소하고 온갖 더러운 것 다 치우며 내가 한일을 모른단 말이야?” 나는 화가 났습니다.

“난 너를 몰라. 교회에서 봉사한 것은 네가 살려고 한 것이지 난 모른다” 하고 공중전화 끊기듯 대화가 끊긴 후 가만히 생각을 했습니다. 잠시 후 나는 깨닫기 시작하였고 그동안 봉사한 것은 내가 나를 믿었고 내가 살기 위해 살았던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모르시는 게 사실이야.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가는데 나라고 대수냐, 산사람은 어떻게라도 살겠지. 그래 죽자” 하고 마음을 달고 보니 마음이 평안하였습니다.

(회개) 작은 믿음에 꼬리표

그때 깨달음이 왔습니다. “아, 지금 예수님과 대화를 했잖아? 지금 나와 함께 하지않아?” 이생각과 함께 기쁨이 마음속에서부터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불평한 마음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음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정말 잘못하였습니다. 당연합니다. 모르신다는 게 말입니다. 그래도 그동안 교회 문턱을 드나들었으니 염치없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죄인 천국은 갈수 없습니다. 다만 작은 믿음의 꼬리표 하나만 달아주세요. 천국은 말고 천국가는 길목에 갈 수 있도록 하여주세요 믿습니다. 이제 약도 안 먹고 이대로 가렵니다. 주여, 내주여 받아주세요” 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약 먹을 시간이 왔는지 약을 먹이려고 입을 벌리려고 하지만 다문 입이 벌어지지 않으니 우리 아빠 이제 죽는다고 통곡을 하는 아이들, 안사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그리고 애들이 울지 마라. 나는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있단다. 아빠 같은 신앙 갖지 말고 예수님 잘 믿어 이 다음에 천국 가는 길목에서 만나자’ 하고 마음으로 유언을 하고 나니 마음이 기뻐했습니다. ‘예수님 우리 식구를 부탁합니다’ 하고 천국 길목을 기다리며 숨이 거두기를 기다렸지만 목숨이 끊어지지 않고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얼마를 지난 후에 또 마음속에 성경구절이 보였습니다. 마가복음 5장 19절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시라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이 말씀이 마음에 눈에 보였습니다.

‘주여 어찌 이 죄인을 이리도 사랑하십니까. 제가 건강하게 되면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만일 이대로 죽는다면 천국 가는 길목에 거하게 하여주세요 믿습니다.’

그렇게 눈을 뜨고 싶어도 뜨지 못하던 눈에 환한 빛을 느끼며 눈을 떠 보았습니다. 실눈이 떠지며 아파트 창문으로 비친 햇빛이 광명의 빛이 되어 눈에 비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아름다운 빛은 본적도 없는 빛이었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뜬 실눈을 감기가 싫어 더 크게 눈을 떠보았습니다.

그때 아들이 ‘엄마 아빠가 눈을 떴어요. 이것 봐!’ “그래 아빠는 일 어날 거야” 이런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기뻐했습니다. 이제 눈으로 대화를 할 수 있어 얼마나 편한지, 약을

먹이려 하면 싫으면 눈을 감고 마음에 들어 먹으려면 눈을 깜박였습니다. 가래도 멈췄습니다. 우리 집에 웃음이 오기 시작하였고 배에 부기도 빠지고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부추겨 자리에서 일어나고 보니 꿈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왔고 보니 세상이 모두 내 것이 되었고 이제 다시 갈 교회를 생각하면 기뻐 뛰고 싶습니다. 후들대는 다리를 세워 이층 아파트에서 내려다보니 걸고 뛰는 사람들을 보며 ‘나도 저 길을 다닐 수 있다’ 생각하니 나의 마음이 기쁨이 되어 동실동실 공중에 나르고 있었습니다. 눈에 들어오는 멀리 보이는 산과 들 담장에 흔들이는 저 풀도 나무도 나를 환영하며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이 좋으신 은혜의 간증하겠노라고 서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병원에 종합 검사결과 담당사가 놀라며 어떻게 100에 한 사람이 있을 말까 하는 기적이라며 자기도 처음 보는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는 자유롭게 처음 의사에게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장녀사업과 술장사를 통해 팔팔대는 돈을 좇아 준비하려고 집 팔돈은 병원비로 쓰고 나니 이민을 떠나올 때와 같이 아무 것도 없고 딸이 포스코 회사 다니며 받은 월급으로 근근이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원에서 국수 장사를 시작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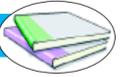
공원에서 딸이 친구 아빠가 장사를 하는데 잘된다고 하며 딸이 ‘아빠, 공원에서 국수장사를 하면 잘 된대요. 우리 할 수 있겠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빠가 돈이 없잖니 어떻게 장사를 하니 좀 기다려 봐야겠어’ 하니까 딸이 나가 그 친구 아빠에서 돈 2백불을 빌려가지고 와서 이것 가지면 장사를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천막과 철판을 사가지고 처음으로 공원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공원은 200여 개 각종 음식점, 토, 일 3일 동안 모여서 장사를 하는 곳이었습니다. 다행히 딸이 친구 아빠가 그 장소에 책임자이기 때문에 쉽게 허락 받아 장소를 배정받고 국수를 삶아 가지고 한국 잡채 하는 식으로 뷰어 철판에 그득히 놓고 사람을 기다리는데, 그날따라 비를 동반한 태풍이 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태풍과 비가 쏟아져 정강이까지 물이차고 결국 우리 천막만 낙산처럼 솟구치더니 날아가 버렸습니다. 비를 고스란히 맞은 국수는 물에 퐁퐁 불어 차고 넘쳤습니다. 금방 태풍과 비가 그쳐 정신을 차리고 ‘어찌 내 천막만 날아갔나?’ 하고 보니 다른 사람들은 땅에다 큰 막대를 박고 천막 기둥을 잡아매었던 것이었습니다.

(계속)

새 책 소개



“전인구원” -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구원

저자 강신용 목사

뉴욕 사랑의동산교회 담임 강신용 목사의 설교집 “전인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구원’이라는 부제를 달고 지난해 출간됐다.

인간구원에 대한 불타는 열정으로 쓴 이 책에서 강 목사는 “믿는다고 말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왜곡된 복음이 범람하는 시대”라며 “자신이 곤고한 죄인이라는 사실도,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한 적도, 거듭남의 체험이나 증거도 없이 스스로를 구원



왜곡된 복음 범람시대... 구원받은 자의 ‘산 믿음’ 강조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며 형식적인 종교인에 머물러 있는 교회내 혹은 교회밖 사람들에게 따끔한 경종을 울리고 있다.

강 목사는 “구원은 값없이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만 그 믿음은 산 믿음이라야 한다”며 “복음을 듣고 동의하고 그것을 지식으로 기억하는 것이 믿음의 전부가 아님”을 강조하고, “그런 죽은 믿음은 생각이나 행동에 어떤 변화도 가져오지 못하며 삶의 목적이거나 가치의 기준에도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말한다.

본서는 구원의 믿음에 관한 내용과 구원 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변화,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끼치는 영향 등에 관한 메시지를 수록했다.

책은 제 1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구원, 2부 유일한 구원방식, 3부 구원의 문을 열라, 4부 전인구원, 5부 구원받은 사람은 구별된 삶을 산다로 나눠져 있다. 1부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불행의 원인”, “두 인생, 두 세계”, “그곳엔 가지 말라” 등 4편의 설교가 수록됐으며 2부에는 “하나님의 어린양”,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그리스도”, “첫째 아담, 마지막 아담” 등 3편의 설교를 담았다.

3부에는 “회개로 구원받은 아들”, “지체하지 말라”, “믿음 없는 고백의 무용성” 등 3편, 4부에는 “전인구원을 이루라”, “거듭남의 체험과 증거가 있는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 “산 믿음과 죽은 믿음” 등 4편, 그리고 5부에는 “광야로 보내시는 이유”, “장막에 있는 동안 생각하라”, “준비하며 사는 사람들”, “구원 백성들의 구별된 모습들” 등 4편 등 총 18편의 설교가 수록됐다.

총 252페이지, 콤팩트판사 발행. 각 한국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저자 이메일: shinykang4@gmail.com (유원정 기자)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Ph.D. in Leadership

사역 리더십 박사학위 과정

MBA.

이수학점: 48 Credit Hours

Global Leadership 글로벌 리더십 / Global Business 글로벌 비즈니스 Asset/ Investment Management, 투자, 부동산투자 Public Policy and Administration. 공공정책과 행정학 입학자격: 대학졸업자 및 동등학력자

Doctor of Leadership

이수학점: 48 Credit Hours

Organizational/ Ministry Leadership 조직, 사역 리더십 Brain/ Gifted Education Leadership 두뇌개발, 영재교육 리더십 Entrepreneurial Leadership 경영 리더십 / Political Leadership 정치 리더십 International Aviation Leadership 국제 항공 리더십 입학자격: 대학,대학원 석사이상자 및 동등자격자 전형방법: 서류심사, 이수 에세이, 일반상식, 면접

Ph.D. in Leadership

이수학점: 60 Credit Hours

Organizational / Ministry Leadership 조직, 사역 리더십 Brain/ Gifted Education Leadership 두뇌개발, 영재 교육 리더십 Entrepreneurial Leadership 경영 리더십 / Political Leadership 정치 리더십 International Aviation Leadership 국제 항공 리더십 입학자격: 대학,대학원 석사이상자 및 동등자격자 전형방법: 서류심사, 이수 에세이, 일반상식, 영어시험, 면접

Certificate Programs

1년 과정

1. Ministry Leadership- 전도사, 신학생, 권사, 장로, 부목사 등. 2. Pastoral Leadership- 현, 담임목사 위 과정은 글로벌 리더십 연구원과 Midwest University 에서 수료증 수여함 사역자 리더십 과정은 최고의 교수진을 통해 각지역별 특강과 프로젝트에 참여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역자간 네트워크, 사역협력과 친선 및 미래사역 개발, 선교협력을 하게되는 과정입니다. \*목회 리더십에 대한 강의와 연구, 모델 사역현장 답사, 글로벌 리더십 컨퍼런스를 통한 폭넓은 사역에 도전.

학위 취득방법 & 인증기관

학위,학점 취득방법

- 1) 미국 유학을 희망 하는 학생은 SEVIS 1-20 혹은 J-1 Visa
2) 직장, 사역을 떠나지 않고 어디서든지 세미나, 소집특강, 온라인으로 학점취득
3) 영어, 한국어 언어에 구애없이 학점취득 가능
4) M.Div 졸업자는 미국 재단법인 IEA 로 부터 목사안수 가능
Midwest University 는 미 국무부가 지정한 J-1, J-2 Visa Sponsor

인증기관

미국 연방정부 교육부의 인준 정규대학교 미국연방정부교육부 USDE 인가 및 CHEA 인가 ABHE - Accredited Status, USDE (미국연방정부교육부) www.ope.ed.gov/accreditation 미국 대학 학력인증기관 Accreditation. (CHEA) www.chea.org 미연방정부 교육부 대학코드 (USDE) OPE ID; 03528300)

문의: 전화 (636)327-4645, 이메일 usa@midwest.edu, 홈페이지 www.midwest.edu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

Washington DC Campus

5103-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Tel: (571) 730-4750 / Fax: (571) 730-4751 E-mail: wdc@midwest.edu